

국립국어원 2008-1-6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042-01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덧글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8-1-6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042-01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댓글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대표연구자: 허 재 영



국립국어원

< 차례 >

I. 연구 개요	1
1. 연구 목적	1
1.1. 인터넷 통신 공간의 언어	1
1.2. 댓글 조사의 필요성	2
1.3. 조사 목적	3
2.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3
2.1. 조사 대상	3
2.1.1.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	3
2.1.2. 조사 결과	6
2.2. 자료 구축 및 분석 방법	7
2.2.1. 기초 자료 구축	7
2.2.2. 분류 기준과 방법	11
II. 조사의 실제	17
1. 댓글 사용 경향	17
1.1. 댓글 사용의 주요 특징	17
1.1.1. 들머리사이트	17
1.1.2. 인터넷 언론	20
1.1.3. 공공 기관	21
1.1.4. 사적 영역	21
1.2. 게시물과 댓글 사용 경향	23
1.2.1. 들머리 사이트	24
1.2.2. 인터넷 언론	26
1.2.3. 공공 기관	27
1.2.4. 사적 영역	29
2. 통신 언어와 아이디 조사	30
2.1. 언어적 특성의 실태	30
2.1.1. 음운적인 면	31
2.2.2. 어휘적인 면	35
2.2.3. 문법적인 면	41
2.2.4. 담화의 차원	44

2.2.5. 규범 및 표기	46
2.2. 아이디 조사	47
2.2.1. 들머리 사이트	48
2.2.2. 인터넷 언론	50
2.2.3. 공공 기관	52
2.2.4. 사적 영역	54
3. 댓글의 성격 조사	57
3.1. 댓글의 수행성 조사 결과	57
3.1.1. 들머리 사이트	58
3.1.2. 인터넷 언론	65
3.1.3. 공공 기관	71
3.1.4. 사적 영역	75
3.2. 댓글의 높임법 조사 결과	81
3.2.1. 들머리 사이트	82
3.2.2. 인터넷 언론	83
3.2.3. 공공 기관	84
3.2.4. 사적 영역	87
3.3.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89
3.3.1. 들머리 사이트	89
3.3.2. 인터넷 언론	96
3.3.3. 공공 기관	106
3.3.4. 사적 영역	112
3.4. 댓글의 비속성 조사 결과	120
3.4.1. 들머리 사이트	120
3.4.2. 인터넷 언론	126
3.4.3. 공공 기관	132
3.4.4. 사적 영역	136
 Ⅲ. 댓글 언어 개선 방안	 143
1. 댓글과 언어 변화	143
1.1. 통신 언어 조사 결과	143
1.2. 아이디 조사 결과	145
2. 댓글의 성격 분석	145

2.1. 수행성	145
2.2. 높임법	146
2.3. 비방성	146
2.4. 비속성	147
3.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위하여	147
3.1. 언어 사용과 댓글 문화	147
3.2. 의사소통과 댓글 문화	148
 [참고문헌]	 150
[참고 자료] 댓글 조사를 위한 분과별 게시물 목록	154

〈표 차례〉

[표 1] 조사 대상 공간	4
[표 2] 분과 별 조사 결과	6
[표 3] 분과 별 성격 분석 자료의 수	11
[표 4] 댓글의 언어 층위별 분석 기준	12
[표 5] 댓글 아이디 분석 기준	13
[표 6] 게시물의 분야 설정 기준	14
[표 7] 댓글 텍스트의 성격 분류 기준	15
[표 8] 댓글에 사용된 높임법 분류 기준	15
[표 9] 댓글의 비방성 분류 기준	16
[표 10] 댓글의 비속성 분류 기준	16
[표 11] 주요 들머리 사이트의 구성	17
[표 12] 공공기관 사이트의 특징	21
[표 13] 분과별 채록 게시물 수와 댓글 경향	23
[표 14] 들머리 사이트 게시물과 댓글 경향	25
[표 15] 들머리 사이트 5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25
[표 16] 인터넷 언론 게시물과 댓글 경향	26
[표 17] 인터넷 언론 5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27
[표 18] 공공 기관 게시물과 댓글 경향	28
[표 19] 공공 기관 1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28
[표 20] 사적 영역 게시물과 댓글 경향	29

[표 21] 사적 영역 1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29
[표 22] 분과별 댓글 언어 정리 현황	30
[표 23] 댓글 아이디의 실명과 익명 분포	47
[표 24] 들머리 사이트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49
[표 25] 들머리 사이트 익명 아이디 언어 분석	49
[표 26] 인터넷 언론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51
[표 27] 인터넷 언론 아이디 언어 분석	51
[표 28] 공공 기관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53
[표 29] 공공 기관 익명 아이디 언어 분석	53
[표 30] 사적 영역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55
[표 31] 사적 영역 익명 아이디 언어 분석	55
[표 32] 수행성 조사 결과	57
[표 33] 들머리 사이트의 수행성	62
[표 34] 들머리 사이트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63
[표 35]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	68
[표 36] 인터넷 언론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70
[표 37] 공공 기관의 수행성	73
[표 38] 공공 기관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74
[표 39]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	78
[표 40] 사적 영역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79
[표 41] 들머리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83
[표 42] 인터넷 언론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84
[표 43] 공공 기관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87
[표 44] 사적 영역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88
[표 45] 들머리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비방성	90
[표 46]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 분포	92
[표 47] 들머리 사이트의 공간별 비방 정도	93
[표 48]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95
[표 49]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97
[표 50]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의 관계	100
[표 51] 인터넷 언론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102
[표 52] 인터넷 언론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104
[표 53]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107

[표 54]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109
[표 55]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110
[표 56] 공공 기관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111
[표 57] 사적 영역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114
[표 58]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116
[표 59] 사적 영역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조사 결과	118
[표 60] 사적 영역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119
[표 61]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122
[표 62]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23
[표 63]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24
[표 64] 들머리 사이트 공간별 비속성	125
[표 65]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127
[표 66]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28
[표 67]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29
[표 68] 인터넷 언론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131
[표 69] 공공 기관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132
[표 70]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33
[표 71]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34
[표 72]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135
[표 73]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137
[표 74]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39
[표 75]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40
[표 76]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141
[표 77] 댓글 조사를 위한 분과별 게시물 목록	154

〈그림 차례〉

[그림 1] 조사 목록	7
[그림 2] 한글 자료	8
[그림 3] 통신 언어 자료	9
[그림 4] 성격 분석 자료	10
[그림 5] 분과별 채록 게시물과 댓글 경향	24
[그림 6] 댓글 아이디어의 실명과 익명 분포	48
[그림 7] 수행성 조사 결과	58

[그림 8]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 분포	91
[그림 9]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93
[그림 10] 들머리 사이트 공간별 비방 정도	94
[그림 11]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95
[그림 12]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	98
[그림 13]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101
[그림 14] 인터넷 언론 댓글의 신문사별 비방성 정도	103
[그림 15] 인터넷 언론 댓글의 방송사별 비방성 정도	104
[그림 16] 인터넷 언론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105
[그림 17]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108
[그림 18]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110
[그림 19]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111
[그림 20] 공공 기관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112
[그림 21] 사적 영역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115
[그림 22]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117
[그림 23] 사적 영역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119
[그림 24] 사적 영역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120
[그림 25]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122
[그림 26]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123
[그림 27]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24
[그림 28] 들머리 사이트 공간별 비속성	125
[그림 29]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128
[그림 30]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29
[그림 31]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30
[그림 32] 인터넷 언론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131
[그림 33] 공공 기관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132
[그림 34]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33
[그림 35]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34
[그림 36]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135
[그림 37]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138
[그림 38]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139
[그림 39]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140
[그림 40]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142

I.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1.1. 인터넷 통신 공간의 언어

○ 통신 언어와 통신 공간의 언어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면서 통신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통신 언어는 “컴퓨터 통신망(PC Network)과 그것의 확대·결합 형식인 인터넷(Internet)에서 사용되는 언어”(이정복, 2003:16)를 뜻하는 말로, ‘컴퓨터 통신 언어’ 또는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언어’라는 의미를 갖는다.

통신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은 일상의 언어 사용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앞선 연구에서는 통신 공간의 언어를 줄여 ‘통신 언어(또는 통신어)’라고 불러 왔다. 따라서 통신 언어에 대한 앞선 연구에서는 용어의 정의,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의 언어가 갖는 특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의사소통 양식보다는 언어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도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가운데, 김수진(2005), 김은진(2004), 김태식(2004), 김형렬(2005), 백경녀(2001), 변광섭(2005), 신기현(2004), 안명란(2005), 오영화(2003), 이경민(2003), 이선희(1996), 이윤희(2004) 등의 논문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소논문도 매우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이정복(2003),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과 같은 연구 성과물을 나오게 하였으며, 통신 언어와 일상 언어의 관계, 통신 언어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양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신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일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는 다른 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 공간의 의사소통이 일상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기술적인 면, 정보의 차원 등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서는 ‘언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양식의 차원’을 고려한 조사가 요구된다.

○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문제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은 통신 공간의 운영 목적, 운영 방식, 사용자 특성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띤다.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 의견 수렴 및 공유, 취미 생활 등 현실 공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대부분을 통신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 공간과는 다른 점도 매우 많다. 특히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언어생활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1.2. 댓글 조사의 필요성

댓글은 게시물에 달린 글을 뜻한다. 게시물에 덧붙인 글이라는 뜻으로 ‘덧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댓글은 분량, 실명 여부, 금칙어 사용 여부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점에서 댓글 연구는 언어의 구조적인 차원(이하 언어적인 차원)과 의사소통 차원에서 지속적인 실태 조사가 요구된다. 댓글 조사의 필요성을 언어적인 차원과 의사소통의 차원으로 나누어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적인 차원

- 통신언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용 원인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마련
- 통신언어 변화와 통신언어 문화 파악을 위한 자료 축적을 위한 조사 연구

○ 의사소통 차원

- 댓글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댓글이 긍정적 기능을 갖도록 함
- 댓글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

1.3. 조사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통신 공간에 나타나는 댓글 사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통신 공간에서의 국어사용 능력과 댓글 의사소통의 발전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삼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통신 공간에서의 국어사용 양상 조사

- 1) 댓글에 나타난 통신 언어의 특징을 국어의 구조적인 면과 관련지어 조사함
- 2) 글을 통한 통신 언어의 다양한 맥락 분석

○ 통신 공간의 의사소통 양식 조사

- 1) 통신 공간의 댓글 사용 실태 조사 분석
- 2) 의사소통 양식으로서의 댓글의 성격 조사 분석
- 3)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안 모색

2. 조사 대상 및 분석 방법

2.1. 조사 대상

2.1.1. 조사 대상 선정의 기준

통신 공간에서 댓글의 언어 구조 및 의사소통 양식의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요인은 ‘댓글 허용 여부’, ‘게시물 운영 방식’, ‘댓글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공간 설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댓글 허용 여부이다. 통신 공간에서 댓글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몫이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의 누리집 가운데 ‘공지사항’은 댓글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중파 방송사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도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개별 토론 주제에 대한 댓글 허용보다는 ‘100자’, ‘200자 토론’ 형태의 의견란을 둬으로써, 댓글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둘째, 게시물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댓글은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글이라는 점에서 운영자 언어와 사용자 언어가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게시물을 올리는 양식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하나는 운영자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경우이다. 주로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통신 공간에서는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적인 사이트는 사용자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유롭게 게시

물을 올리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셋째, 댓글 운영 방식은 실명 사용 여부, 분량 등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댓글을 쓸 때, 실명을 반드시 밝힐 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아이디만을 쓰거나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따라 댓글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분량에 따라 댓글 모습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 분량이 제한될 경우 글이 단절되어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댓글 달기를 회피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들 요인은 통신 공간마다 달리 적용된다. 이들 공간은 운영 주체에 따라 일정한 특징을 보이는데, 인터넷 회사나 언론사, 공공 기관 또는 동호회나 카페 운영자, 개인 블로그 운영자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고려할 때 댓글 실태 조사는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통신 공간을 운영 주체에 따라 ‘들머리 사이트(포털 사이트, 시작 사이트)’, ‘인터넷 언론(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또는 독자적인 인터넷 언론사)’, ‘공공 기관’, ‘사적 영역(동호회와 카페)’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공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공간

분과	통신 공간 명	주소	비고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	들머리 사이트의 토론 공간을 중심으로 하였음.
	야후 핫뉴스	http://kr.news.yahoo.com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블로그★	http://happyray.com http://myungee.com	
인터넷 언론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시사성을 띤 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댓글을 조사하였으며, SBS에서는 시청자 게시판을 포함함.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인스닷컴(중앙)	http://www.joi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MBC 100분 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index.html	
	KBS 심야 토론	http://www.kbs.co.kr/1tv/toron/	
공공 기관	SBS U퍼터 뉴스, 시청자 게시판★	http://uporter.sbs.co.kr/main.html	접근성이 높은 공공 기관의 누리집을 대상 가운데, 댓글을 찾을 수 있는 공간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을 중심으로 하였음.
	농림수산부		http://www.mifaff.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 공청회		http://www.president.go.kr	
사적 영역	성인 중심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http://cafe.daum.net/parkgunhye/	정치 동호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http://www.dy1219.net/	정치 동호회
		서프라이즈	http://www.seoprise.com/	정치 포털
		한류열풍	http://cafe.daum.net/hanryulove	정치, 국제
		함께하는 투자	http://cafe.naver.com/withstock	경제
		참사랑 국어	http://cafe.daum.net/truedu	취업
		취업 뽀개기	http://cafe.daum.net/breakjob	취업
		체리야	http://www.cherrya.com/	광고 회사
		아이러브사커	http://tv.sbs.co.kr/soccer/	스포츠
		디시인사이드	http://www.dcinside.com	종합
	청소년 중심	성공 다이어트	http://cafe.daum.net/slim	건강
		최강남녀	http://cafe.daum.net/486girlboy	만남(연애)
		동방신기	http://tvxq.iple.com/	팬 카페
		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http://blog.naver.com/intelmc9293	진학
		아름다운 소설	http://cafe.daum.net/date15	청소년 동호회
		글틴	http://teen.munjang.or.kr/	청소년 문학

(★ 분과 분류에서 블로그는 사적 영역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블로그의 토론 양식이 들머리 사이트의 성격과 유사하여, 들머리 사이트 분과에서 다루었으며, SBS 시청자 게시판은 인터넷 방송 공간에서 시청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공간의 하나로 설정하여 별도로 처리하였음.)

이상의 영역 구분에서 들머리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의 뉴스의 퍼온 글은 기사 작성자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기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일지라도 기사 작성자가 다를 경우, 댓글 사용자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2.1.2. 조사 결과

1) 조사 일정 : 2008.9.4. ~ 2008.10.8.

2) 조사 방법 : 댓글 조사는 사이트의 성격과 게시물에 따라 다양하므로, 게시물을 기준으로 올라온 댓글의 총수를 기록하고, 1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있을 경우 10~20개 사이의 댓글을 임의로 채록하였다. 게시물의 게시 일정은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게시물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댓글은 다음과 같다.

[표 2] 분과 별 조사 결과

분과	게시물수	댓글총수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	연구의 표본으로 채록한 댓글의 수
들머리	210	27,235	130.9	3,036
인터넷언론	216	111,644	516.9	3,122
공공기관	219	2,306	10.5	792
사적영역	200	5,530	27.7	3,862
합계	845	146,715	174.0	10,812

[표2]에 따르면 다른 사이트에 비해 인터넷 언론의 댓글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에서는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게시물이 10개가 나타나며, 쏫불 관련 토론의 경우는 40,418개의 댓글이 달려 있어 특정 게시물을 제외할 경우 98.56개 정도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댓글은 들머리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의 뉴스 관련 게시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자료 구축 및 분석 방법

2.2.1. 기초 자료 구축

1) 기초 자료 : 채록한 댓글은 ‘조사 목록’, ‘조사 자료’, ‘통신 언어 자료’, ‘성격 분석 자료’로 정리하였다. 조사 목록은 엑셀을 사용하여, 게시물 관련 정보(게시일자, 주제, 기사 제목 등)와 댓글 총수, 채록 수를 표시하였다. 조사 자료는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게시물과 댓글을 채록하고 기초적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통신 언어 자료는 코퍼스 구축 작업이 쉽지 않으므로,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채록한 댓글 가운데 45% 정도의 자료를 표본으로 삼아 성격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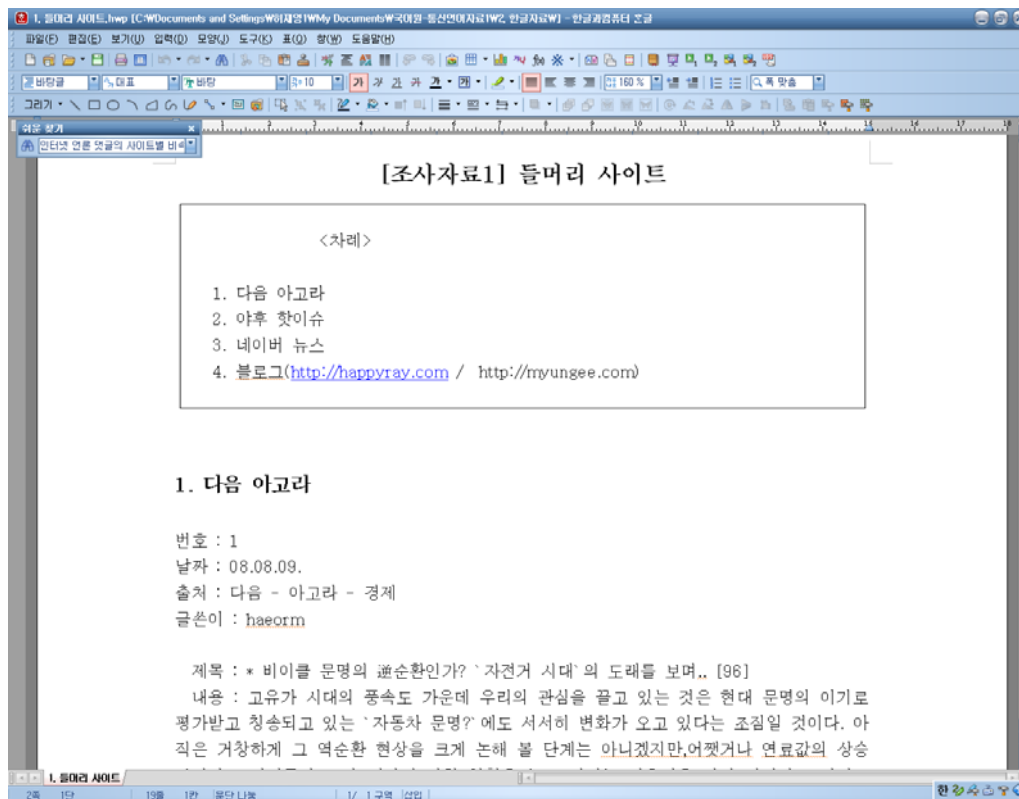
(1) 조사 목록(엑셀 프로그램) : 조사 목록에는 분과, 출처, 분야, 게시물 게시 일정, 제목, 댓글 총수, 채록수를 기록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게시물의 내용과 댓글 사용 경향이다. 조사 목록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1] 조사 목록

게시물 번호	게시물 일시	분과	출처	분야	제목	댓글 수	채록 수
1	08.08.06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배이글 플랫폼의 생존환인가? '자연적 자해'의 도해를 보며.	96	10
2	08.08.06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엔터	오늘 평토를 못 이긴 이유	530	16
3	08.08.12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이런 부도덕한 정변을 일으킨 이라도 용서하는가?	407	17
4	08.08.12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이명박 뇌물 만드느 후리가 실한 화춤텐다.	177	16
5	08.08.15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도15왕복)백근채씨 이제 그만 하세요....	114	16
6	08.08.18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재키스한인 장간방. "나는 간판만 팔다가 있다"	19	12
7	08.08.20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법률	세상에 이한남이!----괴해자가 없는데 2년째 재판?"	14	14
8	08.08.2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여장자행? 성과자행?	76	17
9	08.08.23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세계의 속제가가 범죄로 강입된 총합력하나 그내막에는 실한을	21	19
10	08.08.23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엔터	[태릉도의 출몰할] 강당이 없는 공백일...	725	19
11	08.08.23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한국현리를 속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419	18
12	08.08.24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엔터	소요간...다시 시작 할 땐 알습니다.	387	14
13	08.08.25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국제	배이글 총합력 백작직의 일본채 포기	80	19
14	08.08.26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외환위기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 붕괴...	96	18
15	08.08.26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말한 사고 간이 국한물의 '생물한 사상을 받는 이유...	310	13
16	08.08.29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외산들이 발기한 노동한 99 이명박	251	19
17	08.08.30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언론	PD수첩의 이용성...복합했다?	517	20
18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이이안한수 '9월 외환위기를...적정할 필요없다'	286	19
19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외교고관문물(배이글로) '정승문물물(배이글로)	188	20
20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종교	계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이만 아닙니다.	254	19
21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교육	법정입단 전교조를 해체하자.	141	19
22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교육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포기한겁니까?	1312	19
23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한국 경제 '9월 위기설' 당 개를 비책이되도 있나...	312	20
24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음식재정하는 식당을...단검할만한 총직은 뭐가 있을까?	91	20
25	08.09.01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법률	당도세 인하는 부동산 제책을 복원다.	108	20
26	08.09.03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교육	세상에 이한남이! '교과서' '생물' 때문에 '교과서' '생물'인데	141	19
27	08.09.03	문화라 자이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배이글 '소요간' '9월 외환위기를...적정할 필요없다'	88	19

(2) 조사 자료(한글 프로그램) : 조사 자료는 실제 댓글을 정리한 자료로써, 분과별 출처, 게시물 번호, 분야, 게시물, 댓글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게시물과 댓글은 원문 그대로 옮겨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다만 게시물과 댓글을 한글로 전사할 경우 줄바꾸기가 임의로 변화하기 때문에 코퍼스 구축을 고려하여 줄을 합쳤다. 그러나 실제 코퍼스 구축은 진행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댓글은 기존의 태그를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형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글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2] 한글 자료



(3) 통신 언어 자료(엑셀 프로그램) : 댓글용 코퍼스 수축이 어렵기 때문에,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신 언어 자료를 구축하였다. 댓글에 나타난 통신 언어는 일상어와 동일한 형태일지라도 댓글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통신 언어 자료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3] 통신 언어 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통신어 기초 자료											
2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5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6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7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8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9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0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1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2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3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5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6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7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8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19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0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1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2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3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5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6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7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8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29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0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1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2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3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5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6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7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8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39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0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1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2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3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4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5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6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7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8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9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50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51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4) 성격 분석 자료(엑셀 프로그램) : 댓글의 성격 분석을 위해, 조사 자료 가운데 표본을 설정하여 텍스트의 내용, 아이디, 높임 방식, 비방성 존재 여부, 비속어 사용 여부 등을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성격 분석 자료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4] 성격 분석 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번호	성명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성명번호
2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	2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4	3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5	4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6	5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7	6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8	7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9	8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0	9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1	10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2	1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3	12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4	13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5	14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6	15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7	16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8	17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19	18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0	19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1	20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2	2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3	22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4	23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5	24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6	25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7	26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8	27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29	28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0	29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1	30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2	3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3	32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4	33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5	34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36	35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다름	1

이 자료 구축 과정에서 실명 사용 여부는 댓글 텍스트의 성격을 달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실명 여부를 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실명 사용 여부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만을 쓰도록 하는 경우’, ‘운영자가 글쓴이의 신원 확인은 가능하나 화면상으로는 실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를 준실명제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음)’, ‘사이트 가입 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견해차를 바탕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실명을 밝힌 댓글’과 ‘실명을 밝히지 않은 댓글’의 질적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 구축을 위해 사용한 표본은 다음과 같다.

[표 3] 분과 별 성격 분석 자료의 수

분과 \ 자료	게시물(개)	총 채록 수	분석한 댓글(개)	분석대상/ 총댓글(%)
들머리사이트	70	3,036	1,059	34.9
인터넷 언론	120	3,122	1,493	47.8
공공기관	220	792	752	92.2
사적 영역	160	3,862	1,577	41.2
계	570	10,812	4,881	45.1

2.2.2. 분류 기준과 방법

1) 분류 기준 설정 원리 : 댓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분류가 발달한 학문 분야는 생물 분류학(taxonomy)과 서지·도서 분류학(class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문화학이나 정보처리학 분야에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댓글의 언어 현상이나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 층위를 고려한 분류와 텍스트의 성격 분류가 필요하다. 언어 층위의 분류는 음운, 어휘, 문법, 담화적인 기준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텍스트의 성격 분류는 체계 설정과 분류 방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분류 관련 선행 연구인 김명옥(1993), 김문용·이정주(2003)에서 논의된 주제 분류 체계 및 범주 설정 방식을 따라 텍스트를 분류하기로 하였다.

첫째, 언어적인 면에서는 언어의 층위를 고려하여 ‘음운, 어휘, 문법, 담화, 표기’ 항목을 설정하여 기준을 명료하게 하였다. 이 기준은 댓글 아이디 분석에도 적용하였다.

둘째, 게시물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 기준은 ‘게시물 제목’을 기준으로, 주제 분류 방식을 택하였다. 제목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분류의 중복성과 임의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방식은 다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14개 항의 대분류만을 설정하였다.

셋째, 댓글의 성격을 ‘독자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 댓글과 독자의 관계는 담화 분석을 시도한 설(Searle 1977), 구현정(1997) 등에서 제시한 수행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설(1977)에서는 수행 행위를 ‘진술, 지시, 언약, 표출, 선언’으로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대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댓글의 내용을 살펴 중분류를 하였다.

넷째, 댓글과 독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높임 표현은 높임의 등급(화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다만 높임의 등급과 관련하여 ‘격식체-비격식체’, ‘아주높임-예사높임-낮춤-아주낮춤’, ‘해요체-해체’의 기준이 댓글에서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높임

(습니다) - 비격식 높임(해요) - 낮춤(한다)’의 세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였다. 특히 상대높임 종결어미가 뒤섞이는 현상이 많으므로, 이를 ‘복합’으로 처리하였다.

다섯째, 댓글의 질이나 독자의 반응을 결정짓는 ‘비방성’ 문제는 앞선 연구에서 전혀 시도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간략하게 마련하였다. 비방성의 기준은 비방 대상, 비방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비방 있음’과 ‘비방 없음’만을 표시하였다.

여섯째, 댓글의 언어생활을 나타내는 ‘비속성’은 댓글에 들어 있는 비속어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댓글에는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비속어인지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를 고려하여 ‘비속성 있음’과 ‘비속성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2) 댓글 언어 분류 : 댓글의 언어적인 특징은 댓글에 사용된 언어적인 특징을 살펴 고자 한 항목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1) 언어 층위별 분류 : 댓글 텍스트에 반영된 ‘담화’, ‘문법’, ‘어휘’, ‘음운’, ‘표기’의 특징이다. 언어 층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표 4] 댓글의 언어 층위별 분석 기준

영역	특징	예
음운	음운적 변이형, 소리대로 표기한 것 등	만쉐이(만세), 몬살다(못 살다), 묵다(먹다), 마니(많이) 등
어휘	통신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어휘, 또는 새로운 어휘(신조어)	업글(업 그레이드), 까다(공격하다), 된장놈년(못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의 뜻을 갖는 비하어) 등
문법	통신상에서 두드러지게 쓰이거나 생성되는 조사, 어미, 접두사, 접미사 등의 문법 형태소 등.	개-[접두사](개즈랄, 개망신, 개독, 개무시), -빠[접미사화](춧빠, 노빠, 애플빠), -겨[어미화], -삼/웁[어미화]
담화	통신상에서 특별히 쓰이는 관용 표현, 속어, 언어유희, 시사성 있는 표현 등	생각대로 하면 되고, 악의 화신, 空約, 만사는 망사, KBS봉숭아학당은 열등반이고 청와대봉숭아학당은 우등반
표기	규범(맞춤법, 표준어,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난 것, 숫자로 표기된 것, 첫글자(한글 음절, 로마자)만을 표기한 것, 그 밖의 문자 영역(기호, 원문자 등)을 사용한 것 등	옳바르다, 서슴치(맞춤법), 리더쉽(외래어표기법), ㄸㄸ(약자), ちらし(히라가나), 犬아들(한자), 2mb, C8(숫자와 로마자) 등

이처럼 언어 층위에 따라 댓글의 특징을 구분하면, 일상의 언어 변화와 마찬가지로 댓글 사용이 국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그림 문자(이모티콘)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므로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아이디 분류 : 댓글 아이디는 성격 분석 자료에서 실명과 익명으로 나누고, 익명의 경우는 아이디의 표기(한글, 영문, 기호, 숫자), 언어 단위(단어, 구, 통사 구조), 어휘 특성(비속성, 사회상 반영 여부), 계통(외래어)을 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댓글 아이디 분석 기준

실명 여부	표기 항목	기타 항목
실명	한글, 한자	
익명	한글, 한자, 로마자, 기호, 숫자	언어 단위(단어, 구, 통사) 어휘 특징(비속어, 사회상 반영) 계통(외래어)

2) 댓글 성격 분류 : 일반적으로 댓글은 비판, 추가정보 제공, 오락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댓글 텍스트의 내용은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게시물과 댓글의 관련성’, ‘텍스트의 성격’, ‘높임법’, ‘비방성’, ‘비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분류하였다.

(1) 게시물과 댓글의 상관성 : 게시물의 내용과 댓글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게시물의 내용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게시물의 제목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류 기준은 분류 기준은 국내 주요 들머리 사이트의 항목을 14개 분야로 다시 정리하였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6] 게시물의 분야 설정 기준

항목	특징	예시
경제	경제, 부동산, 취업 관련 게시물	분당 아파트 50평값이...
과학	과학, 의료, 환경, IT 기술 관련 게시물, 공공 기관의 정보 통신 관련 게시물 포함	게임, 유희가 아닌 노동이 되다
광고	광고 또는 홍보성 게시물	컬러송 아이즈(체리야 화장품 광고)
교육	교육 관련 게시물	한국 학원들 추수감사절에 왜 미국 몰려갈까.
국제	국제, 외교 관련 게시물	베트남, 인터넷 떠도는 중국 침공설에 발끈
문화	문화, 예술 관련 게시물	개고기 식용 합법화 논란
법률	법률, 세무 관련 게시물	중부세 완화 적절한가
사회	사회 문제 관련 게시물	조폭 신도시 유흥가 확산 따라 수도권 집중
생활	일상생활, 일기 등의 게시물	부산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숙박 요금' 여전
스포츠/연예	스포츠, 연예인 관련 게시물	이승엽 완전 부활...
언론	언론 문제 관련 게시물	KBS, 적자 279억에 1인당 경비는 작년 9200만원
정치	정당, 정책 관련 게시물, 공공 기관의 행정 관련 기사 및 법률 포함	인적, 국정채신-어떻게 해야 하나?
종교	종교 관련 게시물	장경동 목사 불교 비하 발언 불교계 반발
청소년	청소년 문제, 청소년 생활 관련 게시물	중3여잔데요, 실업계갈지 인문계 갈지 고민

(2) 댓글 텍스트의 수행성 : 댓글 텍스트가 청자(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성격을 분류하였다. 성격 분류는 구현정(1997:126~129)에서 소개된 설(Searle 1977:34~8)의 수행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진술 행위(현재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춘 행위)’, ‘지시 행위(청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끔 지시하는 행위)’, ‘언약 행위(화자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 ‘표출 행위(어떤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행위)’, ‘선언 행위(세계에 무엇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언어)’로 나누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7] 댓글 텍스트의 성격 분류 기준

텍스트의 성격	수행 내용	특징
진술 행위	대답, 비판, 반박(반대), 설명, 정보 제공, 의견, 주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	댓글을 단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텍스트
지시 행위	광고, 홍보, 권유, 명령, 요청, 의문, 충고,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	댓글 독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텍스트
언약 행위	약속, 제안, 위협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	댓글을 단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텍스트
표출 행위	감사, 감탄, 격려, 기쁨, 답답함, 동의, 동정, 동조, 반감, 부러움, 분노, 불만, 불안, 비난, 비방, 비아냥거림, 사과, 소망,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염려, 용서, 유머, 인사, 저주, 존경, 축복, 축하, 칭찬, 평가(만족, 보통, 부정), 환영, 후회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	댓글을 단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텍스트
선언 행위	전쟁 선언, 포고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	주변 세계에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은 텍스트
기타	논점 이탈, 또는 게시물과 무관한 성인 광고 등의 댓글	상관성이 없는 텍스트

(3) 댓글과 높임법 : 높임법은 댓글 독자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아주 높임(습니다체)’, ‘2.예사 높임(해요체)’, ‘3.안높임’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높임법이 격식체 4등급, 비격식체 2등급으로 알려져 있으나, 댓글에서는 비격식적인 사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습니다’와 ‘요’가 뒤섞이는 경우가 많으며, ‘하오체’는 ‘요’의 변형으로 사용된 경우뿐이어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높임법이 심각히 뒤섞인 것은 ‘+’로 표기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댓글에 사용된 높임법 분류 기준

등급	표시	종결어미
아주 높임	1	-습니다체 화계
예사 높임	2	해요체 화계
안 높임	3	하다체 화계.어미 생략 등
복합	1+2	‘-습니다’와 ‘해요’의 복합
	1+3	‘-습니다’와 ‘하다’의 복합
	2+3	‘해요’와 ‘하다’의 복합
	1+2+3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남

(4) 댓글의 비방성 :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을 뜻한다. 비방성은 대

화 및 토론 문화의 질을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방성 조사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텍스트에 비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비이클 문명의 逆순환인가”(다음-아고라, 2008.8.8.)에 달린 댓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표 9] 댓글의 비방성 분류 기준

비방성	기준	댓글
있음	근거 없는 비난, 비하, 폄하가 들어 있음	가진것 개뿔도 없으면서..서민경제 어렵다어렵다 하면서. 철저한 이기주의. 도를 넘는 허영심..있는척..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고급외제차선호.
없음	비난, 비하, 폄하하는 내용 없음	그런날이 빨리와야 에너지절약 몸소실천하는 다수의시민을 볼수있을 텐데말이져.

이 표에 나타난 비방성 있음은 게시물에 언급한 일부 사람들을 ‘이기주의자’, ‘척하는 사람들’, ‘외제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몰아붙이고 있는 텍스트이며, 비방성 없음은 비이클(바퀴) 문명이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텍스트이다.

(5) 댓글과 비속성 : 언어생활에서 비속성은 격이 낮고 속된 말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고려하여 욕설이나 상말, 비하하는 말이 들어 있는 댓글과 그렇지 않은 댓글을 나누었다. “비이클 문명의 逆순환인가”(다음-아고라, 2008.8.8.)의 댓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표에서 비속성 있음은 ‘짱개국’이라는 중국 비하어가 들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비속성 없음은 욕설이나 비하어가 들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10] 댓글의 비속성 분류 기준

비속성	기준	댓글
있음	욕설, 비하 표현 있음	울나라는 자전거타고 땀기기가 좀 불편하죠. 갓길 주차해놓은거 보면 별로 타고실지않아요. 짱개국이 그나마 괜찮은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있다는거죠 북경만 그런건가?
없음	욕설, 비하 표현 없음	그걸 인제 아셨쎄여~~?

II. 조사의 실제

1. 댓글 사용 경향

1.1. 댓글 사용의 주요 특징

1.1.1. 들머리사이트

들머리 사이트(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시작할 때 시작 페이지로 설정된다. 이들 사이트는 검색어를 기준으로 다양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작 페이지에 설정된 검색어는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설정되며, 대표 검색어 아래에는 하위 검색어가 설정되어 사이트 이용자의 관심에 따라 자유로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보편적인 인터넷 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이트인 랭키 닷컴(<http://www.rankey.com>)에 따르면 접속자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주요 들머리 사이트로는 다음(daum), 야후(yahoo), 네이버(naver)가 있다. 이들 사이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들머리 사이트의 구성

포털	분류 항목	
다음	뉴스	뉴스홈, 속보,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생활, 연예, IT/과학, 포토, TV, 핫이슈
	스포츠	스포츠홈, 축구, 해외 축구, 야구, 해외야구, 농구/배구, 격투기/일반, 포토/동영상, 게시판
	아고라	아고라홈, 토론, 이야기, 줄보드, 청원, 100분토론, 추적60분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 홈, 실시간 인기 뉴스, 동영상 뉴스, 이슈 트랙백
	텔레비전	텔레비전홈, 프로그램, 게시판, 연예뉴스, 스타존, 집계/투표, 편성표
	세계엔	세계엔홈, 나라방, 유학방, 포토, 트렌드
	만화속세상	만화속세상홈, 연재만화, 나도만화가, 만화게시판
야후	뉴스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과학, 세계, 여행, 테마별 포토 뉴스
	스포츠	스포츠속보, MLB, 야구, 축구, 해외축구, 농구/NBA, 격투기, 골프/기타, 일본야구, 스포츠패러디
	핫이슈	핫이슈, 토론마당, 네티즌한표, 인기뉴스, e세상기자
	TV	TV홈, 고뉴스LiveTV, 연합LiveTV, 동영상뉴스, TV편성표
	포토	포토홈, 스타존, 쇼드라마, 해외, 캘린더서비스
	카툰세상	카툰세상홈, 시사카툰, 연재카툰
	나누리	나누리홈, 따뜻한뉴스, 행복공감, 우리 함께 나눕니다, 나눔 댕 이야기, 나누리 사랑방, e사랑의 뽕
네이버	통합검색, 영화, 사이트, 웹문서, 지식in, 블로그, 카페, 이미지, 동영상, 사진, 뉴스, 음악, 전문치료, 지역, 책, 쇼핑	

들머리 사이트의 조사 공간은 토론 공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들머리 사이트의

뉴스가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 혹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재편집해서 전달하는 형태(‘재매개형 인터넷 신문’으로 불리기도 함)라는 점에서, 인터넷 언론 분과와 겹치는 게시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론방의 경우는 재매개형 기사일지라도, 댓글 사용자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 공간으로 인정된다. 각 공간의 특징을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음 아고라 : 들머리 사이트(포털사이트) 다음의 하위 항목에 속하는 사이트로 일종의 토론방이라고 할 수 있다. 포털 다음 회원이면 누구나 로그인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토론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 토론 글쓰기에 회원 누구나 ‘답글’(댓글)을 달 수 있다. 그리고 이 ‘답글’에 대해 또 다시 ‘댓글’을 달 수 있다. 토론 글쓰기에 ‘답글’을 달지 않더라도 찬성, 반대 아이콘을 클릭해서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숫자로 표시된다. 인기 있는 주제의 경우 많게는 10만 개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경우도 많다. 들머리 사이트 전체 회원의 수는 운영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게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여기에 답글을 달고, 그 답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실시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게시글과 답글,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한 공감, 비난, 비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비방성이 높은 편이고, 토론자들 간의 비난과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면서 게시글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거나 격렬한 논쟁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토론방의 특성 상 논리적인 장문의 댓글이 많이 달린다. 운영자 측에서는 댓글 옆에 종소리 모양의 아이콘을 설치, 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팝업창이 뜨면서 댓글에 대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신고하신 내용은 24시간뉴스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치합니다. 허위신고일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고 신고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한성일 (hmy805)님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게시글을 신고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욕설, 인신공격등 지역감정 조장 저작권 위반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광고 (경품, 행운의 편지 등) 음란내용, 윤락/원조교제 알선 등 기타 (허위사실 유포 등)

2)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 표 : 들머리 사이트 야후의 하위 항목에 속하는 핫이슈의 네티즌 한 표는 주요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운영자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들머리 사이트 야후에 로그인한 회원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고, 네티즌 의견란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달 수 있다. 게시글은 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리는 댓글들은 다른 토론방에 비해서는 비방성의 정도가 낮다. 댓글에 대해 다시 댓글을 달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덜하다는 것도 비방성이나 비속성이 낮은 이유이다. 또 찬반투표 기간이 10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로 잡혀 있어, 댓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넓어 실시간적인 논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표에는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댓글은 많이 달리지 않는 편이고, 전문적으로 댓글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편이다.

운영자 측에서는 댓글 옆에 종소리 모양의 아이콘을 설치, 이를 클릭하면 댓글에 대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3) 네이버 뉴스 :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의 하위 항목에 속하는 사이트로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예, 칼럼, 영문, 매거진, 전문지 등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에는 다음이나 야후처럼 별도의 토론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시글은 대부분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그대로 올려놓은 것으로, 이 게시글 아래 네티즌 의견란에 로그인한 회원이 댓글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간략히 쓸 수 있고, 이 의견에 대해 ‘한줄 댓글’란에 다시 댓글을 달 수 있다. 처음에 달리는 댓글은 비교적 장문인 경우가 많으나, 이 댓글에 달리는 댓글들은 한 문장의 짧은 글이 대부분이다.

게시글 의견란에 올린 글에 대해 ‘공감’,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고, 이 비율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의견에 대한 공감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운영자 측에서는 댓글 옆에 종소리 모양의 아이콘을 설치, 이를 클릭하면 댓글에 대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4) 개인 블로그 : 개인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는 들머리 사이트 영역의 또 다른 특징을 이룬다. 특히 들머리 사이트에서 선정하는 파워블로그는 수많은 접속자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이루고 여론을 형성해 간다는 점에서 들머리 사이트의 또 다른 영역을 구성한다.

1.1.2.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신문의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방송의 형태이다.

먼저 신문 형태의 언론으로는 기존의 신문사가 운영하는 이른바 ‘언론사 닷컴’이라는 형태와 독립적인 형태의 순수 온라인 신문으로 나눌 수 있다. 김병철(2005)에서는 전자를 ‘오프 앤드 온라인 형태의 신문’ 또는 ‘중속형 신문’이라고 지칭하였으며, 후자를 ‘순수 온라인 신문’이라고 불렀다. <동아닷컴>, <디지털조선>, <조인스닷컴>과 같은 형태는 전자를 대표하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후자를 대표한다. 김병철(2005)에서는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가 기존 신문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재편집해서 전달하는 형태”의 신문을 ‘재매개형 인터넷 신문’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들머리 사이트’에서 조사할 사항이므로 인터넷 언론 분과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방송은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이 결합된 방식의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매체인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부분 개방 형태인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형태인 인터넷 언론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언론의 발전 과정에서는 지상파 TV 방송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도 지상파 TV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사 대상은 신문 매체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인스닷컴>(이하 중앙일보로 표시함),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의 칼럼(사설 및 주요 칼럼)과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기관인 KBS, MBC, SBS의 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였다.

인터넷 신문의 뉴스는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댓글 사용자는 로그인을 한 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댓글의 실명 여부는 사이트별로 다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이 실명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 같이 익명과 아이디만을 밝히도록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의 게시물은 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청자 반응’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리기도 한다. 이 점에서 실명과 익명에 따른 비방성, 비속어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1.3. 공공 기관

공공 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 권력 기관을 말한다. 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게 되어 있다. 공공기관 사이트 이용은 로그인을 해야 할 경

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익명을 허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이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공공기관 사이트의 특징

기관	게시판 명칭	누리집주소	로그인 여부	실명여부
행정안전부	고객민원-국민제안(전자공청회)	www.mopas.go.kr	로그인	허용
사이버경찰청	함께하는 국민마당-정책포럼	www.police.go.kr	로그인	허용
농림수산물부	국민소통-정책토론(정책포럼)	www.mifaff.go.kr	로그인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마당-정책포럼(현재 진행중인 토론)	www.mcst.go.kr	로그인	허용
법무부	국민광장-정책광장(전자공청회)	www.moj.go.kr/	로그인	허용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참여와 민원-정책의견(전자공청회)	www.mest.go.kr/	로그인	허용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www.president.go.kr	로그인	허용

공공기관 사이트 운영 방식은 해당 관청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익명 댓글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명 인증을 거쳐 쓸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실명/익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는 비방성 댓글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1.1.4. 사적 영역

들머리 사이트의 토론방이나 뉴스를 제외한 사적 공간의 통신 언어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띤다. 이들 사이트는 유형화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트의 특성, 사이트 사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조사에서는 정치, 경제(취업), 취미, 광고, 팬클럽 가운데 임의로 사이트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인 중심의 사이트와 청소년 중심의 사이트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처럼 연령 중심의 사이트 조사는 기존의 통신 언어 연구가 청소년 언어에 치중한 면이 있으며,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 많은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 언어의 성격이나 댓글의 비방성, 비속어 사용 여부 등은 성인 사이트의 경우도 매우 심각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조사에서는 모두 15개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게시물의 업데이트 속도가 느리거나 회원 수가 적은 사이트들은 제

하고, 되도록 회원수가 많고 게시물이 자주 업데이트 되며 여러 분야에 걸친 사이트들을 선별하여 정했다. 이렇게 정한 15개 사이트들은 그 성격상으로 보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호회 성격을 갖는 사이트이다. 아이러브사커, 동방신기 팬 카페, 아름다운 소설, 글틴이 여기에 속한다. 이 사이트들은 주로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취미 관련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비판이나 논쟁보다는 공감과 격려의 성격이 강한 댓글이 많다. 이 중 아이러브사커는 20대 안팎의 남성 회원들의 비율이 높고, 동방신기 팬 카페의 경우 10대 여성 회원들의 비율이 특히 높다. 아름다운 소설, 글틴 역시 10대들이 주 회원이라는 특징이 있다.

둘째, 정보 공유의 성격을 갖는 사이트이다. 체리야, 성공다이어트, 함투, 특사모, 참사랑국어, 취업뽕개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이나 제안이 많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댓글이 많다. 비판이나 비방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가운데 '체리야'는 쇼핑몰이라는 사이트의 특성상 게시글은 운영자가 올리는 상품의 광고이고, 댓글은 구매자들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고 올리는 후기가 된다. 이 사용 후기를 평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댓글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항목화하여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성공다이어트, 함투, 특사모, 참사랑국어, 취업뽕개기는 각각 '다이어트', '주식 투자', '특목고(민족사관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포함) 지원', '임용고사', '취업'이라는 테마 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카페이다.

셋째, 정치적 성격의 사이트이다. 박사모,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한류열풍 사랑, 서프라이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치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논쟁과 토론이 다른 사이트들 보다 많다. 그러나 비난이나 비방보다는 비판과 토론이 우세하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비난이나 비방이 없을 수는 없는데,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비방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비방을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욕설을 많이 섞어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듯이 인터넷에서도 이런 경향이 그대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적 영역에서의 비방이나 비난의 댓글은 그 비중이 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사적 영역의 성격상 특정한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동질성을 강하게 갖기 때문이고 자주 글을 올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비난이나 비방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사이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서 경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이트 관리를 잘 하는 모임, 즉 게시물을 정리해서 올리는 모임의 경우에는 비판이나 비방의 도가 훨씬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주 회원의 연령에 따라 인터넷 신조어의 사용 양상에서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주 회원 연령대가 비슷한 사이트 간에도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연예인의 팬클럽이나 다이어트 등이 테마가 되는 카페에서는 신조어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글틴이나 특사모 등의 카페에서는 10대가 주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내용, 표현 면에서 매우 정제된 댓글이 달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도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2. 게시물과 댓글 사용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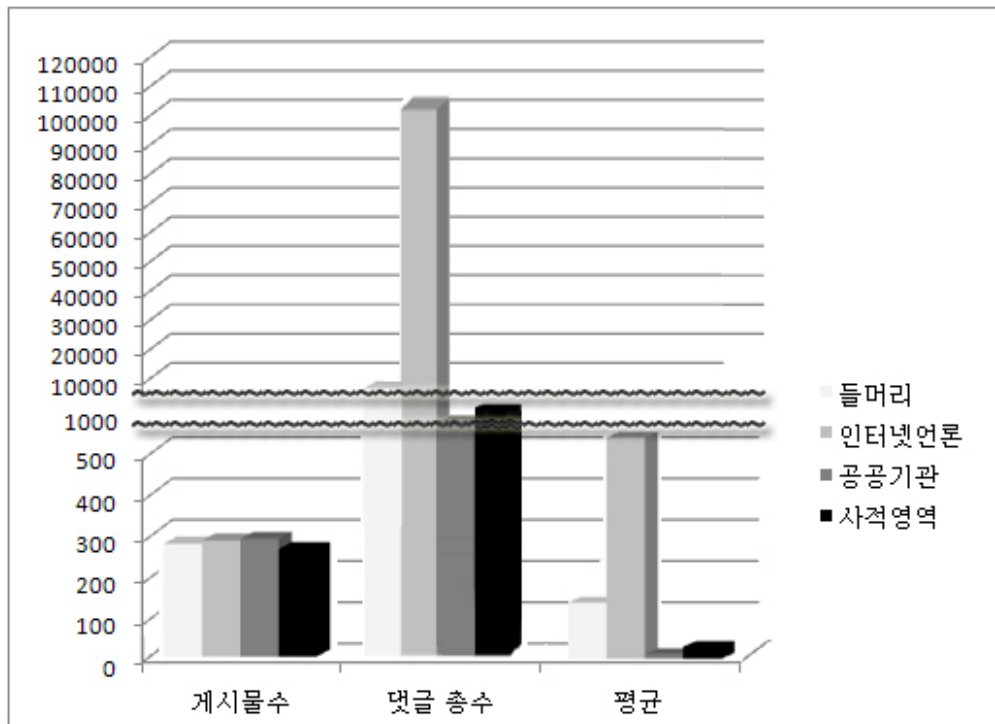
게시물의 내용과 댓글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댓글 사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댓글 총수가 달라지며, 게시물 작성자나 게시물의 언어적인 특징에 따라 댓글의 질이 달라진다. 이를 고려하여, 각 분과별로 200여 개의 게시물을 채록하고, 이에 달린 댓글 총수를 기록한 뒤, 그 가운데 일부의 댓글을 표준으로 채록하였다. 분과별 게시물 수와 댓글 경향은 다음과 같다.

[표 13] 분과별 채록 게시물 수와 댓글 경향

분과	게시물수	댓글 총수	평균	채록 수
들머리	210	27,235	130.9	3,036
인터넷언론	216	111,644	516.9	3,122
공공기관	219	2,306	10.5	792
사적영역	200	5,530	27.7	3,862
합계	845	146,715	174.0	10,812

분과별 채록 게시물을 통해 본 댓글 경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분과별 채록 게시물과 댓글 경향



이처럼 분과별로 채록한 게시물을 14개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2.1. 들머리 사이트

들머리 사이트의 게시물은 온라인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댓글이 달린다. 분야별 댓글 경향은 다음과 같다.

[표 14] 들머리 사이트 게시물과 댓글 경향

분야	게시물 수	댓글 총수	평균	채록 수
경제	45	4,206	93.5	625
과학	7	300	42.9	83
광고	0	0	0	0
교육	10	3,629	362.9	170
국제	13	789	60.7	172
문화	7	398	56.9	130
법률	8	647	80.9	131
사회	47	5,241	111.5	664
생활	9	967	120.9	135
스포츠/연예	10	2,357	235.8	140
언론	3	852	284.0	49
정치	48	7,469	158.9	698
종교	3	380	126.7	39
청소년	0	0	0	0
계	210	27,235	130.9	3,036

들머리 사이트의 게시물은 경제, 사회, 정치 관련 기사가 많으며, 이들 분야의 게시물은 비교적 많은 댓글이 달린다. 게시물 당 평균 댓글 수는 교육(362.9개), 언론(284.0개), 스포츠/연예(235.8개) 관련 기사가 높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일부 게시물에 많은 댓글이 달리기 때문이다. 다음은 들머리 사이트 게시물 가운데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이다.

[표 15] 들머리 사이트 5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출처	제목	댓글총수
다음 아고라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포기한겁니까?	1,312
다음 아고라	한나라당 제주 4.3항쟁이 좌익세력의 폭동, 이 무슨 망언인가?	896
네이버 뉴스	[이사람] “토익 980 안마사...슬픈 현실이죠”	891
다음 아고라	점점 느는 불시검문, 경찰국가의 탄생의 전조인가??	780
다음 아고라	교과서 까지 뉴라이트가 점령하나	752
네이버 뉴스	李대통령 "초중고생 1%이상 영재교육 확대"	727
다음 아고라	[태권도의 씩씩함] 감동이 없는 금메달...	725
다음 아고라	오늘 핸드볼 못 이긴 이유	538
다음 아고라	PD수첩의 이중성...뽀록났다?	517
네이버 뉴스	"200Km 넘는 과속차량 82%가 외제"	501

1.2.2.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의 게시물은 신문사의 뉴스,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사성이 매우 높다. 채록한 216개의 게시물을 분야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16] 인터넷 언론 게시물과 댓글 경향

분야	게시물 수	댓글 총수	평균	채록 수
경제	28	20,535	733.4	409
과학	2	391	195.5	28
광고	1	55	55.0	10
교육	9	242	26.9	117
국제	15	2,768	184.5	232
문화	5	565	113.0	74
법률	2	179	89.5	30
사회	57	12,935	226.9	818
생활	0	0	0	0
스포츠/연예	16	1,087	67.9	234
언론	13	1,183	91.0	178
정치	62	71,340	1150.6	902
종교	6	364	60.7	90
청소년	0	0	0	0
계	216	111,644	516.9	3,122

인터넷 언론 게시물은 정치, 사회, 경제의 순으로 나타난다. 정치 분야의 게시물은 평균 1150.6개, 경제 분야의 게시물은 733.4개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많은 수의 댓글이 달리는 이유는 게시물의 내용이 사회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은 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게시물이다.

[표 17] 인터넷 언론 5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출처	게시물	댓글 총수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	40,484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미국산쇠고기,안전한가	17,084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이명박정부100일,정책은?민심은?	14,204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이명박정부와촛불,어디로가나	5,180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촛불,꺼야하나?켜야하나?	3,848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촛불과인터넷,집단지성인가여론왜곡인가	2,918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이명박정부석달,문제는?해법은?	2,423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촛불정국,18대국회의활로는?	2,090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한미FTA비준논란	1,361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삼성사태,그본질과과장은	1,212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촛불속한국경제,위기인가	1,037
KBS 뉴스(이슈와 토론)	‘과격시위’vs‘과잉진압’논란,어떻게생각하십니까?	900
KBS 심야토론(200자토론)	법질서확립인가,공안정국인가?	654
MBC 백분토론(한줄참여)	친일논쟁!역사복원인가자해행위인가	634

이 가운데 ‘촛불 집회 관련 게시물’은 4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소고기 수입’ 및 ‘정부 정책’ 관련 기사는 1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 게시물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2.3. 공공 기관

공공 기관의 게시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댓글이 달리며, 일부 게시물에는 댓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 기관의 댓글 경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8] 공공 기관 게시물과 댓글 경향

분야	게시물 수	댓글 총수	평균	채록 수
경제	0	0	0	0
과학	23	395	17.2	182
광고	0	0	0	0
교육	97	906	9.3	243
국제	0	0	0	0
문화	3	10	3.3	10
법률	55	223	4.1	173
사회	19	83	4.4	69
생활	0	0	0	0
스포츠/연예	1	2	2.0	2
언론	1	0	0.0	0
정치	19	666	35.1	103
종교	0	0	0	0
청소년	1	21	21.0	10
총합계	219	2,306	10.5	792

공공 기관의 게시물에서는 정치(평균 35.1개), 과학(IT나 정보 포함, 17.2개) 분야의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교육 분야는 평균수는 높지 않지만 관련 게시물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다수의 댓글을 채록할 수 있었다. 공공 기관 게시물은 공직 사회의 관심사나 교육 문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게시물에 비교적 많은 수의 댓글이 달린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19] 공공 기관 1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출처	게시물	총수
행정안전부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423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94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3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12

1.2.4. 사적 영역

카페와 동호회 등은 댓글의 양식이 매우 다양하여 유형화가 어려울 정도이다. 조사 대상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게시물의 내용과 댓글 사용 경향이 달라진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16개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사용 경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0] 사적 영역 게시물과 댓글 경향

분야	게시물 수	댓글 총수	평균	채록 수
경제	25	445	17.8	445
과학	1	13	13.0	13
광고	7	129	18.4	129
교육	8	115	14.4	115
국제	5	593	118.6	84
문화	1	11	11.0	11
법률	0	0	0	0
사회	11	548	49.8	195
생활	30	622	20.7	612
스포츠/연예	34	853	25.1	796
언론	2	237	118.5	40
정치	43	1,370	31.9	828
종교	2	41	20.5	41
청소년	31	553	17.8	553
계	200	5,530	27.7	3,862

사적 영역 게시물에서 언론(평균 118.5개), 국제(118.6개)의 댓글 평균이 높은 까닭은 댓글이 활성화된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 밖의 사이트에서는 댓글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일부 팬클럽이나 청소년 사이트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표 21] 사적 영역 100개 이상 댓글이 달린 게시물

출처	게시물	댓글 총수
dcinside.com	中 우주 유명, '조작설' 등 의혹 제기	529
dcinside.com	"멜라민 표시가 없네?"...MB 돌발영상 '빈축'	386
dcinside.com	'달러 모으기' 운동? 네티즌 '엇갈린 반응'	237
dcinside.com	사이버 모욕죄 도입 놓고 '갑론을박'	196
dcinside.com	외설문구 G-드래곤 의상 방송, 방통위 주의받아	176
dcinside.com	YTN 무더기 해고 사태... '돌발 영상'도 준폐 위기	117

2. 통신 언어와 아이디 조사

2.1. 언어적 특성의 실태

이정복(2003)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통신 언어에 대한 정의는 넓은 의미의 정의와 좁은 의미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일상어와 구별되지는 않으나 통신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언어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일상어와는 달리 통신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신 언어는 넓은 의미의 정의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통신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는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신 공간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조사에서는 넓은 의미로 쓰이는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각 분과별로 댓글에 나타난 두드러진 언어 현상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 분과별 댓글 언어 정리 현황

분과	들머리 사이트	인터넷 언론	공공 기관	사적 영역	계
항목 수	943	677	23	720	2363

(동일 항목은 하나로 합침)

댓글 언어의 특징은 음운, 어휘, 문법, 담화, 규범과 표기의 차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음운적인 면에서는 ‘강화(된소리, 거센소리되기)’, ‘음운 교체(자음이나 모음의 일부 교체)’, ‘축약과 탈락’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표현 효과를 높이거나 표현의 경제성을 높이거나 하는 심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둘째, 어휘적인 면에서는 방언을 살려 쓴 것, 비속어와 비하어 사용, 상징어, 신조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방언, 비하어, 비속어는 일상어와 큰 차이가 없지만 댓글에서는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셋째, 문법적인 면에서는 특정 형태소나 단어가 접사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어미 및 조사의 변이형이 증가하는 것도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담화적인 면에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용 표현이 출현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섯째, 규범 및 표기에서는 댓글의 부정형성을 반영하듯 한글맞춤법, 표준어,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고, 다양한 문자 및 기호 표기가 등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1. 음운적인 면

댓글 언어의 음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강화 현상 : 강화 현상은 특별한 이유 없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표현 면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데, 일상어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통신 공간에서는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각 분과별 ‘된소리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개썰이, 갑방, 거꾸로, 꺼리, 꼴짜, 데이또, 또쫑똥, 뚜드리다, 빠, 색끼, 솔찍히, 썰끼, 썰레기, 아무꺼나, 찔살다, 쪼우다, 쪼쫑똥, 쫑아내다, 찌네, 초빨 등
- ㄴ. 인터넷 언론 : 샴끼, 갱쌍도, 쪼께, 쉼뽀, 쉼끼, 새끼, 우썸, 싸랑하다, 싸모님, 껌찰 등
- ㄷ. 사적 영역 : 씨발런, 죄끔, 쪼매, 쪼선일보, 쫘, 쫘선, 쪼끔, 쫘이는데, 크리스마쑤

이유 없는 된소리 표기는 비속어의 변이형에서 더 많이 쓰인다. 이는 화자의 억압된 심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강화된 욕설 표현을 사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거센소리 표기’도 유사한 성격을 띤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대한민국, 무캐념, 박추영, 외국, 쥐새끼, 조금, 좇아버리다, 초넌, 케안습, 한국
- ㄴ. 인터넷 언론 : 거센소리 : 새퀴, 미국
- ㄷ. 사적 영역 : 개썰끼, 싹뽀, 오꽈, 좇, 좇, 감사합니당, 휘꽈

강화 현상은 대부분의 통신 공간에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각 공간마다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유 없는 된소리 표기나 거센소리 표기는 공공 기관의 댓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공공 기관 댓글 이용자들의 언어 의식이 다른 공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들머리 사이트, 인터넷 언론의 댓글은 비속어의 강화 현상이 두드러지며, 사적 영역에서는 오락적 표현 효과를 고려한 강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강화 현상의 결과 ‘대한민국, 한국’처럼 나라 이름을 ‘국’으로 표기하는 현상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싹뽀, 오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표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어다운 이색적인 소리를 내고자 하는 심

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말에 끼치는 외국어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2) 음운 교체 : 자음이나 모음의 일부를 교체하여 다양한 변이형을 만들어낸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자음 교체의 예를 살펴보자.

- ㄱ. 들머리 사이트 : 도랄(도랑), 똥구녕(똥구멍), 떠발, 떠벌(썩할), 몬살다(못살다), 심원(십원), 언능(얼른)
- ㄴ. 인터넷 언론 : 얼릉(얼른), 썩떼끼(썩새끼), 미틴(미친), 시팍(시팔)
- ㄷ. 사적 영역 : 텅말요(정말요), 미틴(미친), 얼릉(얼른), 줄라(좃나)

자음 교체는 친근감의 표현이나 애교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는 비속어에도 나타나는데, 똑똑한 발음과 표기보다는 변형된 발음과 표기가 덜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댓글 사용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모음 교체 현상도 대부분의 통신 공간에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감좌(감사), 개세끼(개새끼), 갱제(경제), 강요(강요), 곰찰(검찰), 구엽다(귀엽다), 그른(그린), 그리꾸(그리고), 금뽕달(금메달), 답답허다(답답하다), 당안하다(당연하다), 당채(당채), 두두리다(두드리다), 두움(도움), 떠라이(돌아아), 땡(똥), 똥다(똥다), 마련허다(마련하다), 매모(메모), 머니(많이), 무개(무게), 무신(무슨), 목다(먹다), 미퀸(미친), 미친세끼(미친새끼), 명박이(명박이), 바깼다(바꿨다), 바라(봐라), 베드민턴(배드민턴), 뽀다(뽀다), 서비시(서비스), 세겨두다(새겨두다), 세만금부지(새만금부지), 쓰래기(쓰레기), 쓰불(썩할), 아부지(아버지), 아쑤다(아쑤다), 언녕(얼른), 오모낫(어머나), 오죽(오직), 오히리(오히려), 우썰(어썰), 을바르다(올바르다), 읊다(없다), 인쇄매체(인쇄매체), 인터넷(인터넷), 자숙(자식), 자연스래(자연스레), 절라(줄라~좃나), 제뽕(제법) 등
- ㄴ. 인터넷 언론 : 싸거리(싸그리), 누사무(노사모), 썰끼(새끼), 이른(이런), 우썰(어썰), 양구(연구), 녀(놈), 논(년), 니념(네놈), 읊따(없다), 뽕신(병신), 쉬빨(시팔), 뉴식(뉴스), 쥐랄(지랄), 완존(완전), 아줍(아집)
- ㄷ. 사적 영역 : 괜찮다(괜찮다), 그르쵸(그렇지요), 기냥(그냥), 녀(놈), 녀답이예요(농담이예요), 논(년), 당윤희(당연히), 모든지(뭐든지), 몬ㄴ뜻(뭔 뜻), 바까주던데(바꿔 주던데), 바여(봐요), 손꾸락(손가락), 승질(성질), 어뜨카냐(어떡하냐), 역쉬(역시), 오닐(오늘), 요기(여기), 올심히(열심히), 쵸일(종일), 지대로(제대로), 흥부(형부)

통신 공간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기관의 통신 언어에서는 음운 교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공공 기관 댓글 사용자의 언어 사용 수준이 표준형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음운 교체의 원인이 자극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나 애교스러운

표현, 또는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공공 기관의 댓글은 이러한 심리 표현이 덜 반영됨을 의미한다. 또한 ‘개세끼, 무개, 베드민턴’처럼 ‘ㄱ’과 ‘ㄷ’이 뒤섞이는 현상은 국어의 모음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생략과 축약 : 댓글 언어에서도 경제적인 표현을 위해 생략하거나 특정 음을 탈락시키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난다. 생략은 특정 음운이나 음절을 없애는 현상을 말하며, 탈락은 특정 음운을 의도적으로 발음하지 않거나 표기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생략 현상은 무엇이 생략되었는지를 복원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탈락 현상은 표준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거(것이다), 마누(마누라), 부럽(부럽다), 은근(은근하다), 는(것이다).
모라서(몰라서), 까브다(까불다), 마이(많이), 병시(병신), 불고평(불공평), 시바(시발),
여주회(연주회), 조넨(좃나는) 등
- ㄴ. 인터넷 언론 : 존심(자존심), 고마하다(그만하다), 캐릭(캐릭터) 등
- ㄷ. 사적 영역 : 까칠(까칠하다), 찼든(어쨌든)

생략 현상은 공공 기관의 댓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생략 현상이 비격식적이고 사적인 언어생활 양식임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공간에 비해 공공 기관의 의사소통 양식은 격식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띤다.

축약은 두 음운이나 음절을 한 음운이나 음절로 줄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축약은 표현된 음운이나 음절에 줄어든 음운이나 음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글쳐(그렇지요), 안글냐(안 그렇냐), 개술(개소리), 갠(개인), 강(그냥), 그니깐(그러니까는), 그쵸(그렇지요), 근대(그런데), 근디(그런데), 글구(그리고), 글다(그렇다), 녀2(너무), 놈현(노무현), 너 (너희), 담(다음), 땀 (때문), 맘(마음), 몰갯다(모르겠다), 무자게(무지하게), 불쌍타(불쌍하다), 설(서울), 썩(새끼), 씹(싸움), 썰폰(셀룰로폰=휴대전화), 아임에프(아이엠에프), 암소리(아무소리), 암튼(아무튼), 연엔(연예인), 울(우리), 재섭다(재수없다), 쟀나다(재미나다), 쟀잇다(재미있다), 함(한번), 핫팅(화이팅) 등
- ㄴ. 인터넷 언론 : 함(한 번), 탄날당(탄나라당), 무자게(무지하게), 글구(그리고), 어캐(어떻게), 야그(이야기), 머(무어~뭐), 울나라(우리나라), 졸(졸라~좃나), 언(어느), 녀(너무), 땀(때문), 색(새끼), 쥘(제일), 강(그냥), 찜(처음), 이케(이렇게), 갠적(개인적), 몰

쇠하다(모르쇠하다), 글두(그래도), 왜케(왜 이렇게), 잼나다(재미나다)

ㄷ. 공공 기관 : 온라인겜(게임), 아녀(아니어), 근디(그런디), ‘공먼분(공무원분)

ㄹ. 사적 영역 : 갠적(개인적), 그닥(그다지), 강쥐(강아지), 갠춘갠춘(괜찮아 괜찮아), 갱(그냥), 그치만(그렇지만), 근데(그런데), 글고/글구(그리고), 글케(그렇게), 글쿠나..(그렇구나), 글쿤요(그렇군요), 글킨(그렇긴), 궁게요(그러니까요), 널 (내일), 냐두다(내버려두다), 님(너무), 담(다음), 델꼬/델꾸(테리고), 디잔(디자인), 때매(때문에), 머(뭐), 모(뭐), 쌤(선생님), 셜(시험), 아샬킵(아시안킵), 안캠다고(안 하겠다고), 알럽캉(아이러브 캉), 앗툐(아무튼), 야들(이 아이들), 어케(어떻게), 왜케(왜 이렇게), 울(우리), 울나라(우리나라), 월욜(월요일), 일케(이렇게), 자책(자체가), 잼있다(재미있다), 쟈(제일), 찜/츄(처음), 클마쓰(크리스마스)

축약 현상은 모든 공간에서 두루 나타난다. 축약은 언어의 경제적인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격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말소리를 하나로 줄여 의사를 전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축약하여 표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4) 그 밖의 현상 : 특정 음을 첨가하거나 본 형태를 의도적으로 늘여 쓰는 경우, 그리고 흐름소리(유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각 공간별 특이한 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들머리 사이트

- 첨가 : 군하(호격조사 ‘ㅎ’첨가), 난중(나중 : ㄴ 첨가), 닛(-니: ㅅ 첨가), 텡(-테 : ㅇ 첨가), 돌저히(도저히 : ㄹ 첨가), 바봉(바보 : ㅇ 첨가) 등
- 늘이기 : 꼬옥(꼭), 노옴(놈), 누으스(뉴스) 등
- 유음화 : 꿏다(꿏다), 쉼리(새끼) 등

ㄴ. 인터넷 언론 :

- 첨가 : 좇사위(조사위~조사위원회), 생퀴(새끼), 어랏(어라)
- 늘이기 : 가이새끼(개새끼), 발라당(벌렁), 츠암내(참내)

ㄷ. 사적 영역

- 첨가 : 님하(님아), 오빠(오빠), 좇선(조선)
- 늘이기 : 만셰이(만세), 비윽신(병신), 자~알(잘), 허~얼(혈)

첨가 현상은 예스러운 표현으로 되돌리거나 어린이 말투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늘임 표현이나 유음화도 비슷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관의 댓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2.2. 어휘적인 면

1) 비속어와 비하어 : 댕글의 비속어와 비하어는 형태와 의미의 차원에서 일상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상어와는 달리 댕글에서는 이러한 어휘가 일상어보다 더 빈번히 쓰이며, 때로는 습관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비속어는 속된 표현, 곧 욕설을 의미한다. 각 공간별 비속어 쓰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개날당(한나라당), 개명(개똥), 개새리/개샤끼/개쉐리/개쉐이(개새끼), 개쌍, 구녕, 구라(거짓말), 까발리다, 깡판, 꼴, 꼴리다, 꼴통, 나가리, 나부랭이, 넘/눔/눔/눔미/눔, 닥치다, 대똥랭(대통령), 똥지다, 등신, 따먹다, 딱가리, 땡꺼(똥꼬), 땡기, 또라이/또라이, 똥구녕, 똥딱지, 똥칠, 땡땡구리, 말아먹다, 매국노, 목가지, 미친, 발광, 붕신/빙신, 색히/세리/섹취/췌끼, 스바느움/시박런, 시벌, 시키, 신발(시벌), 싹텡, 싸가지, 썸다, 썸, 씨댕, 씨바라, 씨밥바, 씨부랄눔, 씨부렁거리다, 씨부리다, 씨불대다, 씹, 엇갈다, 우끼다(웃기다), 자빠지다, 잡쓰레기, 재수대가리, 쟁장할, 조동아리, 조저노다, 족치다, 존만, 좇, 좇까다, 죠까다, 주텡이, 쥐랄, 쥐새끼/쥐색기/쥐시키, 지랄, 지랄떨다, 지랄헌다, 짓끼리, 짱개국, 쪼다, 찌질하다, 해쳐먹다, 혼구녕, 홀닥벗다
- ㄴ. 인터넷 언론 : 새리(새끼), 눔(눔), 일마(임마), 즈덜(저희들), 고빠리(고등학생), 되지다(죽다), 구라(거짓말), 아작내다(박살내다), 배때기(배의 속어), 짱박다(숨겨두다), 쌍판대기(얼굴의 속어), 싸가지(행동거지에 예의가 없음), 머저리눔(모자란 눔), 천치눔, 개색기, 주댕이(입의 속어), 아가리, 등신, 쓰바(시팔), 대갈통, 쪼다(못살게 굴다), 놀고자빠지다, 중눔, 땡중, 닭대가리, 씨부리다(함부로 말하다), 똥추자식, 디지다(죽다), 아구통, 꼬라지, 씹새끼, 작살내다, 문둥이색퀴, 뽕기칠, 무지렁이, 쪽팔리다, 생또라이, 씹새끼, 시발, 또라이, 씨발눔, 똥지다, 짓거리, 씨버리다, 주둑빠리(입의 속어), 새깡이, 설레발, 깡판치다, 눔논, 년눔, 후장, 눈까리, 아구지, 주딩이, 앙디썸(엉덩이썸), 뽕치다(거짓말하다), 똥만이, 좇빠지다, 췌빠지다, 지랄떨다, 똥지다, 꼴깍, 작살, 젓나, 좇만하다, 쥐뿔, 열라, 눈치까다, 저질자식, 뽕가다, 입구녕, 쥐머리, 깡무시, 나부랭이, 꼴리다, 눔년, 허블나다, 좇불잔치, 씨벌, 똥통, 똥뽕, 밀구녕, 줄라, 까발리다, 배가르다
- ㄷ. 공공 기관 : 눔, 에이**
- ㄹ. 사적 영역 : 글쟁이, 피터지다, 견찰국가, 구라(거짓말), 기지배, 까대다, 까먹다, 까발리다, 까이다, 꼬시다, 꼴통, 다굴(패싸움), 대가리, 똥지다, 똥담까는, 또라이, 말아잡숫다, 멍멍이자식, 무뇌아, 미친눔, 배때시, 붕딱아, 붕신, 뽕, 삽질, 새키, 설레발, 세리/쉐리(새끼), 싸가지, 싸수, 씨부리다, 임마, 조넨/조넨, 조지다, 존나다, 존니/줄래/존나/존내, 주둥아리, 주둥이, 지랄맞다, 췌리다, 토나오다, 헛짓거리

비하어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낮추어 표현하는 말을 의미한다. 어떤 표현은 일상어가 담화 상황에서 비하어처럼 쓰일 경우도 있지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폄하하는 표현이 댓글 공간에서 사회성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정통(정동영), 2mb(이명박), 3류, 감빵, 강아지, 개뽕다, 개이버(네이버), 갱상도(경상도), 걸레, 검색나리(검사나으리), 골빈자, 광신자, 귀싸대기, 기생충, 까다, 감둥이, 갑죽대다, 꼬라지, 꼰대, 꽃뱀, 나브래기, 노친네, 눈깔, 뉴또라이, 너나노, 닭*가리야, 대중이, 돌대가리, 딱같이, 판나라, 판나라당, 판날당, 딸랑이, 땅바기, 땡중, 떨거지, 톨마니, 똥, 땡득이/땡박/땡박이, 머저리, 먹사(목사), 명박, 명청이, 명바귀/명바기/명박이, 몸똥아리, 미런곰탱, 미친개, 미티다, 바보천치, 바퀴벌레, 박통, 발악하다, 밥버러지, 베트콩, 보쉬(부쉬), 부시아류, 부시애완견(이명박 대통령), 비러묵다, 빠까사리, 빨강이, 사냥개, 새대가리, 싸구려, 쓰잘데기, 아가리, 악질이다, 앵벌이, 양반, 어저리(머저리), 영삼이, 왈(말하다), 이땡박/이메가/이명바기, 이파키, 재끼다, 저능아, 줄개, 좆종똥, 주둥이, 쥐꼬리, 쥐벼룩, 지/지들나라, 지를, 짱개/짱개, 쪽바리, 찌따, 케베쓰, 코레인간, 콜걸, 피래미, 한자나부랭이, 허접, 건상도(경상도), 생쥐, 쥐바기 등
- ㄴ. 인터넷 언론 : 2mb(이명박 대통령), 개구락지, 개나라(한나라당), 갱상도, 견정일, 견찰, 골보수, 구먹사(狗+ 목사), 군바리, 컷구멍, 김돼중, 까다, 짱만쉐이(강만수), 꼬득이다, 쫄수, 노가리/노개구리/노구리(노무현 대통령), 노빠충(노사모), 노통/뇌무현/노무현(노무현 대통령), 데모꾼, 돌대가리, 등신외교, 딸랑딸랑당, 땅바기, 땡중이, 땡땡식, 땡초, 떠중이, 톨곽, 똥과리, 맛자지걸, 땡바기/땡박이, 땡박정부, 먹사(목사), 먼박이, 미친소, 박그네(박근혜), 박통, 반말찌꺼리, 발개이/뽕경이, 소갈지, 수구꼴통, 스리슬쩍, 시정잡배, 씹수, 썩양아치, 쏠려다니다, 얼라, 용팔이, 이땡박, 잡중, 재벌당, 절라만국, 조센징, 좆불, 좌빨, 주둥아리, 쥐박이, 쥐쌔기들, 짱개, 짱께, 쪼잔하다, 쪽빠리, 찌질이, 천민, 테팔이, 한결레, 할렐루야
- ㄷ. 공공 기관 : 수구꼴통
- ㄹ. 사적 영역 : 난독중(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노통(노무현 대통령), 대갈뽕, 대구머시마, 대굴뽕, 판나라당, 딸리다, 땡박이/땡박이/명바기/바귀/쥐바기/쥐박이(이명박 대통령), 짱개(중국인), 짱개어, 짱골라/짱꼴라, 쪽국(일본), 쪽팔리다, 찌질이, 한결레(한겨레신문)

비속어와 비하어 가운데는 대통령, 정치인, 정당,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어휘가 많다. 또한 동일 대상을 지칭하는 비속어와 비하어의 변이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어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상 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견찰국가’와 같은 어휘는 ‘개’를 뜻하는 한자음과 ‘경찰’의 첫음절을 연상하여 만든 단어이다. ‘견상도’, ‘구먹사’ 등도 비슷한 발상에서 만들어진 단어들로 볼 수 있다.

비속어와 비하어는 통신 공간에 따라 쓰임의 정도가 다르다. 뉴스를 전달하는 들머리 사이트나 인터넷 신문, 토론의 장이 되는 인터넷 방송의 토론 공간, 정치 목적의 카페에서는 비속어와 비하어 사용 비중이 높고, 공공 기관이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적 공간에서는 비속어와 비하어 사용 비중이 낮다.

2) 상징어 : 댓글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음성 상징어와 모양 상징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낸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까호, 나항, 닝기리, 빠리리, 아놔, 아우, 앓싸, 어흑, 어흥, 엉엉, 예궁, 오예, 우왓, 으흐흥, 좇좇, 카카카, 카카, 케케케, 크흠, 킁, 킁킁, 팽, 펍, 해해해, 호호호, 효효, 훌쩍, 흐미
- ㄴ. 인터넷 언론 : 짱, 판따라, 평가평가, 뽕뽕이, 아글타글, 아자아자, 짹짹, 찹, 찹찹리, 찹찹이, 각, 킁, 툼툼
- ㄷ. 사적 영역 : 짱, 딱, 뽕, 뽕뽕, 뽕뽕치삼, 샤방샤방, 샤샤샤, 어익후, 예효, 우씨, 음툼, 짱짱임, 찹, 쪽쪽뽕뽕, 찹찹, 카아, 캐후덜덜, 카, 쿵..., 헐, 해롱해롱, 헬, 히끄덩

댓글의 상징어는 다양한 형태의 웃음(비웃음, 냉소적인 웃음, 즐거운 웃음), 혀를 차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등의 소리를 본 뜬 것이 많으며, 격려를 나타내거나 입모양을 나타내는 말도 비교적 다양하게 쓰인다. 흥미로운 것은 박동근(2008:48~50)에서 밝힌 것처럼, 상징어에도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징어의 유연성은 통신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는데, 뉴스와 토론 형식의 논쟁적인 공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웃음과 탄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쓰이며, 사적 영역의 동호회 사이트에서는 격려나 공감을 나타내는 상징어가 많이 쓰인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 ‘헐’, ‘찹’과 같은 표현은 일상어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3) 특별한 상황에 쓰이는 어휘의 증가 : 일상어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으나, 특별한 의미로 쓰이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비속어의 관습적 사용, 어휘의 은유적인 표현,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주변 의미를 주된 용법으로 하는 어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사전에 등재된 어휘일지라도 통신 공간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골수(철저한), 굴러먹다(투자하다), 금뺏지(국회의원), 깔(정도), 꺾다(아니꺾다), 나불거리다(시끄럽게 주절거리다), 낚시(미끼), 낚이다(유혹에 넘어가다), 두들기다(도전하다), 뒤집어쓰다(누명을 쓰다), 따다(얻다), 떡밥(미끼), 썰렁하다(반응이 없다), 조개(여성에 대한 은어), 쥐사냥(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라 부르고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로 쥐사냥이라는 말을 사용), 찢다(젖어들다), 첩관깎다(체면을 모르다)

- ㄴ. 인터넷 언론 : 갈구다(못살게 굴다), 개념없다(판단력이 없다), 간죽되다(거스르다), 감(거리), 갑치다(잘난 체하다), 나대다(남 앞에 나서다), 나팔수(홍보에 열중하는 사람), 맞짱뜨다(마주하여 싸우다), 무대포정신(앞뒤를 가리지 않는 정신), 몰타기(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 빗대다(견주다), 뻘세다(힘들다), 빼라(선전지), 설거지론(앞 사람이 잘못된 것을 다음 사람이 치우는 일), 씹다(함부로 말하다, 무시하다), 큰집(청와대), 학습성(앞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 ㄷ. 사적 영역 : 개미/고점(주식 투자 용어), 까칠하다(성격이 괴팍스럽다), 간죽거리다, 놀다(한 목하다), 달인(능숙한 사람), 닭가슴살/닭살(비위에 거슬리는 것), 떡다(주전을 차지하다), 무한질주(끝없는 질주), 방글라데시(비하하는 말로 쓰일 때가 있음), 배째(상대방을 협박하는 말), 베트공(비하하는 말로 쓰일 때), 뻘세다(힘들다), 센스(감각), 시나리오(짜여진 일), 씹담(여성 비하어), 약발떨어지다(효과가 없다), 일자라인(생각 없는), 장난(대충 시도해 보는), 카펫깎다(자리를 마련하다)

은유적인 표현이나 특별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은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거나 관용어로 굳어질 가능성을 갖는다. ‘წყ시(미끼)’, ‘금배지(국회의원임을 표시하는 배지)’ 등은 사전에 등재된 어휘이지만, 사전에 풀이된 기존의 의미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통신 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 까닭은 각 공간마다 이용자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사이트와 동호회 사이트는 은유 대상이 다르며, 표현 방법도 다르다. 또한 공공 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 댓글에서는 정책 비판 및 의견 표출 과정에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외래어 : 댓글에서는 국어 순화의 개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순화 대상이었던 일본계 외래어를 쓰거나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꼬봉(부하), 노가다(막노동, 막일), 뽀뽀(뽀뽀), 사꾸라(거짓), 사시미(회) 등[일본어] 룸(방), 빠이빠이(떠나다), 섯업(입을 다물어라), 스펙트럼(색채), 썰임 썰임(갈음), 올레어(회귀 아이템), 이슈화(사건화), 카르텔(연합), 콜(부름), 클린(깨끗함), 파워레벨러(등급이 높은 캐릭터), 패스(전달하다), 포지션(위치) [서양 외래어]
- ㄴ. 인터넷 언론 : 이지메(집단 따돌림), 모리배(모사하는 사람들), 마루타(생체 실험 대상자), 꼬봉(부하) [일본어], 글로벌스탠다드(국제 표준), 랜드마크(표지), 레이거노믹스(레이건 경제 정책), 렌트(빌리다), 로비(뒷거래), 루머(소문), 리베이트(뒷거래 수수), 리스크(위험), 마인드(생각, 사고), 멘트(말), 미션(회의), 바이크(자전거), 바이크라이더(자전거 운전자), 부르스(춤), 부메랑(되돌아오기), 사이코패스(정신병질환자), 블라인드처리(비공개, 삭제), 스램(쓰레기), 싸이코(정신질환), 아젠다(목표, 방향) 등[서양 외

래어]

ㄷ. 사적 영역 : 나와바리, 닌자, 빠루, 이빠이 [일본어], 게스트, 글로벌, 급브레이크, 닉넴, 다이빙, 대쉬, 대쉬보드 디커버, 데이트, 드라이브, 따봉, 땡큐땡큐, 라네즈 슬라이딩 팩트, 라이브, 라인, 러브모드, 레이저, 로션, 로얄티, 루벤스전, 룰, 리스닝, 리핑, 립서비스, 마스크팩,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맵, 매직, 맥 파우더, 메이크업, 모드, 미들지다, 미스터리, 바디샵, 박스권, 밸런스, 버러우, 보조범퍼, 본라운드, 볼륨입술, 브랜드, 브론즈, 블랙슈, 비온드, 빨나다, 사기크로스, 사이드스텝, 사이즈, 샘플, 세레모니, 셀룰라이트, 솔로, 쇼크, 슈퍼, 슈퍼비전 클로스터, 숏터링, 스유로피언, 스케줄, 스크립, 스킨드 마크찍히고, 스킨, 스킨푸드, 스킨, 스타(스타일), 스피킹, 아이러니, 아이크림, 아이템, 애프터, 언터처블, 에센스, 에스보드, 에썸, 오리진스, 온라인, 원샷, 이니셜, 이벡, 인라인, 제로, 체크리스트, 캡처, 커플, 커플주의, 커플티, 컨닝페이퍼, 컴퓨터 채팅, 케이스, 콘서트, 쿨트랙, 크리닉, 클리닉, 킬패스, 태클, 태클걸다, 트러블, 파우더, 파팅, 패밀리, 패키지, 팬덤, 팬사이트, 펀더멘탈, 펀드, 폰, 폴더, 플랫슈즈, 필, 해프닝, 웨이크, 히스테리[서양 외래어]

댓글에서 일본계 외래어의 사용이 늘어나는 까닭은 일본 대중문화나 드라마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말들 가운데 상당수는 순화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것인데, 댓글 사용자들 사이에서 다시 폭넓게 되살아나고 있다.

5) 신조어 : 댓글에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신조어가 나타난다. 신조어 생성의 원리는 일반적인 조어법(파생법과 합성법)과 다르지 않으나 다양한 연상을 통한 새로운 말의 생성이 매우 활발한 점이 특징이다. 공간별로는 들머리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 사적 영역 분과의 댓글에서 많이 발견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ㄱ. 들머리 사이트 : 강부자(강남-땅부자), 겁나(매우), 게임방, 경찰집단(경찰을 ‘견’으로 부름), 고고성, 고딩, 고소영, 고수, 골수팬, 권력엘리트(권력남용자), 켜기다, 노구리, 노노데모(데모를 반대하는 사람들), 뇌 없다(생각없다), 뇌사견(노사모+ 견), 뇌사모, 뉴똥, 뉴라이프, 님(통신상의 호칭어), 대끄리(댓글을 다는 사람), 데티즌(데드+ 네티즌), 텍(데스크), 된장눔년(된장 냄새 나는 놈과 년들), 땅나라/ 땀나라/ 차때기, 땅바기, 땀뽕, 땀보직, 떡검, 떡찰(검찰), 떨하다, 렵업(레벨 업), 리플, 말빨, 망한나라당, 맵핵(지도를 훤히 보다), 모드, 무개념, 무너춤, 미친소/미친소, 미코(미스코리아), 반사(남의 말을 되돌려줌), 방글라뽕지, 버전(수준이나 분위기), 번개(갑작스럽게 만나는 것), 병삼, 복당녀(박근혜 대표를 비하하는 말), 불기주(한기주 선수가 올림픽에서 구원 투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불지른 것에 빗댄), 빠빠눔/빠순이, 빠시다/빠썰다(매우 힘들다), 빠하다, 빨글(쓸데없는 댓글), 삽질(쓸데없는 짓), 셀카(셀프 카메라), 소한민국(대한민국을 비하한 말), 수구꼴통, 스샷(스크린 샷), 슬럼화, 썰코리아(한국을 팔다), 아고라닭장(다음 아고라 토론방을 닭싸움에 빗댄), 아골라(아고라를 ‘골라다=성질나다’에 빗댄), 아닥하다(아가리 닥치다), 악플/악플러, 안드로메다(먼 나라, 외계), 안습(눈물나

다), 안티(반대), 알랍(아이러브), 애자(장애자), 언플(언론플레이), 업글(업그레이드), 엘리스증후군(엘리트증후군), 열라, 열폭, 오맹환(오승환을 연상), 오버다(지나치다), 왕소심(매우 소심), 유딩(유치원생), 유저(게이머), 이태백, 잠복(숨어 있다), 재접(재접속), 켈라(매우), 존말(좋은말), 좀비(쓸데없거나 무능력한 사람), 좇쫓동(조선 도아 중앙), 쥐사랑/쥐잡이/지잡대생(대통령 관련 신조어), 찼다, 쪽방(성희롱 언어), 찌라시(쓸데없는 광고지), 초딩, 좇불시민, 좇불좀비, 최소한민국, 칼퇴(확실하게 퇴진), 캡송(최고 노래), 컴맹(컴퓨터 맹인), 컴자관(컴퓨터 자관), 컴터(컴퓨터), 쿨하다(좋지 않다, 시원하다), 패닉(공포), 한피레(한겨레) 등

ㄴ. 인터넷 언론 : 킴, 종부세, 헨폰, 특검, 건보, 왕따, 갈고리질, 조중동, 솟다리, 땡니뉴스, 마마보이, 좀비(무능하고 쓸데 없는 사람), 오버하다, 빼박이, 저속어, 쏘깁거리, 짹통(모조품), 초딩, 남친, 낯짝대기, 찌라시(가치 없는 신문이나 잡지), 뽐(느낌), 악플, 논객(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 무뇌, 알바(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돈을 받고 맹목적인 비난 댓글을 다는 사람이란 뜻), 잠수하다(활동하지 않다), 강부자, 고소영, s라인, 폐법, 코드인사, 비코드인사, 후판(뒤판), 떡검(특검), 언니게이트, 킹카, 킨카, 노사모, 떡찰, 막장, 난닝구 정부, 뒷담화, 3S, 누리꾼, 홈피, 한기총

ㄷ. 사적 영역 : 가위차기(축구 용어), 강등(등급 내림), 강추(강력 추천), 강퇴(강제 퇴장), 고딩(고등학생), 공친(공부 친구), 공홈(공식 홈페이지), 광팬(열렬한 팬), 국대(국가대표), 국대경기(국가대표 경기), 급사과(급히 사과), 까칠남(성격이 괴팍스러운 남자), 간징어(간간한 오징어), 꼬발(축구 용어), 남친(남자 친구), 논객(여론 주도자), 놀토(노는 토요일), 눈팅(훔쳐 봄), 닉(닉네임), 대략 난감(매우 난감함), 대박(매우 큰 일), 댓글/댓글리(댓글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 덧글(덧붙이는 글), 된장녀(된장 냄새 나는 여자, 비하어), 뒷담(뒤에서 헐담하는 것), 듣보잡 국가(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국가), 디비디방(디브디 방), 디뽕(디브디 방), 따(따돌림), 떡진머리(머리 모양의 일종), 리플(댓글), 마법기간(생리 기간), 막장해설(막말로 하는 해설), 매너댓글(예의를 갖춘 댓글), 멍미(오타에서 비롯된 말), 몰빵(모두 투자), 몸팬(몸매에 끌리는 팬), 몰타기하다(모호하게 하다), 뽕미(오타에서 비롯된 말), 백퍼(백퍼센트), 베프(베스트 프랜드), 병맛(기분이 안 좋을 때 쓰는 말), 불체자(불법체류자), 비추(추천하지 않음), 뽕패스(함부로 하는 패스), 뽕/뽕빠다(여자 속옷의 일부에서 비롯된 말), 빼가치다(매우 진저리치다), 성투(성공 투자), 솔로사상/솔탈(독신주의 사상, 독신 탈출), 쇼케방송(쇼케이스 방송), 수다방(동호회 이름), 스토킹(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 스팀 받아(화가 나), 스펙(스펙터클), 시비조기(시비하기), 싸불대다(함부로 말하고 싸우다), 싸이(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씹다(무시하다), 뽕까다(함부로 대하다), 쏘다(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지불하다), 쓰리잡(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악플(악성 리플), 안면홍조증(부끄러움을 타는 사람), 안습(눈물이 나는), 안티(반대), 알바(직업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 어이상실(어이가 없음), 열짱(얼굴이 잘 생긴), 여친(여자 친구), 열공(열심히 공부함), 열공닥공빠공(열심히 공부하고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빠지게 공부함), 염장멘트(화가 날 정도의 말), 염기해설(괴기스러운 해설), 영어 울렁증(영어만 대하면 울렁대는 증세), 울대(올림픽 대표), 완소(완전 소중한), 왕따(집

단 따돌림), 요요(원상태로 돌아감), 욱문자(욕설을 나타낸 문자), 원걸(원더걸스), 인강(인터넷 강의), 인서울(서울권), 자봉(자원 봉사), 자빔(스스로 자만함), 잠수타다(활동하지 않다), 재테크(주식 용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종뽕(종침), 중딩(중학생), 지대공감(제대로 공감함),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쟁(최고), 쪽지/쪽지주다(인터넷 소식 전달 관련), 찌라시(쓸데 없는 광고물), 챗방(채팅방), 초딩(초등학생), 초딩킵(초등학생 공차기), 총공(총공세), 칼 기상(시간을 맞추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어남), 킴/킴터(컴퓨터), 코스모스 졸업(가을학기 졸업), 태사기(태왕사신기), 패뻑(귀여움), 펴(남의 글을 옮겨오는 것), 펫(애완), 꺾(오빠에서 파생된 어휘), 험폰 번호(핸드폰 번호), 홈페이지(홈페이지), 닥본사(닥치고 본방 사수)

새말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과 새로운 사물이나 기술, 단체 등을 지칭할 경우 생성된다. 특히 사적 영역의 동호회에서는 사용자 사이의 공통된 의사소통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긴 문장을 줄여 한 단어처럼 표현하거나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조어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2.2.3. 문법적인 면

1) 접사의 생산성 상화와 새로운 접사화 경향 : 비하어와 비속어의 증가는 ‘개-’와 같은 비속어 생산에 작용하는 접사의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귀’와 같은 명사가 접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늘어난다. 먼저 접두사를 살펴보자.

- ㄱ. 들머리 사이트 : 개-(개갈다, 개견, 개공감, 개나라당, 개나발, 개노릇, 개니지, 개독, 개독교, 개똥철학, 개막장, 개망나니, 개망신, 개무시, 개바가지, 개발리다, 개버릇, 개뽕, 개뻥다귀, 개뿔, 개소리, 개스브알로르스키, 개쓰레기, 개알바, 개정부, 개정일, 개좃나발, 개죽, 개죽음, 개즈랄, 개짓, 개판, 개폭소, 개취바기), 까부시다, 썩-(생썩, 썩청수), 좃-(좃여육, 좃초니), 귀-(귀대가리, 귀박부인, 귀뿔, 귀틀러), 처-(처마시다, 처먹었을까)
- ㄴ. 인터넷 언론 : 개-(개피본다, 개관주의, 개비씨, 개먹사, 개디징, 개독교, 개돼중, 개판, 개티즌, 개무현, 개거품, 개나라당, 개념에새끼, 개정일, 개쇠대가리, 개이비에스, 개명바기, 개버러지, 개풀, 개독신자, 개무시, 개조약) 괴-(괴정일, 괴주이, 괴놈), 똥-(똥개, 똥고집), 처/쳐-(처잡수다, 처단다, 처씨부리다, 처바르다)
- ㄷ. 사적 영역 : 개-(개깡, 개농락, 개독, 개명박, 개소리, 개쪽, 개티즌, 개판), 무-(무개념), 처-(처먹다) 등

공공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 공간에서는 ‘개-’, ‘무-’, ‘처-’ 등의 접사가 명사나 동사에 붙어 새로운 비속어와 강조 표현의 어휘를 만들어 낸다. 뿐만 아니라

‘취’, ‘똥’, ‘괴’와 같은 명사가 다른 명사에 붙어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흐름은 ‘명사의 접두사화’라고 부를 수 있다. 접미사의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접미사화 경향도 나타나는데, 특히 ‘-하다’가 붙는 말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질(구역질, 대통령질, 씹박질, 헛질, 설교질, 순경질), -스럽다(독재스럽다), -언(전라디언, 절라디언, 절라던), -쟁이(소심쟁이, 예수쟁이), -잡이(듣보잡이), -빠(노빠, 명박빠, 서빠, 애플빠, 좇빠), -빨(좌빨)
- ㄴ. 인터넷 언론 : -님(대갈님), -되다(오버랩되다), -스럽다(내폴스럽다, 저질스럽다, 명박스럽다, 노망스럽다, 치사스럽다, 이한유스럽다, 개탄스럽다), -쟁이(목탁쟁이, 예수쟁이, 욕쟁이), -질(구라질, 중복질, 장난질, 선동질, 어명질), -짓(알바짓), -하다(로그인하다, 네가티브하다, 클릭하다, 난리부르스하다, 알바하다, 벤치마킹하다, 짓만하다, 널경널경하다, 지랄하다, 섹쉬하다, 화팅하다), 빠/빨(무너빠, 좌빠, 노빠, 수구빨, 좌빨분자, 노빨, 우빨)
- ㄷ. 공공 기관 : -빨(좌빨)
- ㄹ. 사적 영역 : -스럽다(사기꾼스럽다, 쥐박스럽다, 스키니스럽다, 오버스럽다), 질(커피질, 문자질, 팬질), -하다(누디하다, 다이어트하다, 드라마틱하다, 리턴하다, 매트하다, 모던하다, 문자하다, 뽕하다, 스펙타클하다, 열공하다, 오버하다, 츠리닝하다, 킨닝하다, 컴백하다, 튜닝하다, 펌프하다), 짱(노짱, 몸짱, 얼짱), 빠(명빠, 박빠, 북빠, 일빠, 위장박빠, 중빠, 좌빠), 꺾(샤꺾, 쫘꺾, 황꺾, 초꺾, 휘꺾)

‘-질’, ‘-스럽다’, ‘-쟁이’, ‘-잡이’, ‘-님’, ‘-하다’ 등의 접미사는 일상어에서도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형태소들이다. 그런데 댓글에서는 이러한 접미사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진다. 더욱이 ‘빠/빨’과 같이 특정 집단을 나타내는 새로운 형태소가 접미사처럼 쓰이는 현상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는 ‘꺾’와 같은 형태가 접미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2) 조사와 어미 : 조사 가운데는 청자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는 조사 ‘요’의 변이형이 많아졌다. ‘요’를 ‘여’로 표기하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요’에 다른 음을 첨가하거나 ‘여’에 다른 음을 첨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각 분과별로 다음과 같은 예가 발견된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얌/영/욘/욱/욕/여/염/용/유(‘요’의 강조형)
- ㄴ. 인터넷 언론 : ‘의’(국민들으 분노으 쓰나미에), ‘여/염’(없잖아여, 잘할게염)
- ㄷ. 공공 기관 : 용(‘요’)
- ㄹ. 사적 영역 : 아놔니치갯네여/있는 것 같아여(여), 웃을께역(역), 굴아에염(염), 그럼

남한은 섬이 되나옴(옴), 재수없네웁(웁), 늘려주셔야 되용(용), 마구마구 즐랐자나영(영), 넘 좋아호^^/다시 살찌우기싫구호(호)

일상어와는 달리 어미 표현의 다양화도 댓글 언어가 갖는 특징의 하나이다. 방언을 살려 쓰거나, 음운 축약의 결과 새로운 형태가 어미로 쓰이는 현상이 늘어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들머리 사이트 : 거, 겁니다(것입니다), -겨(것이며), -곤,(-고는) -구/구만(-고), -기라(것이라), -깐(까는), -께(-게), -꼬(-고), -꾸나(-구나), -남(-나), 내/넝(-네), -노/누(-나), -눈/눔(-는), -닷/당(-다), -대(-데), -딩(-다), -되(-다), -드라(-더라), -등/등요(-든), -디(-데), -라/래/레이(-라), -ㄱ, -면(-만), -므니다, 므, -벼(보아), -삼(-십시오), -셈(-세요), -셔(시어요), 슈(-시오), -슴/슴다, -쓰읍, -우, -음, -제, -취(지), -쥬(지오), -혀
- ㄴ. 인터넷 언론 : -노(우리나라 와그라노 :의문) -음(기회를 주셨음 합니다 : ‘으면’의 축약), -3(함 물어보는게 젤 빠를거값3, 김정일과 사랑 나누삼 : 종결어미 ‘음’의 변이형), -겨(북괴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다는 증거일겨, 능력두 없다구 하는 놈들이 바루 X들인겨 : ‘것이며’의 축약), -머(운동이나 열심히 하며 되지 : ‘면’을 약화하여 ‘ㄴ’을 탈락시키거나 ‘머’로 표현하는 경향), -ㄱ다(두손모아 빙다 : 종결어미 변이형), -ㄱ서리(쓴소리함서리 나라일 잘되게 하고 : ‘-ㄱ서리’와 같이 표현 효과를 고려한 변이형), -디(고상한 통계를 내셨다 이 말썽인디 : 방언형), 손녀말이잔여 친일파보다 더 악질 조병갑이 손녀네 : ‘이잖아’의 변이형), -우니까(지예미가 매춘부 새끼이시우까 : 일제시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영향일 듯), -께/깁(~하는 놈이랑께, 아편쟁이나 똑같다니깁 : 전라방언), -당/되(이해 불가입니당, 완전 반했음되 : 종결어미 ‘-다’의 변이형), -공(검역주권도 찾아오공 : ‘ㅇ’첨가)
- ㄷ. 공공 기관 : -져(하져, ‘하지요’의 준말), ‘-디(’데’의 변형)
- ㄹ. 사적 영역 : -께(내가 무슨 고3이귀?), -구(끓은날두있구 한끼만 먹은날두 있구), -기(한심하다기), -궁(일하시궁), -슴까(좋은 주말 보내요, 여자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저런말 하겠슴까), -구냥(뿌레양도 아시는구냥~~~~), -넝(단순 비아냥은 초딩들이 샌드위치 그대보다 잘한다넝), -ㄴ(그런애 있느ㄴ...=_=;;), -넛(5키로나 빠지시다넛), -뎡(춘추입어야대눈뎡), -따양(10일정도 뎡눈뎡, 조켓눈뎡, 조켓따양), -더(답답해서 하는말입니더), -땅(살빠지게땅), -다아(저같으면 그자리에서 매출액을 물어보겠습니다아), -용(하락세절대안타용), -뎡(π π 주식이면 대박인뎡), -뎡(춘추입어야대눈뎡, 10일정도 뎡눈뎡, 조켓눈뎡), -따양(조켓따양), -디(못간다 말하고 기냥 쉬어부는디), 스킨푸드에서예전에블랙슈가팩썰다가한번뒤집어진적있어서요~무섭(종결어미 생략), -삼(광주갔으면금남로나보고오삼), -셈(절대 하지 마셈, 아버지의 인생만 남아있을뿐..보기 안쓰럽(종결어미 생략), 여자가있으신거군요.꽤부럽(종결어미 생략)

2.2.4. 담화의 차원

관용 표현이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 형식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통신 공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뉴스성이 강한 게시물의 댓글에서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들이 많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궁시령궁시령(댓글에서 다른 말을 쓰지 않고 이 표현만을 남기는 경우), 생계형알밥(먹고 살기 위해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알바’는 특정 집단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댓글만 다는 사람을 공격하는 말), 쪽박차다(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다) 쿵가루집안, 코딱지 같은 녀석, 옛 같다, 미친 개소리, 악의 화신, 염려 붙들어 매다, 너나~하세요, 손톱 반쪽만큼도 없다, 지나가던 소가 옷을 일, 귀신 시중들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니나 ~하세요, 씹을놈, 개미사탕발림, 생각대로하면되고, 꼬랑지 말다, 탄지걸다, 로또맛고 번개맛을 확률, 지구를떠나거라, 눈탱이맞다, 쇼를하라, 짜고고스톱, 그들만의 리그, 딱걸리다, 안드로메다, 뚜껑열리다

댓글에서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말이나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러한 말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햇별전도사(햇별정책 옹호자), 엠빙신(엠비시 방송국), 뉴우런계(생각하는 방식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 쓰나미(큰 사건), 네로(폭군), 고구마(못 생긴 사람, 또는 구수한 사람 등의 은어), 고무줄법(기준이 모호한 법), 눈먼돈(공짜로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돈), 걸기대 마왕(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사회 변화와 함께 유머의 방식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알똥 말똥 똥만 두 덩어리 둥둥 떠다닌다, 웬 똥북? 변똥북, 완전 돌았군 삼보야 다음 총무는 니가 해라 너무관심보살, 이명박 隊(떼대) 働(서럽게울 통) 零(떨어질 령)님의 친구, 우리음악을 살리기 위해 힘쓰시는 분들의 수고는 다 도로아미타불로 만들자는 겁니까?, 만사를 망사로 만드나, 육갑이 아니라 칠갑을 해도 모자라겠네, 이승만이가 남성들을 성기란 말인가, 아 맞네. 국부란 사람의 신체부위중 볼두덩 부위를 지칭함, 747空約, kbs봉숭아학당은 열등반이고 청와대 봉숭아학당은 우등반이라네, 열우당잔당=민주당=민주세금당=세금폭탄당, 목탁팽겨쳐두고 낙지머리 들이대며

담화 양식의 차원에서 다른 공간과는 달리 사적 영역의 동호회 카페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다양한 점도 특징이다. 이는 취미와 관심사가 감정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ㄱ. 동호회의 카페의 관용 표현 : 이 무슨 호나우드가 물구나무서서 헛다리 짚는 소리야.(말도 안 되는 소리), 생유 배워 감사(인사 방법)
- ㄴ. 동호회 카페의 감정 표현 방식 : 어홀홀홀히아허 | 아허 | ㅏ-리아니흐룽르흐르히아러 | 나기ㅏ니, 오홀라, 으헉헉, 쿨럭'-'

또한 사적 영역은 각 사이트 특성을 반영하는 표현이 많은데, 이러한 표현은 해당 사이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을 이룰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어떻게 다 닥본사들(닥치고 본방 사수), 별밤이랑 슈키랑 우리 지역에 만나오는데(라디오 프로그램 이름), 사막종교를 믿어서 외국인들 잔뜩 모여든 천국 가느니(종교), 한터 실시간차트는 낮12시부터(팬클럽), 아소가족분들이 불가피하게 물려받은(아름다운 소셜 카페), 아송페당일이네(아시아송 페스티벌), 알싸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아이러브사커 회원), 캉들 제발 앨범 한장씩은 꼭 사요/캉님들한테도 넘겨주시구요(카시오페아팬들), 톡방추베에서 까기 시작했기(토크 추천 베스트), 한터 마지막집계하는게 몇시예요?(한터 정보 시스템), 황까들은 이 역사 앞에 천벌을 어떻게 감당할꼬(황우석 박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2.2.5. 규범 및 표기

1) 어문 규범 : 댓글 표현은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또는 규범적인 문장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매우 많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한글 맞춤법 : 알을수록, 가르키다, 굿이(굳이), 그런대도(그런데도), 그만큼(그만큼), 까닭(까닭), 깨긋하다, 깨닭다, 달를다, 데체(대체), 대다(되다), 되요(돼요), 틀리다(다르다) 등
- ㄴ. 방언 사용 : 너그들, 느그, 땡기다, 돌아빠다, 따구, 무웃다, 뽀시기, 부렁, 비다, 빨랑, 스다, 싸그리, 열라, 요기, 요렇게, 이기, 이바구, 겁나게(매우), 궁댕이(영덩이), 기댕기소(기다리소), 땡시(때문), 비스므리(비슷하게) 등의 방언 어휘
- ㄷ. 외래어 표기법 : 리더쉽, 맛사지샵, 매뉴, 오리지날, 쫄쫄렛, 쫄쫄렛또, 초코렛또, 판플렛, 플라멩꼬 등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공간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규범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규범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기상의 특징 : 최근의 댓글에서는 문자와 숫자의 사용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한글 첫음절 약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점은 최근의 통신 언어가 갖는 특징으로 보인다.

- ㄱ. 숫자 : 18(쌩할), 10새키(쌩새끼)
- ㄴ. 기호 또는 로마자 : 빙//신, 씨X, X니 등
- ㄷ. 한글 약자 : ㅂㅈ(시발), 츠크(축하), ㄴㄴ(노노), ㄸㄸ(두두)

기호 가운데 X의 증가는 금치어를 회피하고자 하는 댓글 사용자의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별로 나누었을 때, 문자와 숫자의 사용은 사적 영역에서 더 두드러진다. 동호회와 팬클럽 카페에서는 숫자, 한글 약자, 로마자, 기호, 표정 문자 등이 다채롭게 사용된다. 특히 한글 약자가 표정문자로 사용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 ㄱ. 숫자 : 2222, 3333, 4444, 5555 등의 댓글을 단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 ㄴ. 한글 약자 : ㄱㅇ(글쎄요), ㄱㅈ(감사), ㅂㅈ(시발), ㅁㅈ(미친), ㄸㄸ(두두), ㅋㅋ(크크), ㅎㅎ(ㅎㅎ) 등
- ㄷ. 기호 : ♪, + □ + 등의 기호를 자유롭게 사용
- ㄹ. 표정 문자 : ㅎㅎㅎ/ㅇㅈㅇ/ㅎㅈㅎ(얼굴 표정), ㄴ:(얼굴 표정) 등의 문자 사용

2.2. 아이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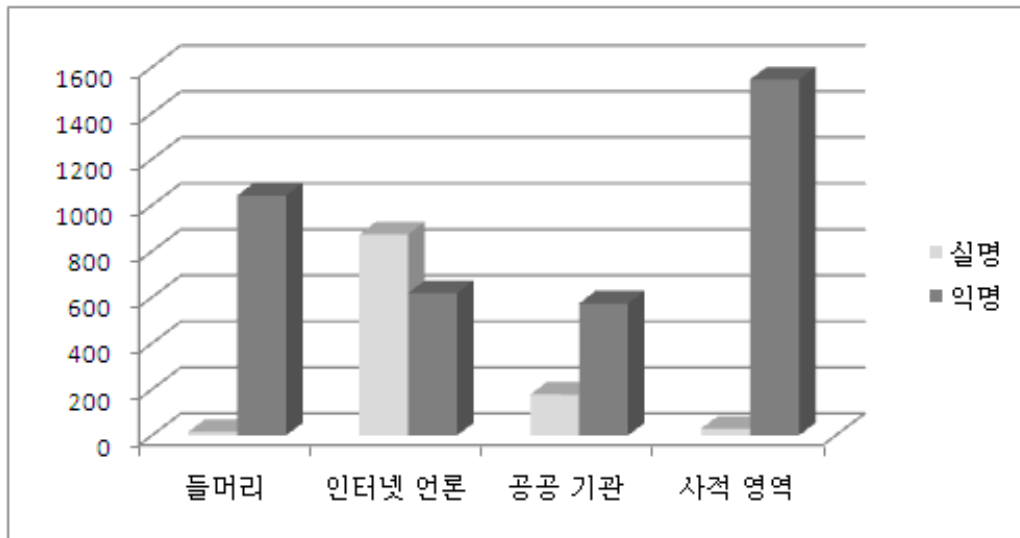
댓글의 아이디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 준다. 실명의 아이디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상어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에는 댓글 사용자의 언어 의식이나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 아이디 분석은 채록한 댓글 가운데 텍스트의 성격 분석 대상으로 삼은 4833개 댓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과별로는 들머리 사이트 1059개, 인터넷 언론 1493개, 공공 기관 752개, 사적 영역 1529개를 선정하였다. 각 분과의 실명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댓글 아이디의 실명과 익명 분포

실명 여부	들머리	인터넷 언론	공공 기관	사적 영역	계
실명	16	874	178	30	1,098
익명	1,043	619	574	1,547	3,783
계	1,059	1,493	752	1,577	4,881

각 분과별 댓글 아이디의 실명과 익명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댓글 아이디의 실명과 익명 분포



2.2.1. 들머리 사이트

1) 실명과 익명 : 들머리 사이트의 아이디 가운데 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6개가 있으며, 이니셜을 포함하여 익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1043개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ㄱ. 실명 : 신동환, 임지혜, 김정택, 황일권, 박혜미(3), 염동근(2), 정강국, 이준철, 권현석, 한경미, 김진훈, 김경남, 정종기
- ㄴ. 익명 : 발할라, Fiow, 크리스티나, resegarden, 철현, 아자, 좇불끄고안마방, 두꼬비, 무궁화, 작은공간, mari마리, 꿀통, 몰라, 오뚜기, 미르마나

‘철현’, ‘크리스티나’ 등과 같이 실제 이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성과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 안의 숫자는 여러 차례 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실명 아이디는 성과 이름을 밝히며, 한글 표기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익명 아이디는 다양한 표기가 등장하며, 언어 단위나 의미에서도 다양성을 보인다.

2) 익명 아이디 분석

들머리 사이트의 익명 아이디에 사용된 문자는 한글, 로마자, 수, 한자, 기호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러 가지 문자를 섞어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로마자 아이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표 24] 들머리 사이트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표기	개수	비율
기호	1	0.1
숫자	9	0.9
로마자	595	57.1
한글	435	41.7
한자	3	0.3
계	1,043	100.0

(둘 이상의 표기가 사용된 것은 주된 표기만을 대상으로 함)

이들 아이디를 언어의 층위를 고려하여 어휘, 구의 구조를 갖는 것, 문장 구조를 갖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휘 510개(48.9%), 구의 구조를 갖는 것 188개(18.0%), 문장 구조 42개(0.1%), 기타 303개(29.1%)로 나타난다.

[표 25] 들머리 사이트 익명 아이디 언어 분석

언어 단위		개수	계	비율
어휘	감탄사	3	510	48
	상징어	5		
	동사	4		
	명사	479		
	부사	16		
	형용사	3		
구	구	188	188	18.0
문장	문장	42	42	0.1
기타		303	303	29.1
계		1,043		100(%)

어휘의 층위에서는 주로 명사가 많이 쓰이나, 감탄사, 부사, 상징어, 형용사 등이 쓰이며, 구와 문장 구조도 쓰인다.

- ㄱ. 어휘 : 크리스티나, 신촌제비, 밀리어네어, 카르시온, 해모수, 상식사회, 응치리, 나단 쪼, 존재가치, 제임스딘(한글), Augustus, chegevara, chunter, DVD, homosapians, jk-kim, king, miocor, sun 등.
- ㄴ. 구 : 내사랑 준민, 생각중, 소나무향, 수박대장, 스네삼촌, 슬픈영혼, 여름천사, 여우 사이, 전과14범, 젊은이의양지, 정신통일, 찌그러진강통, 천재작가회야, 태양별신, 풀 새향, 회색빛하늘(한글), darkwonk, free_person, truelogic, bwjgood, storynara, flymallet, blue_skiff, newyorkerys, keendevil, orchidlady 등
- ㄷ. 문장 : mb쌔쌔먹어, 나는풍요그자체, 금강장사 바보냐, 뿔들하니, 똑바로 살자, 배고 파염, 뿔 봐, 친구했으면, 하늘이여, 아이가살아갈세상, 내반쪽은어디에 등.

이처럼 아이디도 댓글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을 띈다. 특히 의미적인 면을 고려할 때, 아이디에도 신어나 유행어의 쓰임이 많으며, 비속한 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신어와 유행어 : 컴맹, 박토벤, 뚜벅이, 아헿헿, 마루치아라치, hmsjjang01, 세환짱, 수리수리마수리, 폼미남민군, 달인, 신촌제비, 해모수, 돌도르, 1004, 배고파염, 근덕 등
- ㄴ. 비속어나 비하어를 포함한 아이디 : 전과14범, 미틴바다, 피부암통키, 미친마틴, 철없는철수세미, 눈치없는 늑, 존나발부는, 제놈들, 캐간지춘, 똥땡이, 꼴통, 땡이 등

2.2.2. 인터넷 언론

1) 실명과 익명 : 인터넷 언론의 아이디는 실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874개의 실명 아이디는 한글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619개의 아이디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 ㄱ. 실명 : 강현덕, 권영호, 김동균, 김동진, 김성준, 김영곤, 김영국, 김익수(2), 김정구, 김정수, 김태완, 정종기, 정종민, 조대근, 채수원, 황선태 등
- ㄴ. 익명 : namsan, shcco, Red hunter, samsamhie, tsher, a ornrrsh, dictator, sminsmin, dragon114, 나비바람, touchsky, countryrok 등.

익명 가운데 영문 이니셜을 딴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 () 안의 숫자는 여러 차례 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2) 익명 아이디 분석

아이디에 쓰인 문자는 주로 로마자와 한글이다. 수와 로마자, 로마자와 한글, 한글과 수를 섞어 쓰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아이디를 중복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중복 아이디의 경우 앞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삼았다.

[표 26] 인터넷 언론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표기	개수	비율
숫자	30	4.8
로마자	363	58.6
한글	222	35.7
한자	4	0.7
계	619	100.0

인터넷 언론의 아이디는 들머리 사이트에 비해 실명 비중이 높고,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익명의 아이디에서는 로마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들머리 사이트보다 더 높다. 이들 아이디를 언어 단위의 차원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인터넷 언론 아이디 언어 분석

언어 단위		개수	계(개)	비율(%)
형태소	접사	3	3	0.5
어휘	감탄사	5	230	37.2
	동사	5		
	명사	210		
	부사	5		
	형용사	5		
구		39	39	6.3
문장		11	11	1.8
기타		336	336	54.3
계		619		100.00

인터넷 언론 익명 아이디에서 형태 층위의 접사는 영어 ‘info-, anti-’가 나타났다. 그 밖의 아이디는 형태 분석과 무관한 것(336개, 54.3%), 어휘(230개, 37.2%), 구(39개, 6.3%), 문장(11개, 1.3%)의 순서로 나타난다.

어휘 가운데는 ‘으랏차차, 쩡, 웃자하하하’ 등과 같은 감탄사로 쓰이는 흥내말(5개), ‘곰곰, 나참’과 같은 부사(5개), ‘간단해, samsamhei(삼삼해)’와 같은 형용사(5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어휘는 명사로 볼 수 있는데, 이들 명사 가운데는 ‘짬빵, 러브호텔, 난닝구’와 같은 비속어와 비하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와 문장 구조를 갖춘 아이디에서도 빈번히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유행어와 사회 모습을 표현하는 아이디 : 조선일보, 대한민국(고유명사), 발해, 광개토대왕(드라마 영향), 쓴말이약, 국민이먼저, 빨난엄마, 국가의 안보, 적극보수, 재협상탁, 한숨(ptk824), 한심(dj8799), 열사와매국노(mang387), 완전중도(yh050815), 논데월드~, 러브호텔 등
- ㄴ. 비속어와 비하어 아이디 : oneguy, Red hunter, 짬빵, 불펜, 코깍지, 난닝구(bong93), 땡초(backpact), 똥싸개(edhwkdrns2), 뽕소리(dizindal), 뺨등새(q h dtor), 인사이드(oracer), 귀포수1, 너내꺼, 귀를잡자(killrat), goodbadugly, 미친것들, 멍청도, 엄빙(ymkim12345), 멍청도, 나얌마 등

익명의 아이디에는 이니셜이나 영어 단어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논데월드(롯데월드에서 기인함)’와 같은 언어유희를 나타내는 아이디도 있다.

2.2.3. 공공 기관

1) 실명과 익명 : 공공 기관의 댓글 아이디 752개 가운데 실명을 사용한 경우는 178개이며, 익명을 사용한 경우는 574개이다. 공공 기관의 실명에서도 일상의 이름과 큰 차이는 없다. 다음의 예와 같다.

- ㄱ. 실명 : 권성호(2), 김병일, 김진, 박광현, 박성진, 안훈, 양청삼(3), 엄일연(2), 이종현, 한필순, 허선, 허진철 등
- ㄴ. 익명 : 나그네, public anger, curly78, dal6913(2), edquench, ideabanker, kangog(3), ksy3130, kyi09(2), yys1418(2), 감돌이, 공권력반대(2), 깐돌이, 나그네, 네티즌, 마저마저, 봉팔이, 시민, 정보지기, 칠복이, 한통노동자 , 함께하는 시민, 햄시러 등

익명의 아이디 가운데 ‘yys, kyi’ 등은 이름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이니셜일 가능성도 있으나, 익명에 포함하였다. 또한 () 안의 수는 여러 차례 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한다.

2) 익명 아이디 분석

익명 아이디에 쓰인 문자는 수, 로마자, 한글이다. 이들 문자를 섞어 쓰는 경우도 나타난다.

[표 28] 공공 기관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표기	개수	비율
숫자	2	0.4
로마자	557	97.0
한글	15	2.6
계	574	100.0

공공 기관 아이디의 표기상 특징은 로마자의 비중(97.0%)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574개 가운데 557개(97.0%)의 댓글 아이디가 로마자를 쓰거나 로마자와 숫자를 함께 쓴다. 이들 아이디를 언어 단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공공 기관 익명 아이디 언어 분석

언어 단위		개수	계(개)	비율(%)
어휘	감탄사	1	569	99.1
	명사	568		
구	구	5	5	0.9
계		574		100

공공 기관의 댓글 아이디는 대부분 명사에 해당한다. 영어 ‘wow’와 같은 감탄사와 ‘공권력 반대, 함께하는 시민, 마저마저, public angry’와 같은 구가 쓰이기도 하나 용례가 많지 않다. 이들 아이디에는 현재의 사회 갈등이나 사회 구조가 표현되기도 한다.

2.2.4. 사적 영역

1) 실명과 익명

동호회와 카페 중심의 사적 영역에 나타나는 아이디 가운데 실명은 많지 않다. 표본으로 삼은 1577개의 아이디 가운데, 실명은 30개에 불과하며, 1547개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 ㄱ. 실명 : 감예진(2), 금상섭(2), 노지훈, 류빈, 박지현(2), 반은하, 손언진(2), 유보화, 이가흔, 이유진이다, 이진, 조계현7), 종남(7), 한영인
- ㄴ. 익명 : 55키로를 향, 대동한마음, 붉은 불나비(3), 빠꼼이(6), 사랑으로, 토종과학자, 포도농부(4), 하늘사랑(4)

동호회나 카페는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의 특성에 맞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55키로를 향’과 같은 아이디는 건강 다이어트 카페의 아이디이며, ‘대동한마음, 붉은 불나비’ 등은 정치 관련 카페에 나타나는 아이디이다. () 안의 숫자는 반복된 횟수이다. 관심사와 취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2) 익명 아이디 분석

익명의 아이디에 나타난 표기는 수와 기호, 로마자, 한글, 한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는 동호회나 카페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한글 사용의 비중(78.4%)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기호 사용 :, ..., ♥#♥#, . , -_- 와 같은 다양한 기호를 아이디에 사용함
- ㄴ. 로마자 사용 : choyh31, cjwjoe, dad, David_Silva, David_Silva, diamondpark, Dr.Kim, Erica, flowerhouse, FlyFB 등
- ㄷ. 한글, 기호, 수 등의 아이디 : ○똥그리○, ①하늘◆길①, §§폴잎향기§..., ☎네이비453..., ☎네이비453..., ♡뿌레소양♡, ♥정이, (-ㅅ-)☹로히터, ◀하쓰미▶, ☆꿈☆을이룬다, ♡미녀는해로워..., ♥난 건강해♥, 《해피해피♪》 등
- ㄹ. 한자 사용 : 崔可妃♥, 清明81, 犬Table, 韓國을 세계로 등
- ㅁ. 한글 약자 사용 : ㅇㅇ, ㄴㄴ, ㅎㅎ, ㅎㅎㅎ, ㄷㄷ 등

다양한 기호나 한자, 한글 약자의 사용은 인터넷 아이디에서도 다른 통신 공간의 언어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디에 사용된 문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0] 사적 영역 익명 아이디 표기 분석

표기	개수	비율
기호	50	3.2
숫자	69	4.5
로마자	191	12.3
한글	1,212	78.6
한자	25	1.6
계	1,547	100.0

익명의 아이디를 언어 단위로 분석하면 어휘 805개(52.0%), 구 397개(25.7%), 문장 163개(10.5%), 기타 182개(11.8%)로 나타난다.

[표 31] 사적 영역 익명 아이디 언어 분석

언어 단위		개수	계(개)	비율(%)
어휘	감탄사	66	805	52.0
	동사	14		
	명사	683		
	부사	32		
	형용사	10		
구		397	397	25.7
문장		163	163	10.5
기타	무관	150	182	11.8
	단위	32		
계		1,547		100.0

동호회와 카페 등의 특징에 따라 아이디에 쓰인 언어 단위도 다양하다. 건강이나 진학 관련 사이트의 경우는 수치와 단위를 아이디로 쓰는 경우도 많으며, 정치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이트에서는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아이디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행어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 비속어와 비하어, 인터넷 신조어 등이 아이디로 쓰이는 경우도 많은 점이 특징이다. 다음과 같은 예가 발견된다.

- ㄱ. 유행어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 : ㊦돌아온 페이아, ㊦상근이팬, 빨간양말, 빨간쫄불, 뽕뽕대박열차, 아따맘마미아, 강철중, 꼬꼬마, 내가꽤쓰, 뽕상샤, 사오정, 산소지성, 오필승, 제또맨, 아함왕줄러
- ㄴ. 비속어와 비하어 : 3빠, 강교주, 犬Table, 김능글, 내가니에미다., 너흰나의노예, 넘넘넘, 노띠, 늑현개, 다크곰탱♥, 닥치고, 달콤향별, 망태, 땡박아 독도쫄 사라, 미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미칠광[狂], 바보유하, 바비김씨, 박살난고이즈미, 발광머리앤, 발차기한방, 밥오얌, 백골단, 비능력자의, 뽕캔디, 뽕뽕어진당, 사악신, 사의 찬미, 살안빠나돼지얌, 샤아방 IMF, 성격파탄찌질냥, 스파이어 걸~..., 습격자, 식인귀, 신경질쟁이, 실성사이다♪, 씨누리, 쏘다, 아마도생선, 아쌈짱나, 악녀제제, 악플에는 욕플, 안티매너, 알라리깔라리, 암살전문가, 어택, 엠비씨꽃다, 왕따사원, 요시땅, 윗분강퇴, 유전자전, 유초니뽕대로, 육덕정레, 이빨딱무리, 이수엿, 일산존놈, 정신차려야제, 조내이쁘니, 조선족추방, 좇같은쌔까, 죠지마, 지금도 코시안들이, 진짜수상쩍다, 쏘다개미, 쫄순수 죄송행, 창민틸소시지, 천민, 해보자고~!! , 해봐~ , 허당창민., 혼혈화쫄수, 환상, 히득이, 히스레저, 히스테리 노처...
- ㄷ. 인터넷 신조어를 포함하는 아이디 : MIROTIC대박, 김악플, 까칠남, 꼬뚜기~★, 눈팅, 달따냥, 뽕愛캣, 로그인, 로피탈, 몸바사, 무심황, 뽕니아, 비주얼쇼킹, 뽕렐링, 상산고딩, 열공모드, 완소카렌, 유수가짱, 자백천사, 짱짱한스타황, 최강운영자조맹, 킹왕짱준수, 펴, 행복한된장양, 혈-, 혈랭ㄱㄱ, 웨님

유행어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아이디, 비하와 비속 표현의 아이디, 그리고 인터넷 신조어를 포함하는 아이디의 사용은 아이디 자체도 인터넷 댓글의 또 다른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댓글의 성격 조사

3.1. 댓글의 수행성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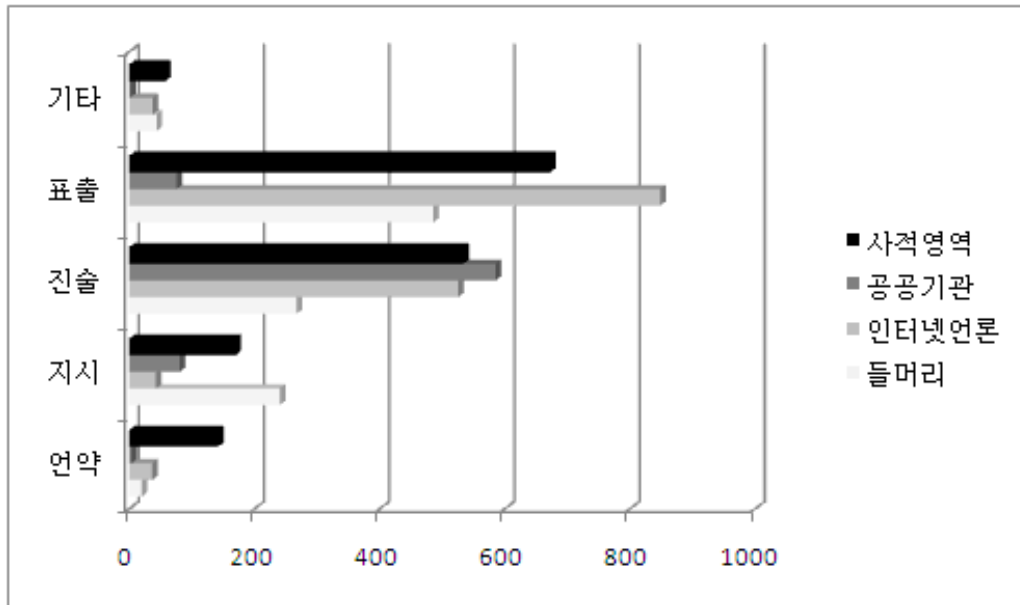
댓글의 수행성은 댓글 사용자가 댓글 독자(청자)와 어떤 내용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준이 된다. 수행성의 기준은 ‘댓글을 단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진술 행위)’, ‘댓글 독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지시 행위)’, ‘댓글을 단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언약 행위)’, ‘댓글을 단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표출 행위)’으로 나누었다. 그밖에도 ‘주변 세계에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담은 것(선언 행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쟁 포고나 선언 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수행성과 전혀 관련을 맺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게시물과 관계가 없는 댓글(무관)’이나 ‘논점이 이탈된 댓글(이탈)’ 등은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수행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 수행성 조사 결과

수행성		언약	지시	진술	표출	기타	계
분과	들머리 사이트	20	241	268	486	44	1,059
	인터넷 언론	37	43	526	849	38	1,493
	공공 기관	4	81	586	76	2	752
	사적 영역	142	170	534	673	58	1,577
계(개)		203	535	1,914	2,084	142	4,881
비율(%)		4.2	11.0	32.2	42.7	2.9	100.0

수행성 조사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수행성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댓글의 수행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3.0%의 댓글은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다. 표출 내용은 기쁨, 감탄, 슬픔, 불만, 만족, 비난, 비방, 비아냥 등의 각종 심리가 모두 담겨 있다. 다음으로는 댓글 사용자의 행동과 상태를 설명하는 진술적인 댓글의 비중이 32.2%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댓글 독자의 행위나 반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지시적인 댓글은 11.0%에 해당한다. 이는 댓글이 독자를 선동하거나 독자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약속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댓글은 4.2%로 비중이 낮다.

3.1.1. 들머리 사이트

들머리 사이트 댓글은 표출(45.9%), 진술(25.3%), 지시(22.8%), 기타(4.2%), 언약(1.9%)의 비율로 나타났다.

첫째, 표출은 감사, 격려, 기쁨, 동의, 부러움, 분노, 비난, 비아냥거림, 염려, 용서, 위협, 축하, 칭찬, 환영, 후회의 내용을 담은 것들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감사 : 우아, 완전 빠른 피드백...ㅎㅎㅎ 제가 레이님께 받는 멋진 에너지가 더 큰걸요~~
고마워요 레이님 항상!!! 아시죠잉? 해헛!![2008/10/24/ 04:32](<개인블로그 8>“희망.희망.희망. 음미해보기”에 대한 명이의 댓글)
- ㄴ. 격려 :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는 것 없어져야합니다. 숨어서 이야기하는것은 없어져야합니다. 법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댓글로 인한 희생이 없길 바랍니다. 최선을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과 선희씨와 영자언니 힘내세요. [2008/09/26/ 15:12](<<야후 네티즌한표 120>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한 loveje의 댓글)
- ㄷ. 기쁨 : 크하아아아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예전 한국에 왔을때의 공연도 갔더란 말이지요...프하하하하 다시 앨범 나오고 한다는건 들었는데...이렇게 사진속에서 보니 옛날 생각나고 말이죠...으아아아~울렁울렁 두근두근[2008/10/29 03: 39](<개인블로그 2> “영원한 세기의 아이돌, 뉴키즈 온더 블락 코서트”에 대한 령주/徐의 댓글)
- ㄹ. 동의 : 주적이 누구냐 물어보면 할 말이 많지만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이가 누구지 정도는 그런 역사를 알고 배웠어도 잘 아니까...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2008/09/27] (<다음 아고라 100>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의 이유”에 대한 담쟁이의 댓글)
- ㄹ. 부러움 : 저도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레이님의 글안에 생생히 전해져오는 느낌들 때문에 더 보고 싶어졌어요 ㅠㅠ부럽습니다!! [2008/10/26 01:33] (<개인블로그 4> “환상적인 밤의 색채, 반 고흐 특별전”에 대한 달려라 뽀빠의 댓글)
- ㅂ. 분노 : 저두 소기업이지만, 이명박 강만수 이 인간들땀에 환율 엉망진창으로 손해막심. 거기애다 경제안정을 되찾소 있다는 헛소리 땀박뉴스 들으면 혈압으로 뿔뿔잡고 쓰러집니다. 씩을 인간들..앞으로 납품대금 회수가 얼마나 찼습나중인지 책상에 앉아서 지네들이 뭘 알겠어. 에이-이념의 나라... [2008.09/22](<다음 아고라 81> “국내외 금융상황이 안정되고 있다”에 대한 YJ Kim의 댓글)
- ㅅ. 비난 : 제발 하는말인데...무슨 프로젝트니 무슨 계획이니 이런거 세우지좀 하지 마라... 당신이 한 프로젝트니 뭐니 전부다 국민혼란만 초래하고 성공한적이 있었나? 제발 참아달라.....[2008/08/15](<네이버뉴스 145> “靑, 내달중 ‘100대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gnspass의 댓글)
- ㅇ. 비아냥 : 한마디로 고령연방제하자 요거냐? 그렇게하면 김정일이 너를 공신으로 책봉한 다더냐? [2008/09/28 08:37](<네이버 뉴스 194> “北신문 ‘힘은 미국 독점물 못돼’”에 대한 kjhgood11의 댓글)
- ㅈ. 염려 : ku0987님아.! 제가 볼땐 님 사상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민주당이라는 당이라도 있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더군요... 님은 촛불집회 안나가보셨죠? 저도 지방이라 나가보지는 못했지만,,,피가 끓어오르더군요..! 잘먹고 잘사는 2%를 위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신가요?? 민주당이 그러고자 저러는줄 아세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99%를 위해서랍니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이해갈 말한 말로 논쟁을 좀 해요!! 말하는거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2008/08/21 21:10](<네이버뉴스 153 “민주사회단체, 민주당에 ‘쓴소리’”에 대한

대한 htjok의 댓글)

- ㄷ. 용서 : 언니가 널 어떻게 죽이니~~알랍~♥ [2008/10/23 15:12] (<개인블로그 9>“가을..인사동 밤거리를 걸었습니다”에 대한 명이의 댓글)
- ㄹ. 축하 : 명이님 투데이 2000넘겼어요~저는 포토베스트에야 올라야 나오는 수치!ㅋㅋ 압튼 추카하고욤~아흥~ [2008/10/22 21:35](<개인블로그 10>“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은 오리불고기 간단 응용 요리 세가지^^만들어보자!”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댓글)
- ㅅ. 칭찬 : 저도 언능 올려야 하는데 도참 블로그 바꾼다고 정신이 없네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진 참말로 이쁘게 잘 찍습니다. 사진 작가 하셔도 될것 같아요.^^ [2008/10/22 20:49](<개인블로그 10>“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은 오리불고기 간단 응용 요리 세가지^^만들어보자!”에 대한 mepay의 댓글)
- ㅇ. 환영 : ㅎㅎㅎ 유쾌! [08/09/17](<다음아고라 63> “전교조는 가입현황 공개...왜 반대합니까?”에 대한 beloved의 댓글)
- ㅎ. 후회 : 잘못왔네요...[2008/10/22 23:00](<개인블로그 10>“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은 오리불고기 간단 응용 요리 세가지^^만들어보자!”에 대한 ggacsital의 댓글)

둘째, 진술은 대답, 비판, 설명, 추가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대답 : 월 140-150만원 정도 들어가면 5년 1억 나오겠는데요. [2008/09/24](<다음아고라 86> “서민입니다. 집 안삽니다”에 대한 정강국의 댓글)
- ㄴ. 비판 : 한자의 사용은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자의 남용은 우리말을 딱딱하고 건조하게 만들었고 법조, 행정기관에서는 무슨 뜻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해괴한 말들을 사용해 국민들이 불편함과 괴리감을 느끼게 만든다. 자기 언어에 자부심을 갖는 민족들은 우리나라일본처럼 자기네 말에 다른 나라말을 섞어 쓰지 않는다. 잃어버린 순수한 우리말을 되찾는 것이 민족의 정신, 자부심을 되찾는 거라면 이제는 중화문화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우리 말과 글을 되찾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본다.[2008/09/22 13:36](<야후 네티즌 한표 115> “초등학교 한자 교육 실시..사교육 조장 논란“에 대한 henly의 댓글)
- ㄷ. 설명 : 음식 시켜먹구 남은 반찬, 국은 모두 한그릇에 모아서 보냅니다..거기에 그릇을 싼랩도 넣구 젓가락 봉투로 넣어주고..재활용 못하고 생선류를 꼭 김치에 넣어 주죠 ㅋㅋㅋ[08/09/02](<다음아고라 24>“음식제탕하는 사람들..안심할만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의 댓글)
- ㄹ. 추가 정보 제공 : 민박집에서 하루 묵는데 6만원 ㅎㅎㅎ... [2008/09/13 00:22] (<네이버tm 176> “송편 올릴 형편도...” 에 대한 kimkh990의 댓글)

셋째, 지시는 권유, 요청, 의문, 충고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권유 : 아, 정독도서관 앞에 짬뽕라면이 맛있나용?? 저는..성균관대 앞에 와플하우스가 잠깐씩 그리워지고는 합니다...헤헷~ 저도 밤거리는 오랜만에 갔는데, 정말.. 깔려죽을뻔했어요.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갔다가 숨넘어가겠따라고요..ㅋ 근데 뭐든 애정을 가지고 보면 좀 다르다잖아요. 자꾸 보다보니 즐거운 밤거리였어요. 씨엘님도 한번 가보세요 헤헷~ [2008/10/23 14“25] (<개인블로그 9>“인사동 밤거리를 걸었습니다”에 대신 명이의 댓글)
- ㄴ. 요청 : 국내 제조 매매 금지와 더불어 수입도 하지 마시길... 그러면 담배 끊을 수 있겠네...쓸데없이 세금만 올리면 안되요? [2008/09/12 16:52](<야후 네티즌한표 111>“‘과격’ 담배금지법 18대 재추진”에 대한 warcleaner의 댓글)
- ㄷ. 의문 : 근거는요? 미국에서 동물도 위험해서 먹이지 말라고 금지시킨 쇠고기도 들어오는 마당에... ㅋ 그것도 안전한가요? 미국동물보다 못한 한국인인건가?[2008/09/29] (<다음 아고라 105> “멜라민과동-침묵하는 촛불, 유모차부대들!”에 대한 행복의 댓글)
- ㄹ. 충고 : 정신들차리시오들... 현대 중국 국민 감정상으로 볼때,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심각하오.[2008/08/05](<네이버뉴스 127> “日記자, 中서 취재 도중 구타당해”에 대한 amekis의 댓글)

넷째, 언약은 제안을 담은 댓글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가는데 문제가 아니고 가서 해적들과 싸워도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면 든든하게 무장해서 특전사, 유디티, 특공대, 해병대, 차출하고 해군구축함을 보내서 전번에 우리 선원과 배에 손실입힌넌들과 그 일당을 깨끗하게 소탕해서 대한민국을 건들면 이렇게 응분에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다...[2008/09/25 01:37](<야후 네티즌한표 121> “해적 피랍에 구축함 파견”에 대한 somangy7의 댓글)

다섯째, 기타로는 댓글의 내용이 없거나 게시물과 무관한 홍보성 댓글(성인 광고), 게시물의 내용에서 일탈된 것 등이 있다.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수행 경향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3] 들머리 사이트의 수행성

수행성	개수	비율(%)	수행내용	개수
언약	20	1.9	제안	20
지시	241	22.8	권유	6
			요청	52
			의문	153
			충고	30
진술	268	25.3	대답	30
			비판	95
			설명	50
			정보	5
			주장	88
표출	486	45.9	감사	17
			격려	15
			기쁨	14
			동의	90
			부러움	6
			분노	51
			비난	194
			비아냥거림	31
			염려	24
			용서	1
			위협	14
			축하	3
			칭찬	18
			환영	6
			후회	2
기타	44	4.2	없음	4
			일탈	40
계	1,059	100.0	1,059	

들머리 사이트의 수행성에서 표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댓글에 사용자의 표현 욕구가 반영됨을 의미한다. 이 때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자세가 어떠한가가 댓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비난하는 댓글’이나 ‘비아냥거리

는 댓글'이 많다는 점은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댓글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과 댓글의 수행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표출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경제(53.3%), 과학(아이티, 정보 포함, 71.4%), 생활(56.0%), 스포츠/연예(52.2%)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교육, 국제, 법률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표출 기능이 약화된 분야에서는 진술 기능이나 지시 기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들머리 사이트 게시물을 14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각 분야별 댓글의 수행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들머리 사이트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분야	수행성	개수	분야별 수행성 비율(%)
경제	기타	3	2.2
	언약	2	1.5
	지시	34	25.2
	진술	24	17.9
	표출	72	53.3
	계	135	100.0
과학	지시	2	14.3
	진술	2	14.3
	표출	10	71.5
	계	14	100.0
교육	기타	1	1.5
	지시	12	17.7
	진술	24	35.3
	표출	31	45.6
	계	68	100.0
국제	기타	6	9.8
	언약	4	5.9
	지시	18	29.5
	진술	6	9.8
	표출	27	44.3
	계	61	100.0
문화	기타	2	1.7
	언약	2	1.7
	지시	24	20.0
	진술	46	38.3
	표출	46	38.3
	계	120	100.0

법률	기타	3	4.4
	언약	1	1.5
	지시	18	26.5
	진술	20	29.4
	표출	26	38.2
	계	68	100.0
사회	기타	9	4.1
	언약	5	2.3
	지시	50	22.8
	진술	67	30.6
	표출	88	40.2
	계	219	100.0
생활	기타	8	8.8
	언약	2	2.2
	지시	12	13.2
	진술	18	19.8
	표출	51	56.0
	계	91	100.0
스포츠/연예	기타	3	3.3
	지시	24	26.7
	진술	16	16.5
	표출	47	52.2
	계	90	100.0
언론	기타	3	20.0
	지시	4	26.7
	진술	1	6.7
	표출	7	46.7
	계	15	100.0
정치	기타	6	3.6
	언약	4	2.4
	지시	39	23.2
	진술	42	25.0
	표출	77	45.8
	계	168	100.0
종교	지시	4	40.0
	진술	2	20.0
	표출	4	40.0
	계	10	100.0
총계		1,059	

3.1.2.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의 수행성은 표출(56.9%), 진술(35.2%), 지시(2.9%), 기타(5.5%), 언약(2.5%)의 순서로 나타났다.

첫째, 표출 행위는 비난(530개), 비방(104개), 불만(66개) 등과 같이 게시물이나 기사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들이 많았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비난 : 한달새 1억‘증발’ 같은 소리....몇 년전 광풍때 자다 일어나면 수천, 수억이 억억거리며 오를때 서민들 마음은 어떠했을거 같으냐? [2008.08.01 11:50:38] (<조선일보1> “잠실주공5단지 한달 새 1억 ‘증발’” 게시물의 황선태(hst9660)의 댓글)
- ㄴ. 비방 : 노통이 기업에 적대적이라던 후배녀석 양망했는지 궁금하군(2) 푸른이리(푸른이리) 2008.09.17 21:53 조회 516 찬성 25 반대 0 (<오마이뉴스1> 돈줄 마른 중소기업 "우린 거의 망했다" 줄도산 우려에도 정부·여당 "국내기업 감당할 수 있다" 게시물에 대한 선대식 (sundaisik)의 댓글)
- ㄷ. 불만 : 기사내용이 뭔지 관심도 없다만 찌라시 중앙의 대통령 지지율 추이도가 기묘하구만, 마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것처럼 그려 놓았어, 8월 올림픽 특수로 잠시 30%를 넘었고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지지율이 화~악 떨어졌는데, 마치 상승하는것처럼,,, 호호호 찌라시 중앙 !! (<중앙일보4> “ 39 (분권형) : 34 (내각제) : 25 (대통령제) 개헌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 구조” 게시물에 대한 이진환 (tataki12)의 댓글)

반대로 동의(55개), 격려(27개), 감탄(12개) 등의 긍정적 감정과 정서를 표출한 댓글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동의 :참 좋은 내용입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땀과 눈물과 인내를 감내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과정을 너무 냉대하고 있네요. 복잡하게 온갖 그물을 쳐 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남의 흠 잡는데 너무 열중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08.01 21:25:57] (<조선일보2> “'우상' 파괴하는 한국,너무나 쉽게 지탄 대상 삼아, 해당분야 위축되는 결과 초래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 교수·경제학” 게시물에 대한 정종기(dasgolf)의 댓글)
- ㄴ. 격려 : ‘비메달’에게 따뜻한 격려를...(0) info(info) 2008.08.24 00:23 조회 50 찬성 8 반대 1 금메달은 독불장군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비메달 동료들의 받침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비메달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오마이뉴스4> “‘퍼펙트 금메달’ 한국 야구,

신화를 쓰다” 게시물에 대한 info(info)의 댓글)

ㄷ. 감탄 : 노래처음듣고완전반했음돼! 드라마와조성모님씨의목소리너무나잘어울려요!>口< 조성모씨정말잘선택하셨어요! ㅋㅋ 드라마꼬옥번창할꺼같아요♡(08.10.05 19:49) (<SBS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 11>, “[OST] 조성모 - 바람의 화원 주제곡” 게시물에 대한 유혜연(jella8814)의 댓글)

인터넷 언론 분과의 표출 기능은 게시물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뉴스와 토론 관련 기사에서는 비난, 비방, 불만 등의 표출이 특히 심하며, 스포츠나 드라마 등과 관련된 게시물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단편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진술 행위에서는 기사물이나 기사 내용을 비판하는 것(344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것(161개), 특정 기사나 인물에 대한 반박이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7개),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5개)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비판 : 지금 주택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빚 내서 주택 구입한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텐데? [2008.08.03 18:36:19] (<조선일보2> “부동산 '압구정 불패 신화'도 흔들” 게시물에 대한 김동진(waveforever)의 댓글)
- ㄴ. 주장 : 98년에 2억초반이었는데 10년지난 현재 15억! 부동산세가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소리다 우리집 포함해서 전부 반값이 되어야 정상이다 [2008.08.03 14:27:40] (<조선일보2> “부동산 '압구정 불패 신화'도 흔들” 게시물에 대한 조대근(kruru)의 댓글)
- ㄷ. 반대(반박) : 2008.07.25 18:38 절대 반대 (<MBC시사토론8> “영리병원, 의료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게시물에 대한 김명섭의 댓글)
- ㄹ. 대답 : 전 그사람들도 똑같이 해야한다에 찬성하겠습니다네 (<SBS시청자 의견20> “티즌들의 가상 판결해봅시다 ㅋㅋ /주인여자: 사형 딸 : 유기징역1000년 주인아저씨 :유기징역150년(방관죄) 이 정도는 해야 이런일이 다신 안생기지 않을까요?” 기사물에 대한 정유미(schneequeen)의 댓글)

셋째, 지시 행위와 관련된 댓글은 요청(22개), 의문(11개), 추천(4개), 광고(4개)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표출과 진술 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요청 : 2008.10.05 14:45 중국의 저질식품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식약청에서 위해정보를 수집하라고 위해정보과를 만들어놨는데 그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식품공업협회에 맡겼다라는게 말이되냐고, 식품을 생산하고 수입해야 하는 식품공업협회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거라고 말씀하신 백원우의원님의 말씀이 뇌리에 남는다 관계처들

은 좀더 국민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신뢰를 먼저 주었으면 좋겠다 (<MBC 백분 토론1> “확산되는 멜라민 파문, 대책은?” 게시물에 대한 마숙경의 댓글)

ㄴ. 의문 : 오늘 출연 패널은 왜 아직 미정이죠?~ (<MBC 백분 토론11> “춣불, 꺼야하나? 켜야하나? ”에 대한 김형규의 댓글)

ㄷ. 충고 : seig123님,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글 잘 읽었어요. (<SBS 뉴스, 이슈& 토론 8> “삼성 경영 쇄신안 발표” 게시물에 대한 777luck211의 댓글)

ㄹ. 광고 : 아이비 리그 강사진의 온라인 SAT 학습 사이트 www.study-along.com [2008.09.07 12:26:03] (<조선일보6> “[Why] 한국 학원들, 왜 추수감사절에 미국 몰려갈까” 게시물에 대한 배진성(solitone)의 댓글) [이 댓글은 추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달아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넷째, 언약 행위의 대부분은 제안(36개)을 담고 있다. 제안의 내용은 주장을 포함한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언약 행위 자체가 독자에 대한 약속만을 포함하지는 않는 점이 특징이다.

ㄱ. 부시의 독도 지명표기 환원에 대한 내가 발표한 음모론이 맞아떨어진 것 한번 볼래요? [2008.08.01 16:29:55] (<조선일보7> “더 타임스가 뽑은 `10대 음모론” 게시물에 대한 김성규(namsanodu)의 댓글)

ㄴ. 옆에서 보니 택도 안되는 사이즈의 양복을 소매만 줄이면 되겠다고 원하는 양복매장 직원들 윤리교육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2008.08.06 13:17:02] (<조선일보 9> “평퍼짐한 아저씨 양복은 그만! 꼭 맞아야 뽀시난다” 게시물에 대한 신철규(charlie813)의 댓글)

기타의 항목에서는 게시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댓글(특히 성인 광고)이 달리거나,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게시물의 논점을 확대하여 내용이 일탈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5]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

수행성	개수(개)	비율(%)	수행내용	계(개)
언약	37	2.5	위협	1
			제안	36
지시	43	2.9	광고	4
			요청	22
			의문	11
			추천	2
			충고	4
진술	527	35.2	대답	5
			반대	7
			비판	344
			정보	10
			주장	161
표출	846	56.9	감사	3
			감탄	12
			격려	27
			기쁨	2
			답답함	11
			동의	55
			동정	1
			분노	1
			불만	66
			불안	1
			비난	530
			비방	104
			소망	6
			슬픔	4
			실망	1
			안타까움	11
			염려	1
			저주	2
			존경	1
			축복	2
			축하	1
			칭찬	6
기타	38	2.5	무관	5
			일탈	14
			중복	19
계	1,493	100.0	1,493	

댓글의 수행성은 게시물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과학, 국제, 스포츠 분야의 댓글은 표출 기능이 우월하며, 교육, 문화, 법률 등은 진술 기능이 우월하다. 과학 분야에서 표출 기능이 우월하게 측정된 까닭은 IT기술이나 정보 기술과 관련된 게시물은 사회성이 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도 표출적인 까닭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성이 강한 게시물은 진술 기능을 갖는 댓글이 많이 달리며,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와 같은 시사성 있는 게시물의 댓글은 댓글 사용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인터넷 언론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분야	수행	개수(개)	분야별 비율(%)
경제	기타	6	2.1
	언약	8	2.8
	지시	9	3.1
	진술	115	40.1
	표출	149	51.9
	계	287	100.0
과학	기타	2	6.3
	지시	1	3.1
	진술	11	34.4
	표출	18	56.3
	계	32	100.0
교육	기타	2	2.8
	언약	4	5.6
	지시	1	1.4
	진술	37	52.1
	표출	27	38.0
	계	71	100.0
국제	기타	5	3.6
	언약	5	3.6
	지시	1	0.7
	진술	60	42.6
	표출	70	49.7
	계	141	100.0
문화	기타	2	5.6
	언약	1	2.8
	진술	18	50.0
	표출	15	41.7
	계	36	100.0
법률	진술	7	87.5

	표출	1	12.5
	계	8	100.0
사회	기타	8	4.3
	언약	6	3.2
	지시	10	5.4
	진술	74	39.8
	표출	88	47.3
	계	186	100.0
스 포 츠 / 연예	기타	1	1.0
	지시	4	4.0
	진술	32	32.0
	표출	63	63.0
	계	100	100.0
언론	언약	2	1.1
	지시	1	0.7
	진술	46	31.1
	표출	99	66.9
	계	148	100.0
정치	기타	12	2.8
	언약	8	1.9
	지시	16	3.7
	진술	110	25.5
	표출	286	66.2
	계	432	100.0
종교	언약	3	5.8
	진술	16	30.8
	표출	33	63.5
	계	52	100.0
총계		1,493	

3.1.3. 공공 기관

공공 기관의 수행성은 진술(78.3%), 지시(10.8%), 표출(10.1%), 언약(0.5%),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진술 기능을 담당하는 댓글은 비판(275개)과 의견 제시(311개)가 주를 이룬다.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있다.

- ㄱ. 비판 : 위의 설문조사의 발상부터가 의심스럽군요...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는 철저히 망각을 하였군요..국내에 초고속망에 요금에 관하여 논쟁을한다면 산간 벽지의 전화요금도 논쟁이 되어 하지않을까요? 정보화를 이룬다면서 산간벽지의 정보화를 하나같이 국민에게 떠넘긴다면 구축에 따른 발생비용을 공개하고 그 구축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 하였으니 그 금액에 대하여 당연히 권리가 발생되어야겠지요? 그러면 그 통신사의 주식이라도 줄건가요?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혀 모르는군요..기간시설의 투자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데 일하라고 준 세금이지 판생각하라고 준 세금일까요??제가 알기로는 정통부는 귀찮은지 오래라고 들었습니다.이런 설문을 한다고 들을까 모르겠지만 정부가 기간시설투자도 못하겠다는데 그럼 세금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거겠지요? 농민에게서 받은 세금은 탄일하라고준게 아니죠..그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쓰라고 준 세금입니다. 하긴 발상부터 저러니 뭘 바라겠나요...다시말하는데 세금은 날려먹으라고 준게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라고 준겁니다.(2001-11-12 06:38) (<행정안전부1> 도서, 산간벽지의 초고속망 구축에 대한 wow의 댓글)
- ㄴ. 의견 제시 :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봄:우리나라로 오는 사람이니까. (2008-03-07 17:40) (<법무부15>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khn1951의 댓글)

둘째, 지시 기능은 요청(70개), 의문(11개)으로 나타났다. 요청은 공공 기관의 해명이나 답변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다. 의문을 나타내는 텍스트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청과 의문의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요청 : 적성시험(LEET)접수시기에 맞춰 로스쿨 실무수습 2년의 발언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주변에 로스쿨준비를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조한 접수율에 대한 원인 몇가지를 기술하면, 1.실무수습2년이라는 한 개인의 발언(일과만파) 2. 비싼 등록금(일본의3배) 3. 갈팡질팡하는 과도기의 체제 4. 사시와 공존하는 로스쿨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저는 지원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주위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법대교수님들도 인정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거면 그냥 사시를 계속존속시키는 것이 어떠할까요.....백년...천년....만년(2008-06-25 01:44) (<법무부 19>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전자공청회에 대한 sky123의 댓글)
- ㄴ. 의문 : 상기 내용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유관학과와 범위는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2호>에 의하되, 정보보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보호학과,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를 포함하였음(제6조)1.국내 정보보호 산업분야 중 보안컨설팅분야의 특성상 경영학과 역시 관련 학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산업공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면 경영학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고시의 제6조(정보통신유관학과) 부문에 관련학과로 경영학과가 포함되어 반영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만약 경영학과가 포함되어 상기고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석사까지는 산업공학과를 나왔는데, 박사과정은 경영학으로 나왔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은 산업공학과 석사까지가 되

는 것 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7-27 08:39) <행정안전부2> 정보보호전문 업체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에 대한 박성진 댓글)

셋째, 표출 기능은 동의(64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비난(12개)의 비중이 낮다.

ㄱ. 동의 : 찬성....일본을 망국으로 몰아넣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겁니다.. (2002-07-18 12:39) (<행정안전부3>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 게시물에 대한 ‘마저마저’의 댓글 : 이 댓글에서 동의 표현은 게시물과 연관된 다른 댓글의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임)

ㄴ. 비난 : 그놈의 공권력은 퍼내도 퍼내도 도로 차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인가요?특하면 공권력 투입!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쫓쫓쫓....지식기반국가건설이라고 구호만 외치지말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어찌구 하지도 말고 제발 힘으로만 해결하려하지 말고 머리좀 써서 다른 현명한 방법을 다함께 강구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구호와 정책이 따로 놀구있어~~~에이~~~ 정말 맘에 안들어~~~ (2002-06-15 14:48) (<행정안전부3> 온라인게임 사전 심의 게시물에 대한 ‘공권력 반대’의 댓글)

넷째, 언약 행위는 특정 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공 기관의 게시물이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제안 댓글은 많지 않았다. 이는 정책 제안의 경우 짧은 댓글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 기관 게시물에 달린 댓글의 수행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7] 공공 기관의 수행성

수행성	개수	비율	텍스트	요약
언약	4	0.5	제안	4
지시	81	10.8	요청	70
			의문	11
진술	589	78.3	비판	275
			의견	311
			주장	3
표출	76	10.1	동의	64
			비난	12
기타	2	0.3	일탈	2
계	752	100.0	752	

공공 기관 게시물은 분야와 상관없이 진술 기능이 우월하다. 그러나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교육(91.3%), 법률(79.5%) 분야의 댓글은 진술 기능을 갖는 ‘비판’, ‘의견’, ‘주장’의 댓글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분야별 댓글의 수행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공공 기관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분야	수행성	개수(개)	수행성 비율(%)
과학/IT	언약	4	2.1
	지시	38	19.6
	진술	126	65.0
	표출	26	13.4
	계	194	100.0
교육	기타	1	0.4
	지시	3	1.6
	진술	219	91.3
	표출	17	7.1
	계	240	100.0
문화	진술	10	100.0
	계	10	100.0
법률	지시	19	12.2
	진술	124	79.5
	표출	13	8.3
	계	156	100.0
사회	기타	1	1.5
	지시	8	11.8
	진술	53	77.9
	표출	6	8.8
	계	68	100.0
스포츠/연예	진술	2	2.8
	계	2	2.8
정치	지시	11	15.5
	진술	49	69.0
	표출	11	15.5
	계	71	100.0
청소년	지시	2	20.0
	진술	6	60.0
	표출	2	20.0
	계	10	100.0
총계		752	

3.1.4. 사적 영역

사적 영역은 게시물의 내용과 분야가 다양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댓글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다. 이를 수행성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출(42.7%), 진술(33.9%), 지시(10.8%), 언약(9.0%), 기타(3.7%)의 순서로 나타난다.

첫째,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댓글은 동의(134개), 안타까움(41개), 격려(94개), 감탄(42개), 감사(22개), 부러움(22개), 만족(35개) 등과 같이 긍정적 정서와 가까운 댓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사적 영역 조사 대상이 동호회와 카페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ㄱ. 동의 : 저도 예전에 10명안팎의 회사 면접본적있는데.. 사장,이사,본부장ㅋㅋ 전직원의 임직원화??ㅋㅋ 08.08.21 16:27 (<다음 카페 취업뽀개기2> “첫출근과 동시에 나와버렸어요” 게시물의 야송 아이디 댓글)
- ㄴ. 안타까움 : 어머니 고생많으셨네요..... 08.08.25 23:26 (<다음 카페 취업뽀개기5> 첫출근과 동시 퇴사;;;;;;;;;;;;; 게시물의 쿠우ㄴ 아이디 댓글)
- ㄷ. 격려 : 에효... 인연이 아닌 곳에서 일찍 나오신거 다행인거예요. 님을 기다리는 곳이 꼭 있을 테니 맘 편히 먹고 기운내세요~ 08.08.25 23:30 첫출근과 동시 퇴사;;;;;;;;;;;;; <다음 카페 취업뽀개기5> 첫출근과 동시 퇴사;;;;;;;;;;;;; 게시물의 Erica P 아이디 댓글), 시험 안 끝났어요? ㅇㅅㅇ 끝난줄 알았는데 ㅠㅠ 아파서 시험못보면 그건 공평한게 아니잖아요 ~_~ 얼른 나아서 공부도 시험도 운동도 모두 잘 해내길..! ^-^ (<다음 카페 특사모 2> “힘들어요” 게시물의 여우별 아이디 댓글)
- ㄹ. 감탄 : 혈..대박이다....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08.09.29 15:10 (<다음 카페 동방신기 4> “스케줄 추가됐어요” 게시물의 이려고있네 아이디 댓글)
- ㄹ. 감사 :이거몰랐는데ㅜㅜ 08.09.27 14:23 / ㅜㅜㅜㅜㅜ 08.09.27 14:25 /ㅜㅜㅜㅜㅜ 08.09.27 14:27 (<다음 카페 동방신기 10> “혹시모르는분들을위한CD리핑하는방법” 게시물의 ‘유수가짱’, ‘애들먹는중’, ‘엠비씨꽃다’ 등의 아이디 댓글)
- ㅂ. 부러움 : 완전 좋겠당~~~울엄마도 가끔 그소리 하던데,, 근데 돈이,, (<다음 카페 특사모2> “캐나다 가게 생겼네요ㅠㅜ” 게시물의 비비안 아이디 댓글)
- ㅅ. 만족 : 항상 가족같은 특사모가 되겠습니다 테마리님 멋져요 ♥ 팬찮은 생각인걸요 ^^ 추천하고 갈게요~ (<다음 카페 특사모 4> “채팅방에서 신세한탄 하시는분들 동의하에 강제추방 합니다?” 게시물의 꼬마별 아이디 댓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을 맺는 댓글에는 비난(117개), 불만(34개), 반감(4개) 등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비난 : 그글이 비난글인가요 ..한치앞도 못보는 빠꼼님같은사람때문에 박사모가 골병들며 ..택같은 이중인격자때문에 와해가 되는겁니다 ..내가 다시 그글을 올려볼까요 분란성인지 ..진성 박사모가 될려면 애정어린 충고도 쓰디쓴약도 달게 삼켜야됩니다 ..그리구 글이란 그사람의 마음의양식인데 당신이란사람 아주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있네요 ...함부로 말하지마시길바랍니다 12:13 (<박사모 1>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에 대한 청휘(淸輝) 아이디의 댓글)
- ㄴ. 안타까움 : 으....@_@ 그런 슬픈사연이 ㅠ.ㅠ 12시까지 쫄쫄 굶는대구요? 명절날..? ㅇㅈㅇ(<다음 카페 특사모 6> “추석! ^^ 잘들 보내셨어요?” 게시물의 꼬마별 아이디 댓글)
- ㄷ. 불만 : ㅈㅈㅈㅈ...진짜이런 게시물 뜨기 전에 할수는 없는건지.. 08.09.27 22:41(<다음 카페 동방신기 9> “카아들정말.....천표나나요!!!!!!!!!!!!!! ” 게시물의 준수야사랑 아이디 댓글)
- ㄹ. 반감 : 갑자기 왜이래 무섭게.....sm 08.09.29 19:58 (<다음 카페 동방신기 3> “여백의 美따워...” 게시물의 수리제제 아이디 댓글)

이와 같은 감정 및 정서 표출의 댓글은 다양한 표현 방식이 동원된다. 여러 가지 기호를 섞어 쓰거나 표정 문자를 만들어 쓰며, 때로는 문장을 파괴하기도 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한다.

둘째,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댓글은 대답(151개), 비판(124개), 정보(82개), 설명(5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은 사이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성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는 비판적인 댓글이 많으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단순 물음과 대답의 관계를 갖는 댓글이 많다. 다음의 예가 있다.

- ㄱ. 대답 : 난 공부만 했음! 은 낚시고.. 집에 혼자 남아서 폐인처럼 지냈네요 ㄷㄷㄷ;; 아 그리고 쪽지 확인 후 답장 주심 감사^^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었음 /저는 한인교회에서... 파티를했어욤...(<다음 카페 특사모 6> “추석! ^^ 잘들 보내셨어요?” 게시물의 상산고, 상산고딩 아이디 댓글)
- ㄴ. 비판 : 솔직히 말해 '빠질까봐'장르문학을 일부러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르문학의 가장 큰 특성은 어렵지 않게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것의 경계가 참 모호하지요. 순수문학이라 부르는 것중에서도 빠져드는 것이 적지 않으니까요(문학도라면 뭐든이겠죠?)근데 읽어보면 뭔가 다르긴 다른것 같아요. 2007-12-22 01:06:58 (<다음 카페 글틴1> “장르문학도 당연히 '문학'이라 생각합니다” 게시물의 도휘 아이디 댓글)
- ㄷ. 정보 제공 : news. naver. com/main /read.nhn? mode= LSD&mid= sec&sid1= 106&oid= 047&aid=0000028135 <- 이 곳을 보시면(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만) 소설가 김종광의 인터뷰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내용중 100만원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내용은 '아무리 돈과는 무관한 게 글쟁이의 삶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설가도 한 달에 100만원은 벌어야한다' 라는 말입니다. 한 달에 백만원입니다. 그 돈을

온전히 소설로 버는 것도 아니고 김종광분의 경우 2007-12-19 03:03:53(<다음 카페 글
틴1> “장르문학도 당연히 '문학'이라 생각합니다” 게시물의 犬Table 아이디 댓글)

르. 설명 : 그리고 작가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인세는 약 7~8% 정도입니다. (신인 작가의 경
우.) 만약 흥행이 보증 된 작가의 경우가 되어야만 10% 이상의 인세를 보장 받고 작품을
집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죠. 아무튼 진짜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신인 작가의 경우 약 3500~4000부의 작품을 찍어냅니다.(초판 인쇄, 1 권
당.) 장르 문학의 판매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이하. 대충 계산을 하면 1권당 약 240만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웬만한 셀러리맨 보다는 적은 액수 입니다. 2007-12-18 19:39:48
(<다음 카페 글틴1> “장르문학도 당연히 '문학'이라 생각합니다” 게시물의 adius☆ 아이디
댓글)

셋째, 지시 기능을 수행하는 댓글은 의문(69개), 권유(58개), 요청(26개) 등의 순서
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행은 청소년 팬클럽 카페에서 많이 쓰이는데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ㄱ. 의문(질문) :리...리핑이 뭔가요..? 08.09.27 15:12(<다음 카페 동방신기 10> “혹시
모르는분들을위한CD리핑하는방법” 게시물의 ‘완벽미남박유천’ 아이디 댓글)

ㄴ. 권유 : 아참.....! 진 잠이 하도 많아서 밤새는 연습(?) 해봤었는데.. 절대 그런거 하지 마
세요 ㅠ.ㅠ 그럼 저처럼 키가 안크고 성장판이 닫혀요.....@_@_@_@ (<다음 카페 특사
모 5> “몇시간자세여?????????? ” 게시물의 꼬마별 아이디 댓글)

ㄷ. 요청(요구) : 대체 그많은 카아들은 다 어디간건지.....제발 동방신기 날게해줍시
다.....ㅠㅈㅈㅈㅈㅈ 08.09.27 22:45 (<다음 카페 동방신기 9> “카아들정말.....천포나나
요!!!!!!!!!!!!!! ” 게시물의 준수야사랑 아이디 댓글), 제발요제발.....ㅠ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ㅠ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ㅈ 08.09.27 23:05 (<다음 카페 동방신기 9> “카아들정말.....
천포나나요!!!!!!!!!!!!!! ” 게시물의 웁?혜혜 아이디 댓글)

넷째, 언약 기능은 제안(140개)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댓글에서는 약속을 표현하
기도 한다. 표출, 진술, 지시 기능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댓글을 단 순서만을 숫자로 표현하거나(1111, 2222, 3333, 4444와 같은
표현), 앞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댓글(“승리의 카시오페아’라는 문구는 10개
이상 반복하는 경우), 게시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댓글을 다는 경우, 논점이 일탈되는
경우 등이 나타난다.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9]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

수행성	계(개)	비율(%)	텍스트	요약
언약	142	9.0	약속	2
			제안	140
지시	170	10.8	광고	5
			권유	58
			요청	26
			의문	69
			충고	12
진술	534	33.9	대답	151
			반박	20
			비판	124
			설명	53
			의견	1
			인용	6
			정보	82
			주장	97
표출	673	42.7	감사	22
			감탄	42
			격려	94
			기쁨	10
			답답함	6
			동의	134
			동조	8
			만족	35
			명령	1
			반감	4
			부러움	22
			분노	1
			불만	34
			불안	2
			비난	117
			비방	32
			비아냥	1
			사과	2
			소망	11

			슬픔	1
			아쉬움	5
			안타까움	41
			염려	6
			위협	1
			유머	7
			인사	6
			축하	7
			칭찬	21
기타	58	3.7	무관	11
			순서	11
			일탈	36
계	1577	100.0	1,577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은 게시물 분야 및 사이트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광고(80.0%), 국제(외교 포함, 48.3%), 사회(60.6%), 스포츠/연예(51.4%), 정치(50.0%) 분야는 표출성이 매우 높으며, 교육 분야는 언약(50.0%), 청소년 분야는 진술(5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교육 분야의 언약 비중과 청소년 분야의 진술 비중이 높은 까닭은 청소년 진학 사이트와 팬클럽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진학 사이트에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진학 문제에 대한 제안 성격의 댓글이 달리며, 팬클럽의 경우에는 연예인 인기투표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분야별 수행성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0] 사적 영역 게시물 분야와 댓글의 수행성

분야	수행성	개수	분야별 비율
경제	기타	6	5.2
	언약	18	10.8
	지시	19	11.5
	진술	53	45.7
	표출	70	42.2
	계	166	100.0
과학	진술	7	77.8
	표출	2	22.2
	계	9	100.0
광고	지시	8	20.0

	표출	32	80.0
	계	40	100.0
교육	언약	14	50.0
	지시	1	3.6
	진술	4	14.3
	표출	9	32.1
	계	28	100.0
국제	기타	4	12.9
	언약	1	3.2
	지시	1	3.3
	진술	10	32.3
	표출	15	48.4
	계	31	100.0
사회	기타	5	8.2
	언약	2	3.3
	지시	2	3.3
	진술	15	24.6
	표출	37	60.7
	계	61	100.0
생활	기타	12	3.6
	언약	91	27.4
	지시	34	10.2
	진술	81	24.4
	표출	114	34.3
	계	332	100.0
스포츠/연예	기타	10	4.1
	언약	4	1.6
	지시	28	11.4
	진술	77	31.4
	표출	126	51.4
	계	245	100.0
언론	기타	1	5.0
	진술	8	40.0
	표출	11	55.0
	계	20	100.0
정치	기타	14	4.2
	언약	11	3.3
	지시	22	6.7

	진술	118	35.8
	표출	165	50.0
	계	330	100.0
청소년	기타	6	1.9
	언약	1	0.3
	지시	55	17.5
	진술	161	51.1
	표출	92	29.2
	계	315	100.0
총계		1,577	

3.2. 댓글의 높임법 조사 결과

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높임법은 높임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상대 높임은 독자에 대한 댓글 사용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들머리 사이트나 인터넷 뉴스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댓글과 공공 기관, 또는 사적 영역의 댓글 사이에는 상대 높임의 등급을 달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여 댓글에 표현된 상대 높임의 등급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상대 높임의 등급(화계)은 격식체 4등급, 비격식체 2등급을 설정하고 있으나 댓글은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격식체의 ‘합니다’체(아주 높임), 비격식체의 ‘해요’체(높임), ‘해’체(안 높임)의 세 등급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섞임에서는 섞임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로만 표시하였다.

3.2.1. 들머리 사이트

들머리 사이트의 높임법은 ‘해’체의 안 높임, ‘해요’체의 예사 높임, ‘합니다’체의 아주 높임, 이들 등급이 섞여 쓰이는 경우 등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해체 : 가진것 개뿔도 없으면서..서민경제 어렵다어렵다 하면서..철저한 이기주의..도를넘는 허영심..있는척..집은없어도 차는있어야 한다는사고방식.고급외제차선호. 08.08.11 IP 211.247.***.210 (<다음 아고라 1> “비이클 문명의 순순환인가? `자전거 시대`의 도래를 보며.. ” 게시물의 두꼬비 아이디 댓글)
- ㄴ. 해요체 : 자전거 시대 ---> 전립선환자 많이 늘어나 병원은 돈 벌겠군요. 꼭 안장을 전립선보호 안장으로 하시길..... 08.08.11 IP 220.124.***.192 (<다음 아고라 1> “비이클

문명의 逆순환인가? `자전거 시대`의 도래를 보며.. ” 게시물의 무궁화 아이디 댓글)

ㄷ. 합니다체 : 아고라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토론 방의 성격상 맞지 않는 글인 걸 알면서도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1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지금 현재는 브라질 연방경찰서에 수감중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남자의 모든 진실을 밝히는 블로그입니다. 아고라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5백만 아고라인들에게 진실을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다음 아고라3> “이런 부도덕한 정연주를 당신은 아직도 옹호하는가?” 게시물의 아버지이름으로 아이디 댓글)

ㄹ. 섞임 : 애들급식비 내지말고 도시락 싸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되겠습니까?...내 자식들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자라나는 아이들은, 흡수력이 뛰어나서 더 위험합니다...어른들 보다... 미국소고기 안전하다고 홍보시키라는 지침이 공문화되서 각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배운 선생님들도 사실을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정부방책을 어기겠습니까.....부모들이 나서주길 기다릴겁니다... 08.08.11 IP 121.153.***.221(<다음 아고라 1> “비이클 문명의 逆순환인가? `자전거 시대`의 도래를 보며.. ” 게시물의 작은공간 아이디 댓글)

댓글에서는 종결 어미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생략형은 비격식체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댓글 텍스트가 격식보다는 비격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비격식의 높임은 문맥에 따라 결정하였다. 들머리 사이트의 높임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들머리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높임 등급		개수(개)	비율(%)
아주 높임(1)		186	17.6
예사 높임(2)		271	25.6
안 높임(3)		538	50.8
섞임	1+ 2	11	6.0
	1+ 2+ 3	1	
	1+ 3	21	
	2+ 3	31	
계		1,059	100.0

들머리 사이트 높임법은 안 높임(50.8%), 예사 높임(25.6%), 아주 높임(17.6%)의 순서로 나타났다. 섞임은 6.0%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섞임에서는 ‘해요+ 해’가 섞이는 비중이 ‘해요+ 합니다’가 섞이는 경우보다 우세하다. 이는 ‘해요’를 쓰는 댓글 사용자

의 높임 의식이 ‘해’와 중화되어 갈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2.2.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 게시물은 대체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댓글 표현에서도 높임 표현이 비교적 단조롭다. 해체, 해요체, 합니다체, 섞임 표현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해체 : 아직도 거품이 많은건 사실, 언젠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개입보다는 관망을... [2008.08.01 15:42:54] (<조선일보1> “잠실주공5단지 한달 새 1억 ‘증발’ ” 게시물의 여성욱(yeosw36) 아이디 댓글)
- ㄴ. 해요체 : 조선일보여..제발 이런 기사좀 올리지마세요.. 최근 한달동안 이 집값 기사가 한 10번 이상 올라온 거 같은데..도대체 저의가 뭇인지?? 집값 상승할 모멘텀을 나라에서 마련해줘야한다는건지? 집값 안떨어지게 더 들고 있으란애긴지? [2008.08.01 11:55:33] (<조선일보1> “잠실주공5단지 한달 새 1억 ‘증발’ ” 게시물의 김정수(bbol94) 아이디 댓글)
- ㄷ. 합니다체 :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3년반만 사역을 하셨고 더 오래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더라도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고로 민중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적당한만큼만 활동하고 여론이 바뀌기 전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론은 바뀝니다. [2008.08.01 15:34:32] (<조선일보2> “‘우상’ 파괴하는 한국,너무나 쉽게 지탄 대상 삼아, 해당분야 위축되는 결과 초래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학 교수·경제학” 게시물의 이옥순(openbolt) 아이디 댓글)
- ㄹ. 섞임 : 폭등만하다가 증발이 일어나서 신기해서 그렇니다 계속 증발할까요 [2008.08.01 13:05:08] (<조선일보1> “잠실주공5단지 한달 새 1억 ‘증발’ ” 게시물의 강현덕(namuka) 아이디 댓글)

‘해체’는 게시물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나타내거나 감정을 표출할 때 자주 쓰인다. 해요체는 요청하는 글에서 비교적 자주 쓰인다. ‘합니다체’는 댓글 독자에게 사용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경향이 높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합니다체’와 ‘해요체’, ‘해요체’와 ‘해체’가 섞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2] 인터넷 언론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높임 등급		개수(개)	비율(%)
아주 높임(1)		237	15.9
예사 높임(2)		338	22.6
안 높임(3)		875	57.4
섞임	1+2	8	1.7
	1+2+3	1	
	1+3	10	
	2+3	6	
기타		18	1.2
계		1,493	100.0

인터넷 언론 댓글의 높임 표현에 나타나는 기타 항목은 중복 표현을 별도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댓글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반복하여 클릭함으로써 중복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3.2.3. 공공 기관

공공 기관 게시물은 대체로 해체를 사용한다. 이는 각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댓글 사용자는 아주 높임 표현의 댓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 기관 댓글의 높임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ㄱ. 해체 : 우리 나라가 국민수당 누리그물(INTERNET)초고속망 연결 인구수가 온 누리에서 일등인 것은 대단한 일이고 앞으로 국가 발전에 필수기반임에 틀림없다. 이곳 미국은 시골지역은 초고속망을 쓰고 싶어도 단위 면적당 인구가 너무 적어 수익성이 없어서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많다. 이런 면에서는 철저한 사업성을 따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지라고 하여도 그렇게 오지는 이제 없다. 전화국과 먼 곳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 방법은 위성 연결 등 여러가지이지만, 단위 지역당 가입할 수요를 조사하고, 위성도 좋고 다른 여러가지 방법 중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데, 이 오지 누리그물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의 형평성 문제로 오지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투자 비용이 지나치면 불공정한 것이라는 일부 불만이 있겠으나 오지에 사는 국민이 문화생활 등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앞에 나온 내용 중 오지의 전 국민을 다 연결한다는 가정 하에 비용 계산하고, 나서 다시 토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력선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민의 누리그물에 접근에 대한 평등 즉 정보사회에서의 평등을 우리가 빨리 이루는 것이 앞으로 국민 단합이나 발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나 누리그물에 연결 여부가 앞으로 국력이나 여러가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물론 이런 내용을 전제로 이런 공청회를 갖는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 국민의료보험 개보험과 같은 정보통신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본권의 하나가 될 것이다. To be connected or not to be connected: That is the question. 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지에 살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교육과 의료일 것이고, 그 다음이 문화, 정보통신일 것이다. 정보통신이 앞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공청회에서 나온 안 중에서는 2 번 이 나을 터이지만, 더 나은 방법도 찾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연구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2001-11-12 14:12) (<행정안전부 1> “도서, 산간벽지의 초고속망 구축” 게시물의 허선 아이디 댓글)

ㄴ. 해요체 : "[별표 2] 2.전문화 정도"의 특수분야 경력자는 고급인력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고 특수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력 중 어느쪽으로 인정이 되나요? (2001-08-02 17:31) (<행정안전부 2>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 게시물의 권성호 아이디 댓글)

ㄷ. 합니다체 : 제가 동감할 수있는 가장 접근된 의견입니다. 제안자의 균형 감각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다가 초고속망 기술의 발전에 따른 표준 내지 규격의 설정에 따른 문제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할 것 같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원리도 준수하는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초고속망 확충시의 주요 판단 사항 중의 두 가지를 언급하자면,1) 어디까지가 사회의 기간 시설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제 생각은 초고속 망 구축 및 인터넷 접속 기능 까지 입니다.2) 향후 발전될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금(즉 콘텐츠 서비스 등)은 그야말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것은 전하나 전기처럼 전국의 모든 수용가에 접근할 수 있는 회선(또는 전기선로)을 공급하는 것은 도로, 항만 등의 건설과 같은 기간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요금은 소비자의 사용 의지와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화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 현행의 초고속 망 사용 요금체제는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술의 진전에 따라 종량제 등의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초고속 가입자 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냐의 양적 목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국가적인 투자가 얼마나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01-11-18 16:30) (<행정안전부 1> “도서, 산간벽지의 초고속망 구축” 게시물의 정현호 아이디 댓글)

ㄹ. 섞임 : 저는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 사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 인터넷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정말 과관 입니다. 제가 있는 집은 3번국도에서 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주위에 공장과 연립주택이 있는 곳인데도 50가구가 안된다고 초고속통신망이 하나도 들어오지않는 오지 아닌오지 입니다. 오직 가능한것 은 위성 인터넷뿐... 작년에 글을 올렸더니 나중에 예산증액 할거라고 하던데요. 좁디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보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케이블이 문제면 요즘 무선랜 좋던데 동네에 그거 하나씩 설치해 주는 비용이 아마 은행 망한다고 붓는 돈보다 싸거예요. 아니면 전화 인터넷이나 핸드폰 인터넷같은것을 요금제도를 조금만 변경하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텐데 말이죠. 결론은 무조건 초고속망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원하는건 평등한 요금으로 적당한 인터넷회선을 요구하는것이니 만큼 기존에 설치된 장비라도 이용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 되어된다고 봅니다. 인터넷 PC얼마나 좋았어요. 그것처럼 인터넷 회선 사용방법 1:사각지대 거주자의 핸드폰 모뎀 이용시 정액제 실시, 2 : 몇명 이상 동시 가입시 무선랜 설비 동네에 하나씩 제공(스위치랑 무선랜 AP몇개만 있으면 됨) 3. 향후 IMT2000사업할 때 제발 정보화 불평등 없도록 요금제도를 잘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인터넷 안들어와서 집값 떨어지고 있는 사람 올림. (2001-11-12 10:44) (<행정안전부 1> “도서, 산간벽지의 초고속망 구축” 게시물의 안훈 아이디 댓글)

공공 기관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라는 점에서 댓글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높임 표현에서도 청자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섞임 표현의 경우는 ‘합니다체’를 기본으로 하고, 해요와 해를 섞어 쓰는 경향이 우세하다. 공공 기관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3] 공공 기관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높임 등급		개수(개)	비율(%)
아주 높임(1)		532	70.7
예사 높임(2)		50	6.7
안 높임(3)		131	17.4
섞임	1+2	24	5.2
	1+2+3	3	
	1+3	10	
	2+3	2	
계		752	100.0

공공 기관의 댓글은 아주 높임(70.7%), 안 높임(17.4%), 예사 높임(6.7%), 섞임(5.2%)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처럼 아주 높임이 많이 사용되는 까닭은 댓글 사용자가, 독자를 기관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4. 사적 영역

사적 영역은 동호회, 카페 등의 성격에 따라 높임 표현도 다양하다. ‘해체’, ‘해요체’, ‘합니다체’, 섞임뿐만 아니라 숫자, 기호, 문자, 영문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해체 : 이인간은 도대체 아침부터 뭘쳐먹었을길래 ..글내용도 파악을못하는지 ..말을 밥먹듯 바꾸고 아주 생쇼를 하는구먼 .. 12:55(<박사모 1>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의 청취 아이디 댓글)
- ㄴ. 해요체 : 무슨 글인지 못 봐서 말하긴 그렇지만... 회칙이나 재정 결산 이야기만 하면 박사모 분열세력으로 몰아가니... 원본 확인하고 싶군요! 청취님은 박사모 외엔 가입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타 카페 회원 아니신 순수 박사모인도 직언만 하면 다 변질된 불란세력인지? 궁금하군요. 빠꼼이님 말씀-"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행동은 두번째 이고 우선 양심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성 박사모인들께도 하고픈 말이군요. 13:50 (<박사모 1>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의 수목 아이디 댓글)
- ㄷ. 합니다체 : 한글의 내용파악을 제대로 하시길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인것처럼 몰아붙이지 말란뜻 입니다. 12:31(<박사모 1>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의 빠꼼이 아이디 댓글)
- ㄹ. 섞임 : 박사모 앞으로 좋지 않은 얘기 들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외부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있드라고요 제발 그런 얘기 들리지 않도록합시다. 18:02 (<박사모 1>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의 바다건너 아이디 댓글)
- ㅍ. 기타 : ★승리의 카시오페아★ 08.09.29 12:01/★승리의 카시오페아★ 08.09.29 3:19 / ★승리의 카시오페아★ 08.09.29 16:13 /★승리의 카시오페아★ 08.09.29 16:20 (<동방신기 6> “9월 29일 한터 주간차트 + 실시간 차트” 게시물의 동방미왕남자, 탄소같은너, 카레나, 준수위에유천 아이디의 같은 문구 댓글)

사적 영역의 높임법은 동호회와 카페의 성격에 따라 댓글 독자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 카페의 경우에는 높임 표현과 무관한 것들이 많다, 표현의 일부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등급으로 표시하고, 댓글 전체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사적 영역 높임 등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4] 사적 영역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상대 높임 등급

높임		개수(개)	비율(%)
아주 높임(1)		365	23.2
예사 높임(2)		618	39.2
안 높임(3)		511	32.4
섞임	1+ 2	42	3.2
	1+ 3	5	
	2+ 3	4	
기타(숫자, 기호, 영문)		32	2.0
총합계		1,577	100.0

사적 영역 높임 등급은 예사 높임(39.2%), 안 높임(32.4%), 아주 높임(23.2%), 섞임(3.2%), 기타(2.0%)의 순서로 나타난다. 예사 높임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동호회와 카페의 인간관계가 비격식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의 높임법 사용 방식은 통신 공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들머리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 분과에서는 안 높임을 사용하는 비중(50.8%, 57.4%)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사적 영역에서는 32.4%, 공공 기관 사이트에서는 17.4%로 나타난다. 이처럼 공공 기관에서 상대 높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까닭은 댓글의 독자가 기관 관련자라는 전제 아래 글을 쓰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적 영역에서도 독자를 존중하는 의식이 들머리 사이트의 뉴스나 인터넷 언론의 논쟁적인 댓글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3.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비방성은 특별한 이유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댓글에 비방하는 내용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비방적인 댓글은 게시물이나 게시물 속의 인물, 기사 내용, 게시물 작성자, 댓글 작성자, 또는 불특정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비방의 대상이 지나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비방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댓글의 비방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 요인으로서는 수행성, 사이트의 특성, 실명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분과별 비방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1. 들머리 사이트

들머리 사이트에서의 비방성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댓글 사용자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댓글의 수행성을 기준으로 할 때, 비방성은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댓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ㄱ. 게시물 제목 : [퍼뜨리자] 오늘 핸드볼 못 이긴 이유 [538](다음2-아고라-스포츠)
- ㄴ. 게시물 내용 : 오늘 핸드볼 못 이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원 한다는 대통령이 거꾸로 된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 그리고, 화려한 언론조작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어제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을 기회로 KBS를 폭력으로 점령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 ㄷ. 비방적인 댓글 사례
 - mari마리 : 골고루 한국 망신 다시키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만 망신시키고 강 교회 가서 회개나 하세요 신난다~~10년만에 잡은 정권이다 맘대로 원하는대로 해먹을 권리와 의무 책임이 있다..돈나라 부자당이다 한탕 다 해먹자 모든지 닥치는대로 ...이판사판이다...강한자가 길ियो 진리요 법이다...민주주의?...웃기내 ..권력이 최고얌..푸하하.....광우병 보다 수억배 더 위험하고 무서운 정치집단이 있어요.....사기 거짓 핑계 집단들.국민우롱 무시 조롱 억압 강압 통제 언론장악 언론통제에 미친 일제보다 더 악랄한 ///김정일 보다 더 무서운 독제 이명박 돈나라당 정권 몰아냅시다 08.08.11 IP 83.183.***.63
 - unit001 : 저 사진 수정한 것에서 언론조작까지 들먹이는건 좀 오번데? 버젓이 잘못된 태극기가 퍼지는 것도 문제니깐 수정했다고 보는데...솔직히 명박이 까는 건 좋지만 나라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저 사진 유포시키는 건 너무 한심하네 08.08.10 IP 220.72.***.240
 - 가짜양반 : 웃고 넘길일이 아닐듯.....저런현상은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인데...하느님이 보고있다는 증거다....하늘은 너의 행동을 주시하고있다...온국민은 주시하고있다.... 08.08.10 IP 221.156.***.236
 - 달인 : 귀세끼 나라 망신 시키는건 일등이다..찌라시 언론들 또 위장하네..에효 어찌다가 저런 쓰레기가 대통령자리까지 간건지..참 답답하다. 08.08.10 IP 125.132.***.35
 - 토박이 : 아진짜 첩피해서 이명박 다신안볼련다 ㄱ- 08.08.10 IP 218.237.***.62
 - 대한민국 : 글로벌 호구들 다모였네 제발 오지마라 08.08.10 IP 116.37.***.240
 - Viva Mozart : 아 시바...저런 재수없는 얼굴 제발 아고라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정신건강 해쳐요.. 08.08.10 IP 118.217.***.174
 - Viva Mozart : 저런 녀이 대똥랭이라꼬.. 국기가 우째 생겼는지도 모른 녀이.. 한심하다. 저런 녀을 대똥랭이라꼬 뽑아주는 썩은 궁민들도 똑같고 . 개쉐리들.. 성조기는 윗불음인지 아랫불음인지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아는 녀들이..그러니깐..미친개날당/조중동/개알바들은 귀새키라카는기라 08.08.10 IP 118.217.***.174

댓글의 비방성은 단순히 게시물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의 차원을 넘어 댓글 화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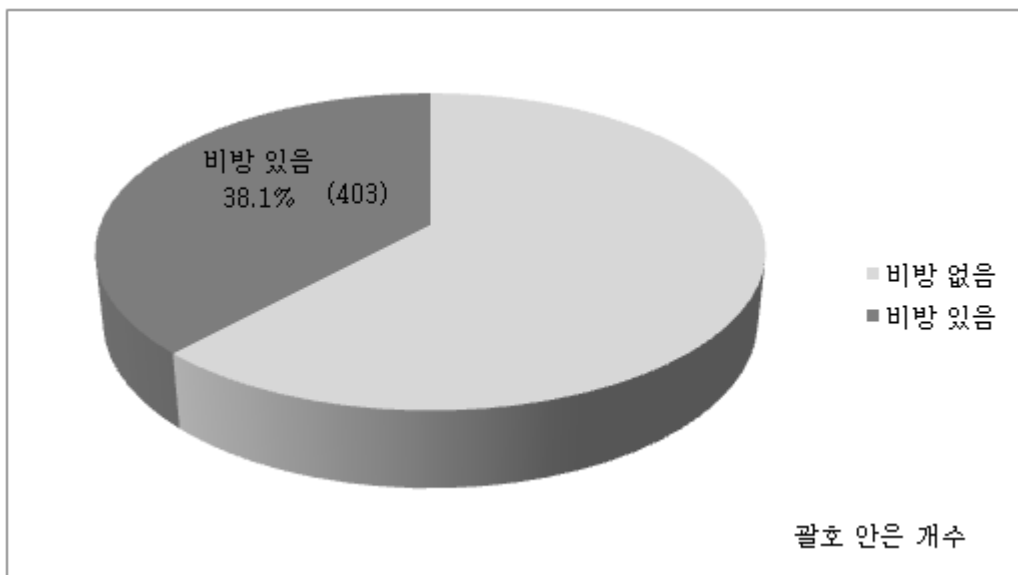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비방의 정도는 매우 강하여, 욕설과 저주를 포함한 저급한 댓글이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 표본으로 삼은 1,059개의 댓글에 나타난 비방 여부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5] 들머리 사이트 댓글에 나타난 비방성

비방성	개수(개)	비율(%)
비방 없음	656	61.9
비방 있음	403	38.1
계	1,059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 분포



댓글이 수행하는 기능과 비방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비방성은 표출적인 댓글에 많이 나타나며, 지시나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댓글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ㄱ. 제목 : 이런 부도덕한 정연주를 당신은 아직도 옹호하는가? [467](다음3-아고라-언론)

ㄴ. 내용 : 언론매체 중에서 방송이 사회 분위기와 여론조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준다.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만큼, 언론인은 도덕적이면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정연주 사장을 한번 보라. KBS의 정연주사장은 과거 한겨레 신문에 몸담고 있을 때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의 두 아들 병역문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었다. 그러나 정연주씨 자신의 두 아들도 군에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미국국적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사회정의를 위해 무엇보다 앞장서야하는 매체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연주씨는 이미 실격이지만 전 정부의 코드인사로 그 자리를 꿰어 찼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안하무인으로 행세하며 검찰의 소환에도 꿈쩍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될 말이다. 이런 부도덕한 인물을 당신들은 아직도 옹호하고 싶은가?

ㄷ. 댓글

신동환 :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누구 옹호하는 주제에 정연주를 까기는 ...니 주제를 알아라~~ 08.08.15 IP 116.42.***.23 (표출)

나는풍요그자체 : 하..여기 딸아이 또 한명있네..정연주는 독재정권에 못견뎌 미국을 건너 가서 아들 둘을 낳아서 그 둘은 미국 시민권자이죠. 08.08.15 IP 118.218.***.108 (표출)

f59518 : 도대체 이런병~~신도 있나? 사기꾼하고 투사와 같은 선상에 놓는 "아뿔사"당신은 2000원짜리인생인가? 08.08.15 IP 60.196.***.240 (표출)

아테나-v : 부도덕한건 당신이야 제발 마음이 있니 없니 하긴 저 차원 안드로메다로 날아갔겠지 정신좀 차려 이친구야 나이도 많을거 같은데 왜 그렇게 살아?????????????
나 이런말 절대 안적는테너희들을 보니 기가찬다 애꿎은 정연주 사장 욕하지 마라 언론통제 할려는 개정부야!!! 08.08.15 IP 116.93.***.89 (표출)

표출적인 댓글에서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그 속에 들어 있는 인물, 또는 다른 댓글 사용자를 ‘니 주제’, ‘딸아이(정신없는 사람에 대한 속어)’, ‘부도덕한 것은 당신’, ‘이런 병신’ 등으로 지칭하며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지시적인 댓글이나 진술의 댓글에서는 그 정도가 약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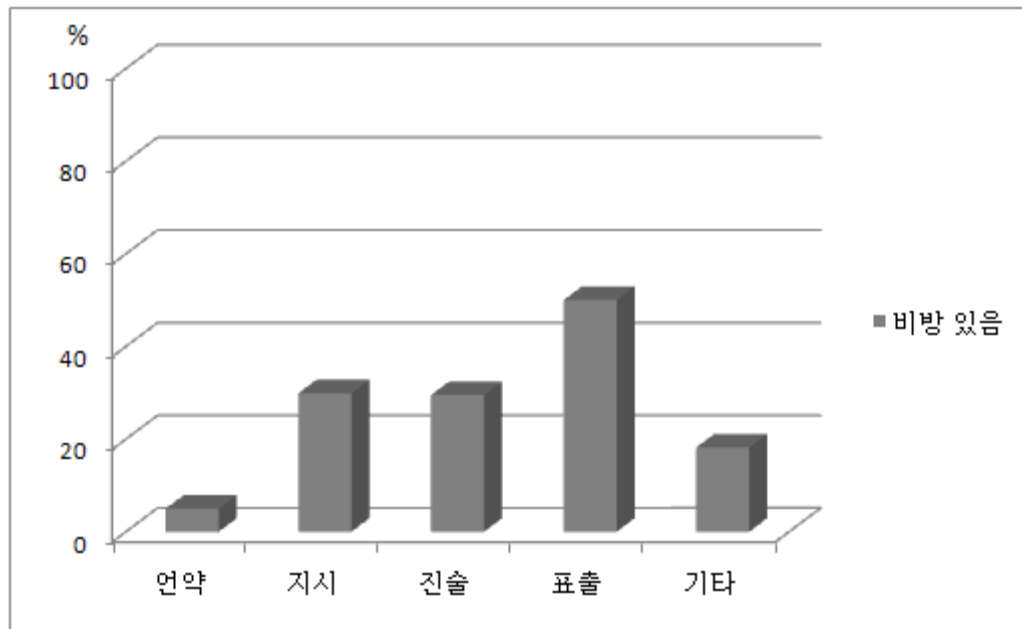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6]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 분포

비방성 수행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계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언약	19	95.0	1	5.0	20	100.0
지시	169	70.1	72	29.9	241	100.0
진술	189	70.5	79	29.5	268	100.0
표출	243	50.0	243	50.0	486	100.0
기타	36	81.8	8	18.2	44	100.0
계	656	61.9	403	38.1	1,059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비방의 정도는 통신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토론방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댓글의 비방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이트별로 보았을 때 ‘다음 아고라’의 비방성이 다른 사이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답글을 자유롭게 달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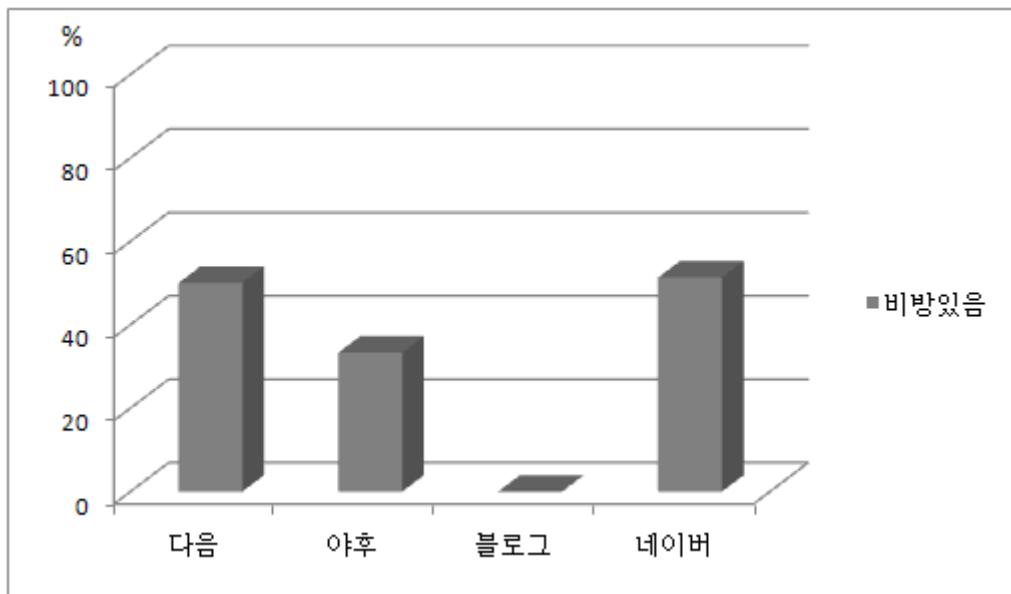
타나는 결과이다. ‘네이버 뉴스’나 ‘야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들머리 사이트의 공간별 비방의 정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7] 들머리 사이트의 공간별 비방 정도

비방성 출처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계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네이버	110	48.7	116	51.3	226	100.0
다음	229	50.0	229	50.0	458	100.0
블로그	201	100.0	0	0.0	201	100.0
야후	116	66.7	58	33.3	174	100.0
계	656	61.9	403	38.1	1,059	100.0

공간별 비방 정도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들머리 사이트 공간별 비방 정도



비방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실명 허용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실명의 댓글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힌다는 점에서 비방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들머리 사이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실명을 밝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명으로 보이는 댓글이 많지 않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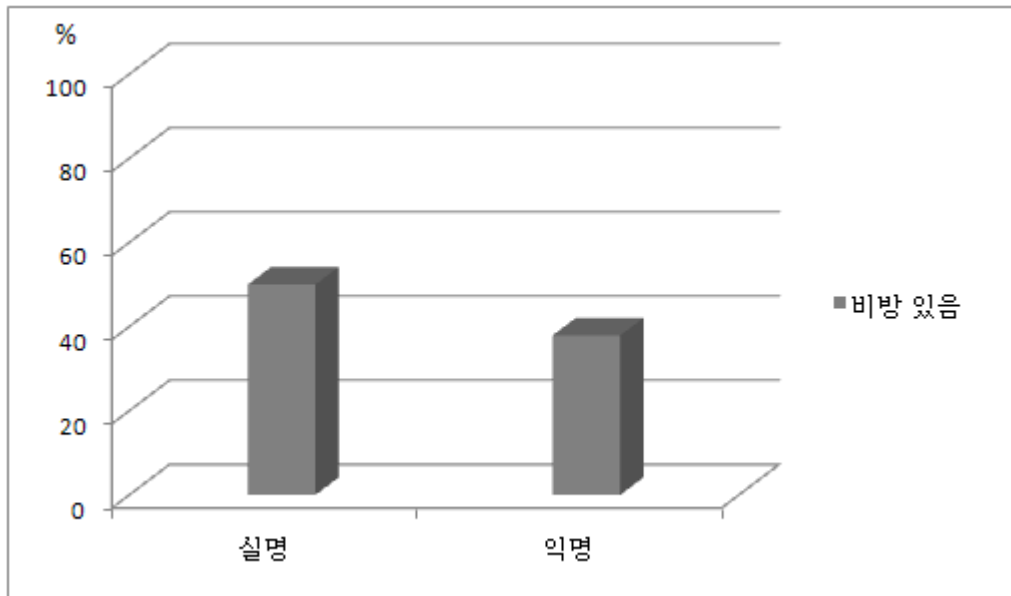
에, 실명 여부에 따른 비방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8]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비방성 실명 여부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계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실명	8	50.0	8	50.0	16	100.0
익명	648	62.1	395	37.9	1,043	100.0
계	656	62.0	403	36.8	1,059	100.0

실명 여부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실명으로 보이는 댓글의 수가 16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명 여부에 따른 비방의 정도는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익명의 댓글에서는 비방성을 띤 댓글이 3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인터넷 언론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의 비방성은 뉴스 관련 기사나 시사성이 있는 토론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비하여 비방성의 정도가 훨씬 높다. 비방이 있고 없음은 게시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ㄱ. 제목 : 일본차 파는 데 앞장서는 대기업들 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조선일보4> 경제)

ㄴ. 내용 : 국내 시장에서 일본차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혼다의 중형세단 어코드는 이미 한 달에 1000대 이상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차의 국내 총판(공식수입사)이나 딜러(총판으로부터 지역 판매권을 얻어 판매를 대행해주는 회사)를 잘 살펴보면,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상당수입니다.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캠리 등 대중차를 한국에 내놓는 도요타의 경우, 효성그룹과 LS그룹 계열사인 LS네트웍스가 딜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성그룹은 이미 벤츠의 딜러사업을 하고 있지만, LS그룹은 수입차 사업에 처음 뛰어드는 것입니다. GS그룹 계열인 센트럴모터스는 이미 렉서스의 딜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LG그룹에서 분리된 LS와 GS가 나란히 도요타의 대중차와 고급차 판매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음달 본격 판매에 들어가는 미쓰비시는 대우차판매가, 내년 5월 진출하는 스바루는 코오롱그룹이 총판입니다. 코오롱그룹은 이미 BMW의 국내 딜러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입차 그레이 임포트(비공식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SK네트웍스도 마쓰다의 국내 총판권을 따내기 위해 물밑 작업 중입니다. 일본차의 국내 특정 지역 딜러권을 따내려면, 판매 요충지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정비공장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00억~400억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판매권만 떼어주면 돈은 얼마든지 대겠다는 국내 기업이 줄을 서 있어 일본차 회사는 국내에 들어올 때 투자도 없이 무혈입성(無血入城)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도요타 등은 한국 내 광고도 텐츠 하쿠호도 등 철저히 일본계 광고대행사만 쓰는 등 일본기업끼리의 이익 극대화에 철저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내수의 70% 이상을 독점하면서도 파업만 일삼는 상황에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일본차의 경쟁력이 정말 뛰어나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국산차에 비해 별로 나을 것도 없는 브랜드에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씩 자금을 들고 뛰어드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ㄷ. 댓글

박수현(pshpshsh) : 한 나라의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인간들이 하는것이 쓰레기같은 짓을 하네 이참에 현대도 정신차려라 혈값수출하고 국내 소비자 바가지 씌우는짓 그만하고 노조 x들도 생산성 배로 올려 원가 절감해라 조만간 현대 시장 점유율 30%로 떨어진 다 그때 후회회도 늦다 [2008.09.01 16:54:34]

구동진(djkoo4) : 현대노조보기 싫어서 현대차 안산다 노조들 파업잘하라고 현대차 사주나 현대자동차는 망해야한다 빼먹을수있을때 까지 빼먹자는 노조들 보기싫어서도 현대차

는 빨리 망해야한다 [2008.09.01 14:02:52]

이인성(iyi) : 미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일본차를 가졌지만 독도다 뭐다... 다음번엔 현대차를 타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 그럴 맘이 사라지네요.
[2008.09.01 13:17:11]

김일석(balinoni) : SK 회장이 누구시드라. 자존심도 없나, 일본차 딜러들 가운데 떼어 내지, 쓸개도 없으니까.. [2008.09.01 10:53:43]

이주현(makrigy): 일본은 싫어도 일체는 좋다는 우리들 때문이겠죠. 재벌탓 정부탓으로 쉽게 결론내리곤하는 바로 우리들 말입니다. [2008.09.01 10:51:07]

남기국(nkk8) : 역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 [2008.09.01 10: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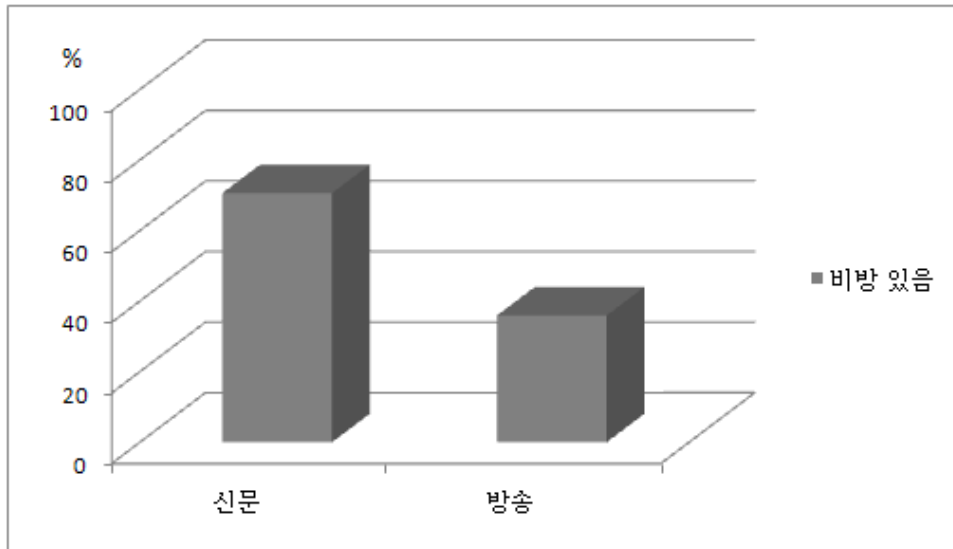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댓글 사용자들은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비방의 대상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이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대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의 비방성 조사 결과를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매체 비방성	신문		방송		전체	
	개수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비방 없음	221	29.2	455	61.9	676	45.3
비방 있음	535	70.6	264	35.9	799	53.5
기타	2	0.3	16	2.2	18	1.2
계	758	100.0	735	100.0	1493	100.0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방의 정도는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은 댓글이 수행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수행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인터넷 언론 댓글의 56.9%는 표출 기능을 수행하며, 35.2%는 진술 기능을 수행한다. 인터넷 언론의 댓글에서는 표출 기능과 진술 기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나 적대적 감정을 드러낼 만한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비방적인 댓글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ㄱ. 제목 : 조기숙 “촛불집회 참가자, 선진국문화 특징” (<동아일보8> 사회)
- ㄴ. 내용 :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빚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관련, "일반 국민들과 달리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특징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강원도 속초시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주최 `2008 하계 및 건국60주년 기념학술회의'의 `촛불집회의 정치적 의미'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같은 학교 대학원생 박혜윤 씨와 함께 작성한 발제문 `광장의 정치, 조용한 문화혁명'을 통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이고 포폴리즘과 정반대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의미의 광장이 아니라 사생활이 보호되는 인터넷이라는 아고라(광장)와 시청광장을 오가며 권력에 비판적이고 엘리트에 도전하는 탈물질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탈물질주의 문화와 적극적인 비전통적 정치참여행위는 더 넓게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문은 지난 6월6일 청계천, 시청 등에서 1천300여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와 지난 해 12월 전문여론조사기관 R&R이

국민 1천2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비교해 촛불집회 참여자들의 성격을 분석했다. 설문조사결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58.4%가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원~499만원인 중산층으로 전체 국민 평균 5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촛불집회 참가자의 23.2%가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국민 평균 19.2%보다 높았다. 아울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76.9%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국민 평균 33.7%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살펴보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70%(중.고등학생 제외)에 달해 일반국민(20%)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56%가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선택해 일반국민 22.3%보다 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도 이날 세미나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적극적인 정치참여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 "촛불집회는 단순히 쇄고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마할 수 있는 단순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비판임을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견제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화나 정당정치의 불안정이라는 과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ㄷ. 댓글

koreahjn 2008-08-21 16:30:47 : 이런 통계가 참 웃긴다.시위참가자에게 학력 소득을 설문했는가? 내가 알기로 이젠 누가 뭐래도 지역정서에 편승한 웃기는 시위였다.초등학생,유모차주부들이 더운여름밤에 바람쐬려 놀러간거다.게다가 호남출신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나선것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나? 이런걸 학술회의에서 발표하다니 참 웃긴다.일기쓰는거 부터 배워라 (진술)

명청도 2008-08-21 17:01:35 : 좌빨 미화작업에 정신이 다 나간 얼라가터비네. 시방 조-스불이 반정부폭력집단으로 그 본성을 나타낼걸 알고하는말인지....이런 아그를 참모로 델고있던 언넵도 한심하긴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나며. (진술)

tony001 2008-08-21 17:32:53 :조기숙이는 교수라기보다는 시정잡배에 해당하는 정치꾼이다. 연구나 열심히하고 학생이나 잘 가르쳐라.. (표출)

dpgpfk 2008-08-21 17:48:15 : 예..전과 9범, 노숙자,,백수등은 아마도 설문에 참여 하지 않았나 보다..학자로서 논문을 쓰려면 sampling을 좀더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쓰레기 좌파끼리 모여서 노는 학회라도 학술논문에서 까지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개비씨 엠빙신 뉴스수준에서 논문짜라시를 쓰고 발표하는 저질 수준까지 갔단 말인가...불쌍한 인간.. 교묘한 선동이지만 속이 들여다 보이므로 빵점짜리 답안되겠다.. (표출)

dpgpfk 2008-08-21 20:05:10 : 차라리 돌을 300개쯤 준비해서 이순신장군 동상에서 눈감구 던져서 맞은 녀/놈을 심층조사 한 결과 라던가 아니면 초기 , 중기 , 작금의 sample을 조사 해서 어떻게 변질 되고 있는가를 조사 했으냐 논문감이라구 할 수도 있겠다...학자적 기본이 안된 논문이다..그릇된 data로 어찌 저런 결론을 냈는지도 참

재미있겠다.. 각종 over가 난무할 듯...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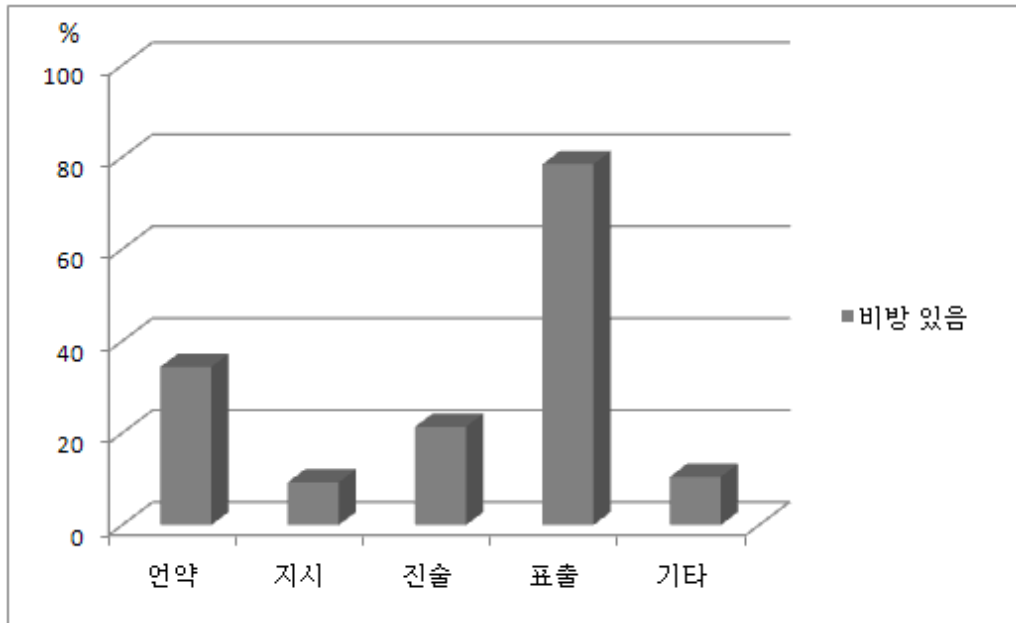
시사적인 게시물의 경우, 독자는 자신의 판단이나 주장을 댓글에 올리며, 때로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낼 때도 많다. 따라서 시사적인 게시물에 대한 표출 기능의 댓글과 진술 기능의 댓글에서는 비방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며, 그 대상과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0]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의 관계

비방성 수행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기타		계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언약	25	67.6	12	34.4	0	0.0	37	100.0
지시	39	90.7	4	9.3	0	0.0	43	100.0
진술	413	78.4	113	21.4	1	0.2	527	100.0
표출	182	21.5	666	78.5	0	0.0	848	100.0
기타	17	44.7	4	10.5	17	44.7	38	100.0
계	676	45.3	799	53.5	18	1.2	1,493	100.0

수행성과 비방성 관계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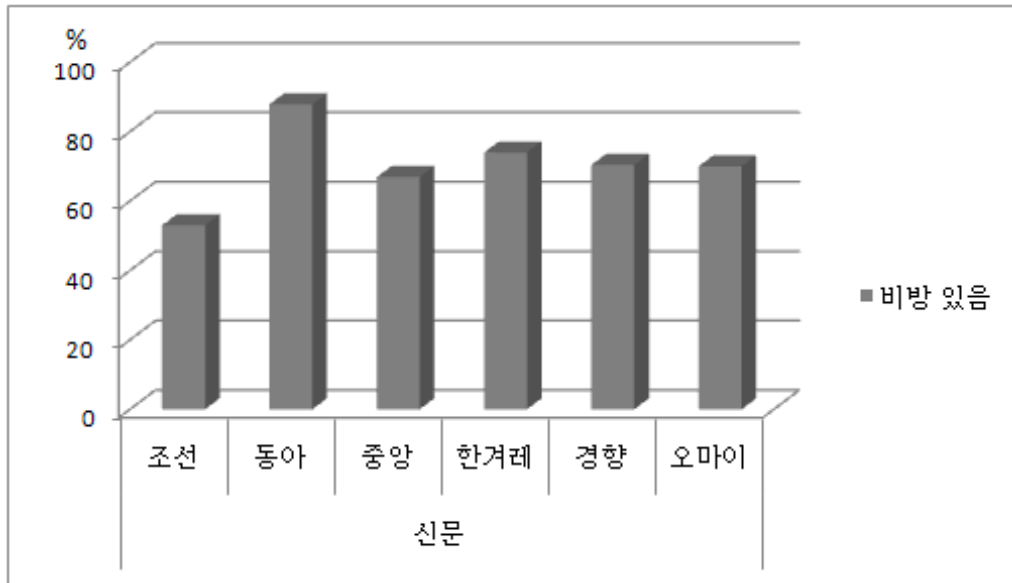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은 사이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인터넷 언론의 게시물 운영 방식과 댓글 사용 양식이 다른 통신 공간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언론사(언론사 닷컴으로 불리는 공간)에서는 운영자가 게시물을 올리며, 댓글 사용자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공간이 적다.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이 댓글 사용자가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고려한 사이트별 비방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인터넷 언론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출처 \ 비방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신문	조선	70	47.0	79	53.0	0	0.0	149	100.0
	동아	20	12.1	145	87.9	0	0.0	165	100.0
	중앙	46	32.4	95	66.9	1	0.7	142	100.0
	한겨레	27	26.0	77	74.0	0	0.0	104	100.0
	경향	29	29.6	69	70.4	0	0.0	98	100.0
	오마이뉴스	29	29.0	70	70.0	1	1.0	100	100.0
	총합계	676	45.3	799	53.5	18	1.2	1,493	100.0
방송	엠비시	146	55.5	116	44.1	1	0.4	263	100.0
	케이비에스	146	61.6	76	32.1	15	6.3	237	100.0
	에스비에스	88	69.3	39	30.7	0	0.0	127	100.0
	에스비에스 시청자 게시판	75	69.4	33	30.6	0	0.0	108	100.0
	총합계	676	45.3	799	53.5	18	1.2	1,4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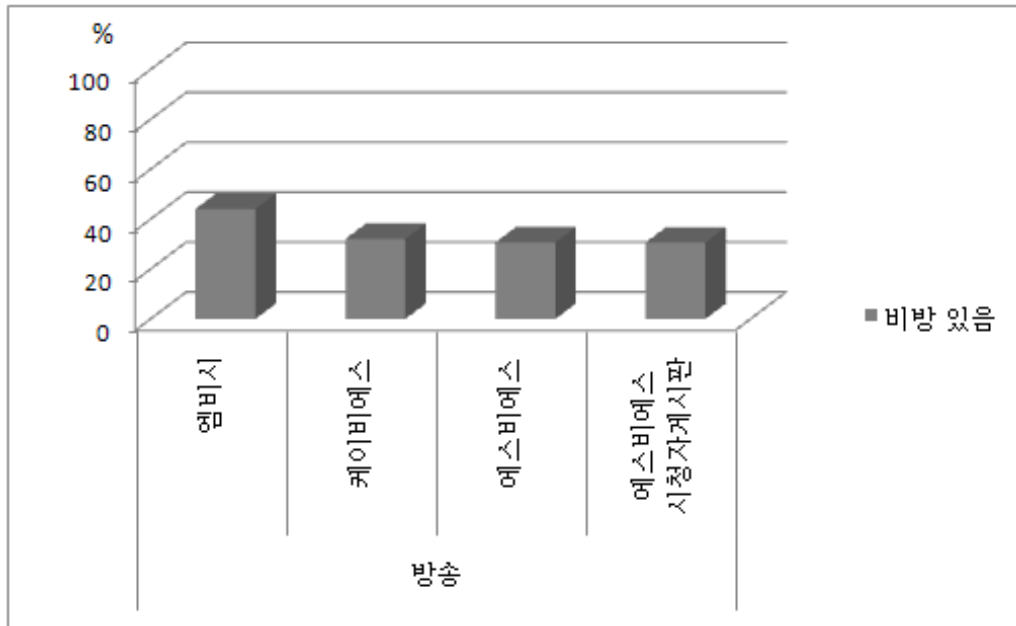
사이트별 비방성을 고려할 때, 신문 댓글은 방송 댓글에 비해 비방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 <조선일보> 53.0%, <동아일보> 87.9%, <중앙일보> 66.9%, <한겨레신문> 74.0%, <경향신문> 70.4%, <오마이뉴스> 70.0%를 차지한다. 이처럼 신문사 댓글의 비방성이 높은 까닭은 기사의 시사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가 지니는 속보성(마감 시간이 없어지고 실시간으로 기사가 올라오는 현상), 심층 보도, 사회적인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독자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문사별 비방 댓글이 달리는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0] 인터넷 언론 댓글의 신문사별 비방성 정도



방송사의 경우는 신문에 비해 비방의 정도는 약하나, 다른 공간과 견줄 때에는 비방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방적인 댓글은 <엠비시> 44.1%, <케이비에스> 32.1%, <에스비에스> 30.7%, <에스비에스 시청자 의견> 30.6%의 분포를 보인다. 방송사별 비방의 정도에서 <엠비시>가 높은 요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토론 주제 및 게시물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 대한 댓글과 자유롭게 개진하는 시청자 의견란의 댓글은 비방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인터넷 언론 댓글의 방송사별 비방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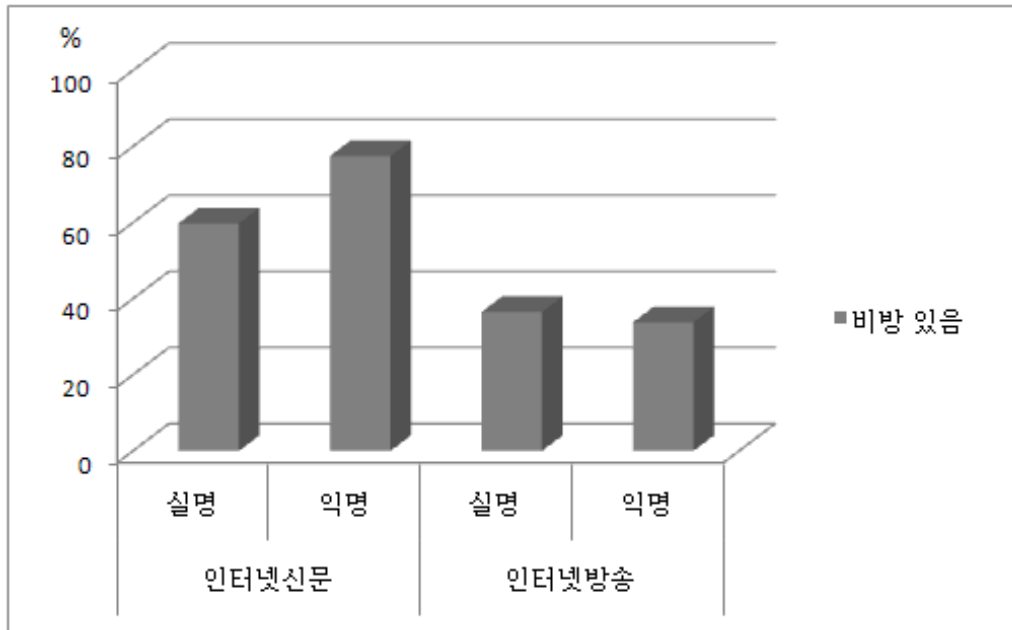
비방성과 실명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실명 여부는 아이디 대신 실명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명으로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명 여부와 비방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2] 인터넷 언론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매체	실명 여부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인터넷 신문	실명	118	39.9	177	59.8	1	0.3	296	100.0
	익명	103	22.3	358	77.5	1	0.2	462	100.0
	계	221	29.2	535	70.6	2	0.3	758	100.0
인터넷 방송	실명	357	61.8	211	36.5	10	1.7	578	100.0
	익명	98	62.4	53	33.8	6	3.8	157	100.0
	계	455	61.9	264	35.9	16	2.2	735	100.0
총계		676	45.3	799	53.5	18	1.2	1,493	100.0

비방성에 영향을 끼치는 실명 여부는 신문과 방송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신문 댓글은 실명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경우가 59.8%, 익명으로 비방의 내용을 올린 경우가 77.5%를 차지한데 비해, 방송 댓글은 실명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경우가 36.5%, 익명으로 비방의 내용을 올린 경우가 33.8%를 차지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인터넷 언론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문 댓글은 익명의 비방적인 댓글(신문 77.5%)이 실명의 비방적인 댓글(59.8%)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실명 여부가 비방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명을 밝히도록 한 <조선일보>(53.0%), <중앙일보>(66.9%)가 <동아일보>(87.9%), <한겨레신문>(74.0%), <경향신문>(70.4%), <오마이뉴스>(70.0%)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는 익명의 비방적인 댓글(33.8%)이 실명의 비방적인 댓글(36.5%)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 여부가 비방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3.3. 공공 기관

공공 기관 댓글의 특징은 비방성이 다른 공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기관 게시물이 정책 홍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논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 댓글 사용자의 지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 그리고 댓글 사용자가 갖고 있는 공공 기관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방의 내용을 담은 댓글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ㄱ. 제목 :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행정안전부3> 과학/IT)

ㄴ. 내용 : ㅇ 아이템거래사기, 언어폭력, 게임중독 등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사전심의가 필요한가? 아니면 업계 자율규제방식이 바람직한가? (1)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차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2) 사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사전심의는 그 실효성이 없으며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사후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업계가 권장 연령제시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ㄷ. 댓글

겜돌이 : 사전심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겜임을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의심스럽다. 패키지 게임이 아닌 온라인 게임은 사이버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세상이다.사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우성 유전자를 가진자들 만으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정책당국자들은 온라인게임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게임상에서 이뤄지는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한번 가져본후에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또다시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2002-06-15 00:25)

공권력반대 : 그놈의 공권력은 퍼내도 퍼내도 도로 차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인가요?특하면 공권력 투입!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쫓쫓쫓....지식기반국가건설이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어찌구 하지도 말고 제발 힘으로만 해결하려하지 말고 머리좀 써서 다른 현명한 방법을 다함께 강구해 보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구호와 정책이 따로 놀고있어~~~에이~~~ 정말 맘에 안들어~~~ (2002-06-15 14:48)

칠복이 : 온라인 게임을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국민을 무슨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너희는이 정도 수준에서만 놀아라!" "이 수준을 넘으면 곤란해!"라는 발상은 성숙한 사회의 수치다. 과연 누가 이런 문제에 적절한 수준을 정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그 판단은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의 몫이다.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이런 발상은 보나마나 새로운 심의 위원회나 만들어내 밥그릇이나 차지하려는 버려지들의 잔괴임에 틀림없다. 그 버려지들의 머리에서 되는 것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고, 그 놈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가? 더욱이 내가 알기로는 이미 사후 심의가

있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뺨에게 다리를 다는 쓰잘데기없는 국력 낭비다. 보나마나 그 심의료는 게임업체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닌가? 그 것은 게임 사용자들에게 결국전가될 것이고.....결국 비용만 상승시키고 효익은 없는 일이다. 한편으로는벤처 육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발목을 잡는다.이렇게 쓸데없는 발상을 해내는 놈들은 일본으로 보내 일본공무원이나 시켜야 한다.(일본 빨리 망하게^^) (2002-06-19 20:05)

김민석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에 이로움을 주는것이 그 부처의 존재이유일진대, 빈부의 차이에 의한 정보습득의 기회 불평등이나 해소하고,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같은 것은 민간기구에 맡겨라. 정보통신부가 내용의 사전심의의를 한다니 너무 몰상식한 발상이라 말문이 막히는구나.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도 인력이 남아도는건지..... (2002-07-08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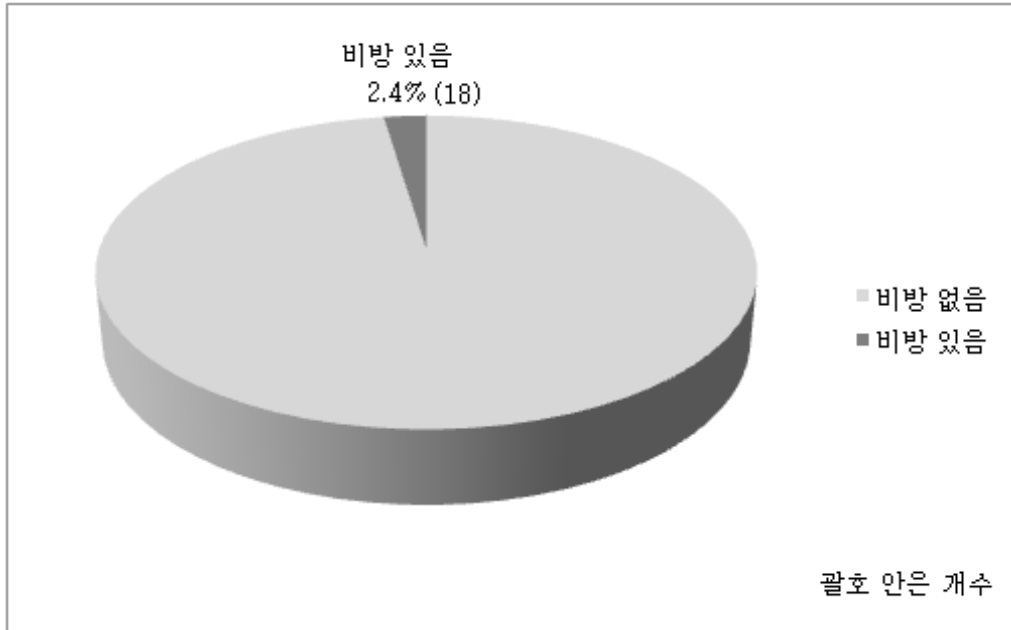
공공 기관의 댓글에 나타나는 비방성은 정책 홍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홍보 게시물이나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게시물의 경우는 근거 없는 비방 내용을 담은 댓글이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3]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비방성	개수	비율(%)
비방 없음	734	97.6
비방 있음	18	2.4
계	752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이 낮은 까닭은 댓글의 수행 기능과도 관련을 맺는다. 왜냐하면 공공 기관 댓글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댓글에서는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ㄱ. 제목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교육인적자원부17> 법률)
- ㄴ. 내용 : 학교법인의 이사정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종교사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임시이사의 선임·해임 및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이 2007년 7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한 학교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ㄷ. 댓글
- ksh4604 [추천 1 | 기타] : 문제가 터진다음에 항상 수습 하는게 정부 같은데 솔직히 이 법안은 모르겠다 왜냐면 적어도 내가 클때만큼은 사교육비가 별로 안들어가고 대부분 사회 생활 잘들 하고 있다 이정책을 내세운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것

이다 요즘은 학교 있으나 마나 한 기관 아닌가? 단순히 졸업했다는 졸업장이 아니라 요즘은 인정서 같다 취직을위한 인정서 그런 학교 가 과연 존재의 가치나 있을까 의심스러운 교육정책에 뭐 이런 정책까지 내놓을 필요 가 있을까 싶다 요즘은 맞벌이 해도 영세기업체 직원이나 중소기업체 직원들 자녀들 교육비 대느라 등골 휘어지는 데 차라리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 거론하는게 우선이라고 본다 학교 의 가치도 없는 학교가 존재 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런정책 이전에 교육의 현실성이 없는 학교 를 먼저 없애버리고 사교육비가 되도록 들지 않도록 학교 정책을 내세우고 나머지 처우개선을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기본도 없는데 추가 옵션 이 무슨 필요 가 있을까 싶다 ...(2007-07-26 06:51) (진술 : 비판)

lor730 [추천 0 | 기타] :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학의 발전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사학측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금번 사학법 개정안이 입법취지에 맞는 지를 생각해봐야겠다.사학비리를 발본 하고자하는데 과연 개방형이사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비리가 있으면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로써 형량이 학생지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형벌의 경우 학교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극도로 제한을 두면 될 것 아닌가? 정부의 기관 중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가장 나라발전을 저해하는 기관은? 교육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2007-07-31 01:57) (진술 :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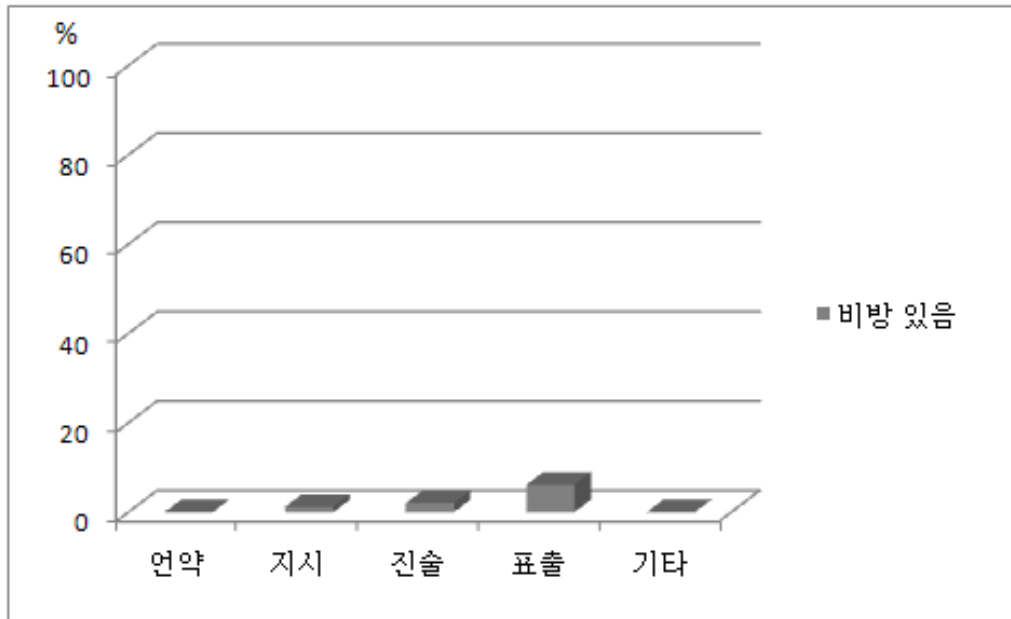
공공 기관 댓글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많으며, 비판 과정에서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 비방에 이르는 경우가 간혹 발견되지만, 대체로 근거를 제시하는 비판형 댓글이 많다. 순수한 비방형 댓글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을 표출한 댓글에서 극히 적은 수로 나타난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비방성 수행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언약	4	100.0	0	0.0	4	100.0
지시	80	98.8	1	1.2	81	100.0
진술	577	98.0	12	2.0	589	100.0
표출	71	93.4	5	6.1	76	100.0
기타	2	100.0	0	0.0	2	100.0
계	734	97.6	18	2.4	752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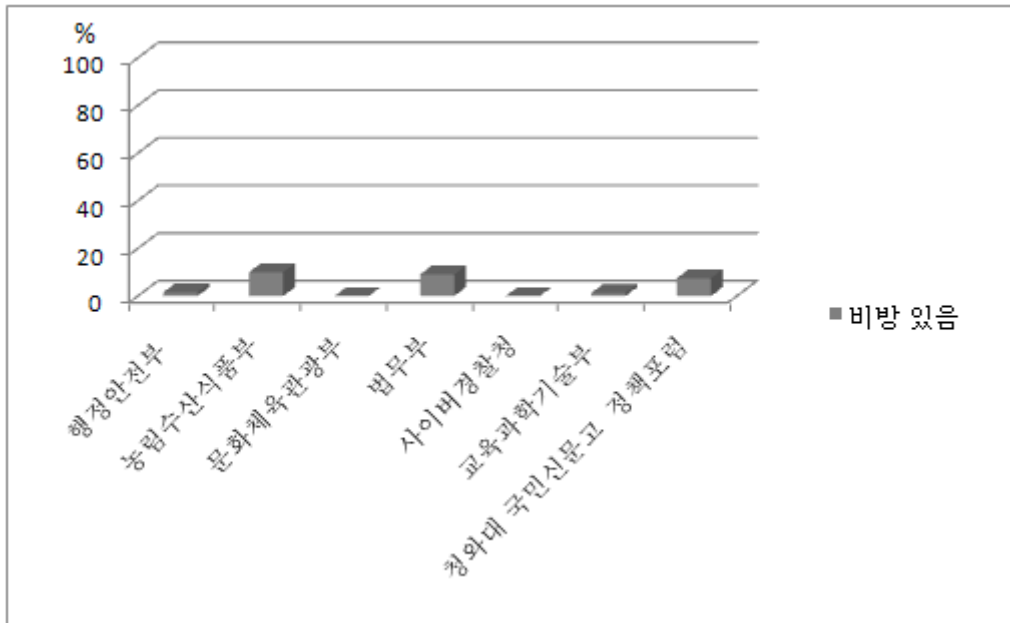
공공 기관 가운데 비방적인 댓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 시절 포함), <청와대 국민신문고 정책 포럼> 등이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5]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출처(사이트) \ 비방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행정안전부	368	98.4	6	1.6	374	100.0
농림수산식품부	18	90.0	2	10.0	20	100.0
문화체육관광부	12	100.0	0	0.0	12	100.0
법무부	20	90.9	2	9.1	22	100.0
사이버경찰청	17	100.0	0	0.0	17	100.0
교육과학기술부	237	98.8	3	1.3	240	100.0
청와대 국민신문고 정책포럼	62	92.5	5	7.5	67	100.0
계	734	97.6	18	2.4	752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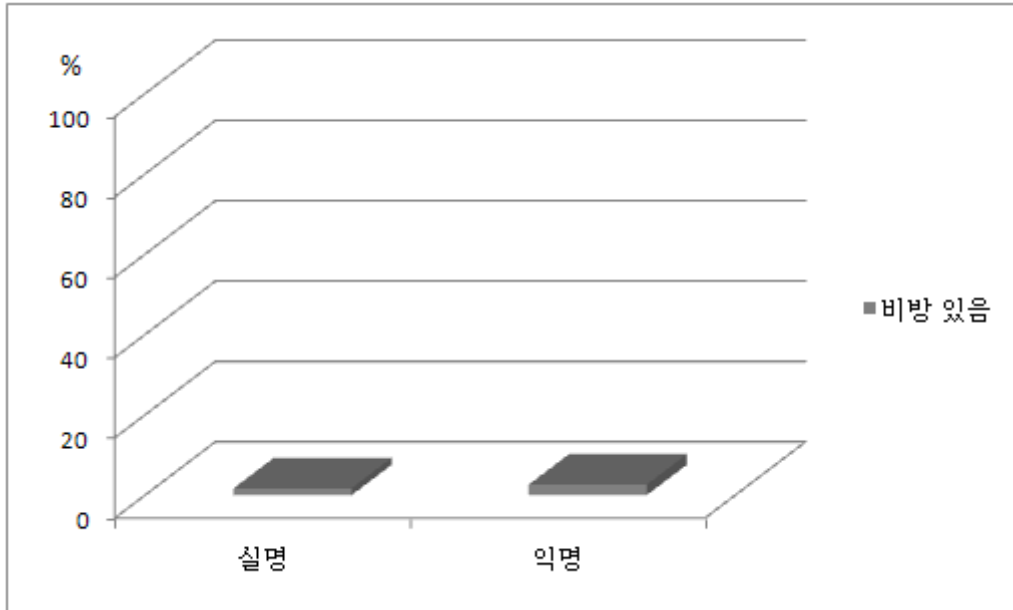
공공 기관 댓글에서 실명 여부와 비방의 정도는 비방적인 댓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함의를 찾아내기 어렵다.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6] 공공 기관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비방성 실명여부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실명	175	98.3	3	1.7	178	100.0
익명	559	97.4	15	2.6	574	100.0
계	734	97.6	18	2.4	752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공공 기관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3.3.4. 사적 영역

동호회나 카페의 비방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가 취미, 관심사, 정치적인 견해 등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ㄱ. 제목 :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08.10.05 11:43 (<박사모1> 정치)
- ㄴ. 내용 : 가실때는 말없이! 다시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요나답처럼 카페나 타사이트를 만들어서 나가는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던 동지들에게 함부로 비난하지마시고 가실때는 그냥 말없이 떠나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언제 어디서 또 만날지요? 자신의 행동과 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들 갑시다. 제발 떠날때는 말없이. 그냥 타사이트 만들었으면 정모를 하던 회원을 모집하던 자신의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면서 박사모를 흔들고 욕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박근혜님을 위해서 타 사이트를 만들고 행동을 하는지 박사모 분열작전에 함께 나선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새로사이트를 만드셔서 진정으로 박근혜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 지난분들처럼 함께 해온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은 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박사모 회원중 어느한분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알수없는 잘못을 했다고 할 지라도 진정으로 박사모를 생각하고 박근혜님을 사랑한다면 이런일로 카페전체를 욕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원한사람 한사람의 모든행동을 책임을 져야한다면 어느누가 박근혜님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박근혜님의 이름아래 모였다면 사랑과 화합이 필요합니다.박사모를 위해서 단한번도 격려의 글도 올리지않고 퍼온글들로 박사모자계판에 일관하시더니 이런식으로 비난의글을 올리면 뒤통수가 간질거리지 않나요? 함께 했던 동지라면 떠날때도 예의를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중략) 여기를 떠나는분도 그리고 새로운곳을 만들어서 나가거나 그곳에 가입은 안하고 그분들과 전화를 주고받는분이나. 이제는 그만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욕하시려거든 제가 올려놓은글들중에 펄글도 많고 직접쓴글들도 많으니 읽어보시고 말씀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들 합시다. 자신들이 올려놓은 댓글을 다시한번더 읽어 보세요. 인격적인글들인지. 오늘 새로만든사이트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고 제가 무척시달렸습시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비인격적인 행동은 그만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ㄷ. 댓글

청휘(淸輝) : 여보세요 빠꼼님 ..바로 당신처럼 에스맨이라 대답하는사람때문에 작금의 박사모가 더이상의 발전성이 없는겁니다 ..제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없는글을 거짓으로 올렸나요 ..회칙밋협의회 내용을올렸으며 ..앞으로 불을보듯 뻔한 분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진들 보라고 올렸습시다 ..지금이 평온하다고 착각하시는데 ..물밑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요동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빠꼼님을 보느라니 참으로 한심하네요 ..무엇이 예의며 책임인지 깊이좀 반성하시구요 ..진정성이 함유된 것에는 보다는 내일의 발전을 기대할수있다는것 꼭명심하십시오 ..당신처럼 모두아는 뉴스 스크랩은 올리지 않습니다 12:06

청휘(淸輝) : 글이 비난글인가요 ..한치앞도 못보는 빠꼼님같은사람때문에 박사모가 골병들며 ..택같은 이중인격자때문에 와해가 되는겁니다 ..내가 다시 그글을 올려볼까요 분란성인지 ..진성 박사모가 될려면 애정어린 충고도 쓰디쓴약도 달게 삼켜야됩니다 ..그리구 글이란 그사람의 마음의양식인데 당신이란사람 아주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있네요 ...함부로 말하지마시길바랍니다 12:13

빠꼼이 : 청휘님. 더러운 성격이던 깨끗한 성격이던 님만 깨끗하면 깨끗한사이트 만드시고 거기나 잘 해보세요. 왜 그쪽으로 가신분들만 모두 나서서 한두번도 아니고 재차 이런글을 올립니까? 새로만든곳이나 잘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12:16

빠꼼이 : 저는 박사모에서 요나답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날때는 말없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런식의 행동은 박사모 전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제가 올린 댓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개인의 잘못을 전체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안그래도 명빠들이 박사모 분열을 위해서 온갖정성을 다 들이고 있는 시점에 서... 12:14

청휘(淸輝) : 진짜 정신병자 따로없네 .. 닉처럼 빠꼼질하구있구먼 ..나도 여기 박사모가 싫으면 말한마디 안하고 소리없이 떠나요 ..당신처럼 위장된 삼질 절대안해요 겉으로 충성심있는것처럼 함부로 행동마시구 점잖게 처 게시길바랍니다 ...좋은말로 좋게 댓글달아줄때 행복감느끼셔 ...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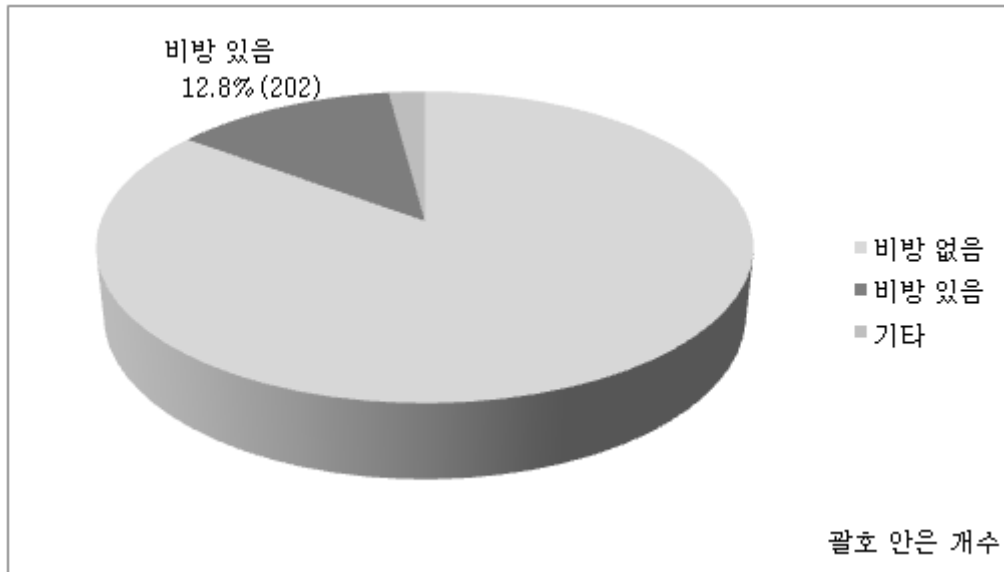
동호회와 카페의 댓글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는 그 사이트의 취지에 어긋나는 글이 올라오거나, 취지에 어긋나는 댓글이 올라올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띤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논쟁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경우 성향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매도하는 비방적인 댓글이 나타난다. 사적 영역 비방성 조사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7] 사적 영역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비방성	개수(개)	비율(%)
비방 없음	1,342	85.1
비방 있음	202	12.8
기타	33	2.1
계	1,577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0] 사적 영역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



수행성과 관련하여, 사적 영역 댓글의 비방성은 특히 표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사이트의 성격이나 게시물의 성격이 논쟁적일 경우 비방적 댓글이 많다. 또한 성인들이 주 회원인 사이트는 청소년이 주 회원인 사이트보다 비방적 댓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화장품 쇼핑물인 ‘체리야’나 다이어트를 주제로 하는 카페 ‘성공 다이어트/비만과의 전쟁’, 특목고 지원자들의 카페 ‘특사모’ 그리고 온라인 문학 사이트에서는 비방성이 있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은 사적 영역에서 비방성이 발견된 댓글의 예시이다.

- ㄱ. 언약 : 담부터 그런일이있을경우 저한테 뽀뽀치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음!!<조폭갈네 ㅋㅋ> (<최강남녀> “[우울한 하루~] 목소리만 좋았던 변태같던 남자 -_-;;” 게시물의 26솔로협회회장 아이디 댓글 08.08.23 17:55)
- ㄴ. 지시 : 정화이작자 녹우야? 완전포라이구만~~~~~ 이명박에 세뇌되어 발악을하네 ,, 좀비들이설치고 다녀 니가 나가라 겁대가리없이 명령이야,,,,,, (<박사모> “좌파 냄새나는 글쓴이들 보면,,,” 게시물의 달에향기(월향) 아이디 댓글 08.09.19 12:16)
- ㄷ. 진술 : 작년 제 상황과 비슷하네요. 소심해서 바람 절대 못핀다는 남친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았죠! 결혼해서 남편 바람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보면...난 어쩔 진짜 행운아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맞더라구요. 힘내세요!! (<참사랑 국어> “위로받고 싶은 느낌.. 이런 거네요.. ^^;;” 게시물의 올해는 꼭!!! 아이디 댓글 08.08.04 17:35)

르. 표출 : 이름이 어떻게 옆에서 화학물질이라고 들어가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못알아 듣잖아 돌대가리도 저런 대가리가 없어. (<한류열풍사랑> “[이명박]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게시물 댓글의 따까비 아이디 댓글 08.10.01 0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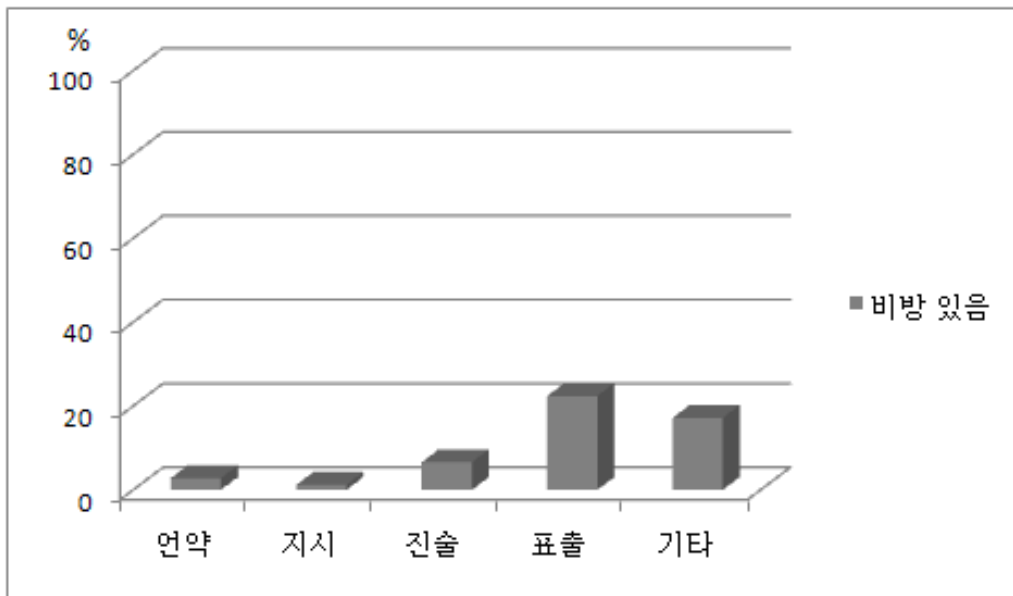
수행성과 비방성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8]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비방성 수행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언약	138	97.2	4	2.8	0	0.0	142	100.0
지시	168	98.8	2	1.2	0	0.0	170	100.0
진술	498	93.3	35	6.6	1	0.2	534	100.0
표출	508	75.5	151	22.4	14	2.1	673	100.0
기타	30	51.7	10	17.2	18	31.0	58	100.0
계	1,342	85.1	202	12.8	33	2.1	1,577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 사적 영역 댓글의 수행성과 비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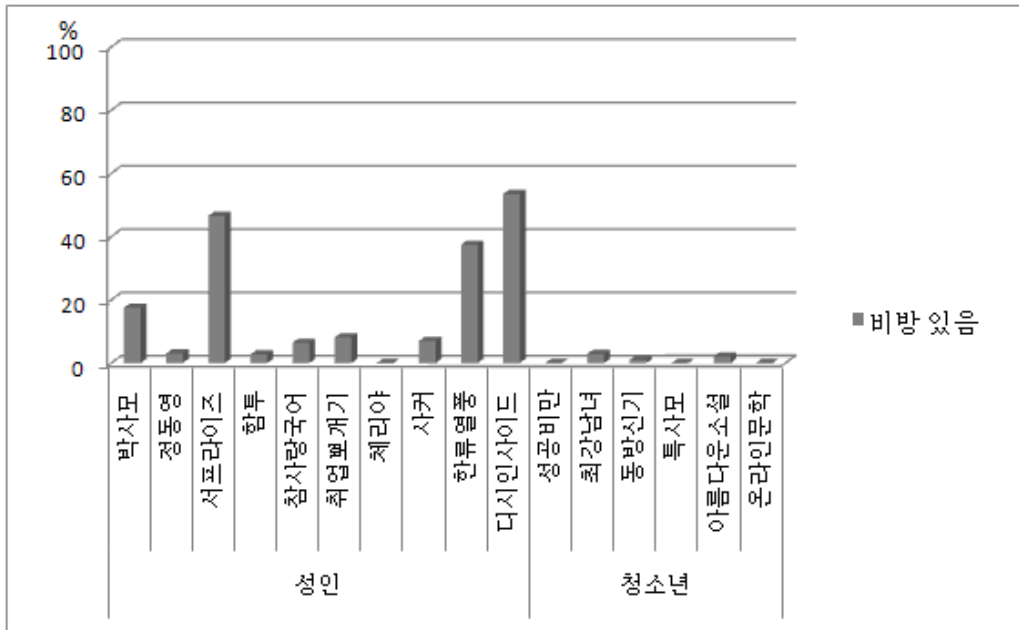
동호회와 카페의 비방성은 해당 사이트의 취지나 운영자, 사용자의 연령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비방성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비방성이 높는데 대표적인 카페인 <박사모>는 17.5%, <서프라이즈>는 46.5%의 비방성을 보인다. 연령을 고려했을 때 성인 중심의 사이트가 청소년 중심의 사이트보다 높은 비방성을 보이는데, <한류열풍> 37.4%, <디시인사이드> 53.4%로 나타났다. 비방성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9] 사적 영역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조사 결과

출처		비방성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성인 중심	박사모			82	79.6	18	17.5	3	2.9	103	100.0
	정동영			97	97.0	3	3.0	0	0.0	100	100.0
	서프라이즈			54	53.5	47	46.5	0	0.0	101	100.0
	함투			71	97.3	2	2.7	0	0.0	73	100.0
	참사랑국어			161	93.6	11	6.4	0	0.0	172	100.0
	취업뽕개기			145	90.6	13	8.1	2	1.3	160	100.0
	체리야			40	100.0	0	0.0	0	0.0	40	100.0
	사커			93	93.0	7	7.0	0	0.0	100	100.0
	한류열풍			62	57.9	40	37.4	5	4.7	107	100.0
	디시인사이드			46	44.7	55	53.4	2	1.9	103	100.0
청소년 중심	성공비만			107	100.0	0	0.0	0	0.0	107	100.0
	최강남녀			96	94.1	3	2.9	3	2.9	102	100.0
	동방신기			90	86.5	1	1.0	13	12.5	104	100.0
	특사모			86	97.7	0	0.0	2	2.3	88	100.0
	아름다운소설			92	92.0	2	2.0	6	6.0	100	100.0
	온라인문학			20	100.0	0	0.0	0	0.0	20	100.0
계				1,342	85.1	202	12.8	33	2.1	1,577	100.0

사적 영역 댓글의 비방성 조사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사적 영역 댓글의 사이트별 비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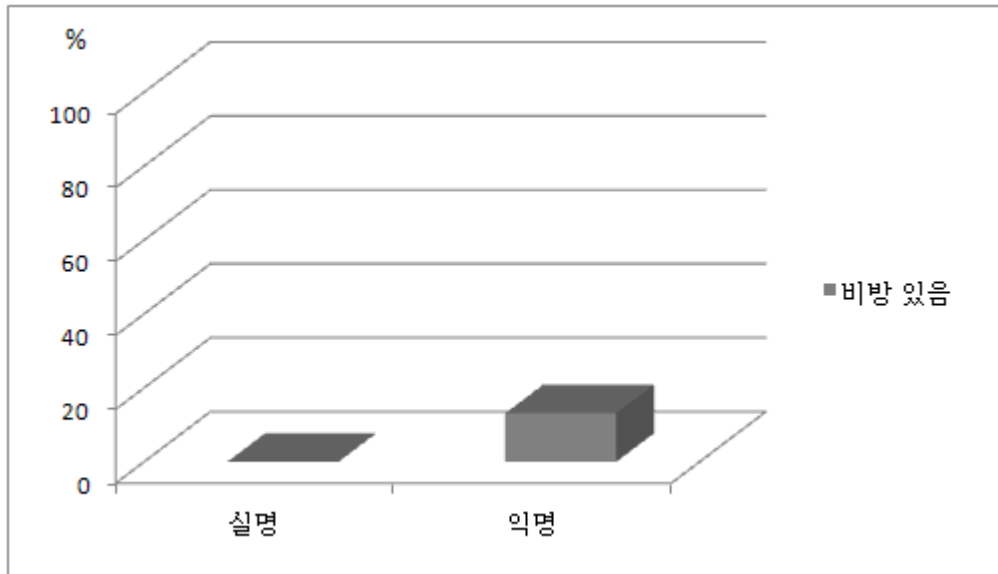
사적 영역 댓글에서도 실명 여부는 비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실명 여부에 따른 비방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0] 사적 영역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비방성 실명여부	비방 없음		비방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실명	31	100.0	0	0.0	0	0.0	31	100.0
익명	1,311	84.8	202	13.1	33	2.1	1,546	100.0
계	1,342	85.1	202	12.8	33	2.1	1,577	100.0

사적 영역의 댓글에서도 실명의 댓글보다는 익명의 댓글에서 좀더 높은 비방성을 보인다. 실명 댓글의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익명의 댓글에서는 13.1% 정도의 댓글에서 비방적인 내용이 발견된다. 실명 여부와 비방성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6] 사적 영역 댓글의 실명 여부와 비방성



3.4. 댓글의 비속성 조사 결과

비속성은 댓글에 비속어를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비속어는 ‘속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며, 속어는 “통상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의미한다. 언어 사용에서 비속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김동언(2006)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일상어가 비속어로 쓰이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어휘향을 설정한 바 있다. 댓글 조사를 위한 비속어 판단은 “어떤 대상을 알 잡아 보아 경멸적으로 쓰는 말(비하어)”이거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저주스러운 말(욕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속성은 비난이나 비방적인 댓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댓글에서의 비속성 여부는 댓글 문화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3.4.1. 들머리 사이트

들머리 사이트의 비속성은 16.2%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속어는 주로 비난이나 비방, 비판적인 글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비방성이 없는 경우에도 쓰일 때가 있다. 비속어가 들어 있는 댓글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제목 : 제목 : 멜라민 뿐이라... '중국제 공포' 전세제로 [12](〈네이버뉴스〉 198. 국제)
- ㄴ. 내용 : 세계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멜라민이 함유된 커피 크림, 분유, 반려동물 사료, 납 성분이 든 장난감, 방부제 소파까지. 끊임없는 중국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런 잦은 불량파동이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소비자에게 불안 심리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를 비롯 유럽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소파는 광둥성의 링크와이즈(Linkwise)사의 제품이다. 소파 제조 시 곰팡이 발생 억제를 위해 방부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알레르기성 발진과 감염을 일으켰다. 프랑스 수입판매업체 콩포라마(Conforama)사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소파회사에서는 방부제를 한 개씩만 사용하는데 반해 중국산은 품질 문제 때문에 10개의 독성 방부제를 넣었다”고 밝혔다. (중략) 저자는 가족과 함께 1년간의 중국제 보이콧을 시행했다. 결론은 '중국산 없이 살아가기'의 결과는 살기 어렵다는 것. 책에서 "중국 제품과 소비자와의 연관성이 너무 깊다" "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평가했다. 같은해 9월 MBC에서는 한미일 3개국 가정이 이 책의 실험을 한 달 동안 따라 보는 동명의 프로그램도 제작됐다. 방송은 중국제 없는 생활의 불편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가족원들은 중국제가 아닌 우산을 찾을 수 없어 비닐을 쓰고 외출하고, 신발이 없어 맨발로 외출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바지마저 중국산이어서 그 자리에서 바지도 벗어야 했다. 중국산 제품 없이는 1년이 아닌 하루도 살기 힘든 상황. 중국산 제품은 한국 등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의 이면에는 제품의 안정성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 생활에 깊게 연관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불안의 강도도 크다. 중국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그에 대한 규모나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뿐 아니라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입산 위해식품 864.5톤이 유통되었고 이 가운데 회수율은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ㄷ. 댓글

- micrommc 한국정부가 일본처럼 규제 많고 또 아무문제없다 맛좋으니 그냥 치먹으라 하면 당장 수백만명이 나올꺼다 너같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익만 보려는 자들도 같은 국민이라 생각하며 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09.26. 23:07 IP
- micrommc 그리고 일본 우익 자민당정권은 여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본 자민당 정권이 반미 친북 용공 친노 좌빨 정권이라서 그런가보지? ^^ 09.26. 23:09 IP
- tiee11 아 이런 뽕//신들은 데체 뭐하는 놈들이지...ㅋㅋㅋㅋ 신종알바인가 09.27. 03:05
- lagriffe1 거꾸로 돌아가는 10% 안에 드는 소수라 좋겠다. 공부를 그리 해 봐라. 씨바라. 09.27. 10:57 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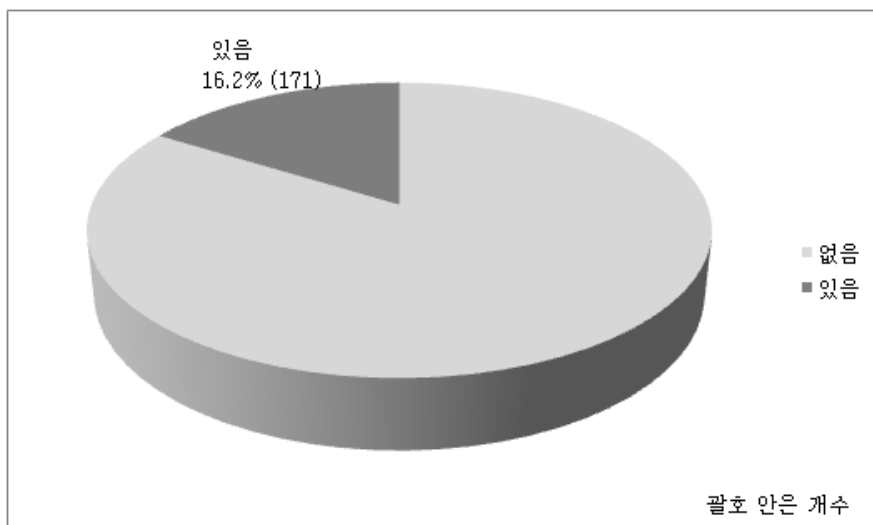
비속성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인격 무시나 모욕의 정도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알바’라는 표현은 비아냥거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비속어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들머리 사이트의 비속어는 김동언(2006)의 항목을 참고하여 명백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1]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비속성	개수	비율
없음	888	83.9
있음	171	16.2
총합계	1,059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7]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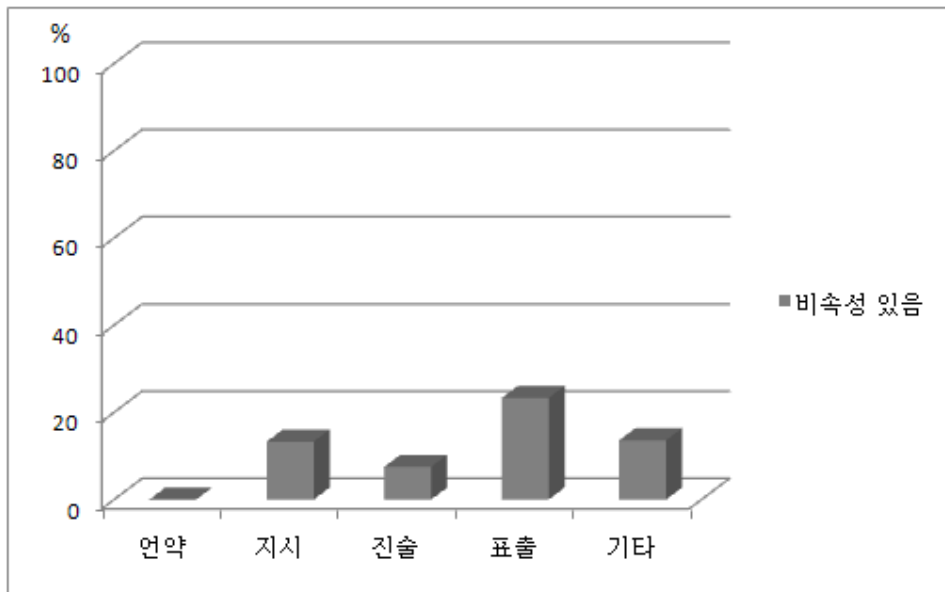
비속어 사용 여부는 댓글의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수행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표출적인 댓글과 지시적인 댓글에서 비속어 사용 비중이 높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2]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비속성 수행성	없음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언약	20	100.0	0	0.0	20	100.0
지시	209	86.7	32	13.3	241	100.0
진술	248	92.5	20	7.5	268	100.0
표출	373	76.8	113	23.3	486	100.0
기타	38	86.4	6	13.6	44	100.0
계	888	83.9	171	16.2	1,059	100.0

수행성과 비속성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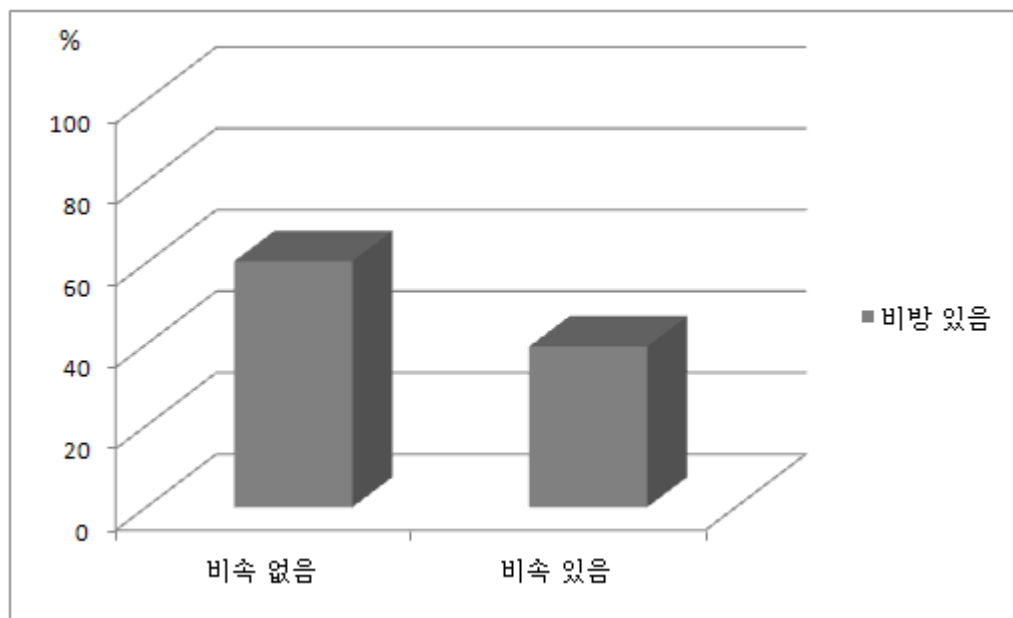
비속성과 비방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비방하는 글에서는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비방이 없는 글에도 비속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비방하는 글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방성과 비속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3]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비속성 비방성	없음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비방 없음	644	98.2	12	1.8	656	100.0
비방 있음	244	60.5	159	39.5	403	100.0
계	888	83.8	171	16.2	1059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들머리 사이트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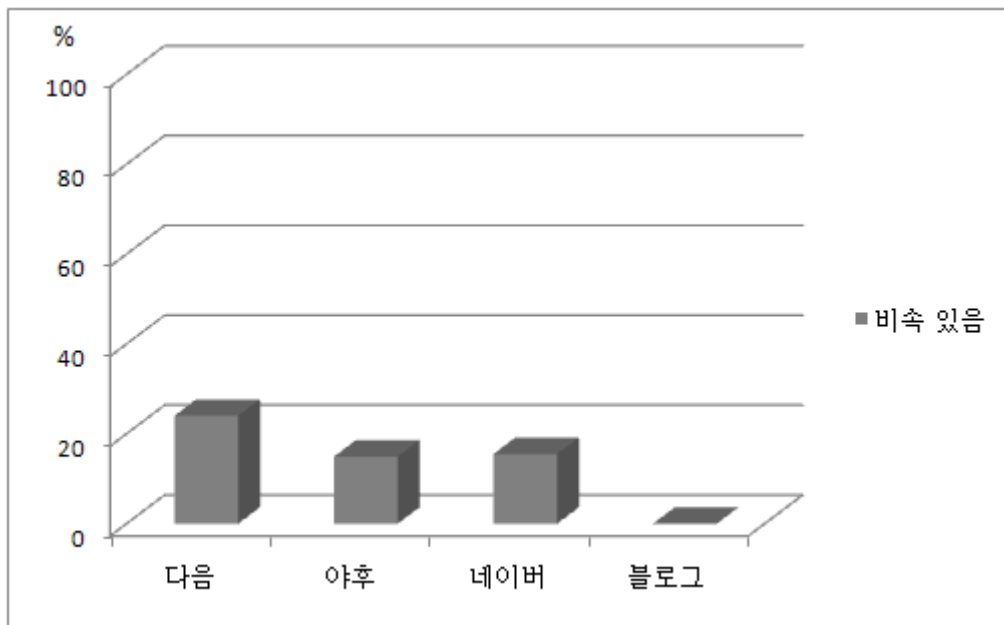
또한 사이트에 따라 비속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을 때, 들머리 사이트 대부분은 비슷한 비중의 비속성을 보이나, 개인 블로그의 경우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4] 들머리 사이트 공간별 비속성

출처 \ 비속성	없음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다음	348	76.0	110	24.0	458	100.0
야후	148	85.1	26	14.9	174	100.0
네이버	191	84.5	35	15.5	226	100.0
블로그	201	100.0	0	0.0	201	100.0
계	888	83.8	171	16.2	1,059	100.0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들머리 사이트 공간별 비속성



3.4.2.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 분과의 신문, 방송 댓글 가운데 20.0%의 댓글이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의 비속어의 특징은 특정인이나 집단을 비하하는 말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ㄱ. 제목 : DJ , 李정부 ‘잃어버린 10년’ 발언 연일 질타 (<동아일보4> 정치)

ㄴ. 내용 : 김 전 대통령과의 대담 전문은 오는 25일 출판하는 역사비평 가을호에 실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일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그 전에 한 걸 잃어버렸으니 다시 옛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위기의식이 생긴다"며 연일 현 정권의 '잃어버린 10년' 비판발언을 질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연한 KBS1TV '일요진단'에서도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근본적으로 원인은 이 정부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서 나온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잘 한 일이 많은데 이를 다 무시하는 것은 유신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력 비난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실시한 계간 '역사비평'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권위주의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거 민주주의 위기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헌과 관련,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헌 때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가지고 나갔다"며 "정·부통령제를 하게 되면 전라도, 경상도가 정부통령 후보를 하나씩 나누면 지역대립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여당이 전략상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일정의 직접민주주의적 경향이 있다"며 "지금까지 정치는 입법.행정.사법 3부가 이끌고 시민단체가 정치에 영향력을 줬는데, 이제 이런 촛불문화제가 범국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행사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목소리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잘 받아들여 국민들이 만족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ㄷ. 댓글

mtitochu 2008-08-12 16:06:13 : 無腦兒들 촛불 장난 덕분에 죽었다 살아나니 한마디 하시겠지요 이렇게 힘 줘 써놓아야 검찰이 손 못댈테니까!

보인다 2008-08-12 16:13:53 : 지금 6자회담이 왜열리고있는지? 대중씨는 전혀 감각이 없어서 정세균씨를 불러 지금도 뒤에서 연일 국가와 민족을 반역한것을 반성못하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가? 김정일이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소리를 듣고도 핵폭탄제조비용전액을 깃다바친 죄를 뉘우치지못하나? 서해안 참수리호 물에가라앉고 6명의 군인이 대중이떠중이갔은 정치때문에 죽고, 박광자. 금강산관광객 당신때문에 죽은 줄 아직도 이해가 안되나? 김대중 씨가 국가위해할수있는것은 지나간일은 어찌할수 없고 이제는 빨리죽는것이 국가위해 그나마 보탬이 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제 임시절 청문회를 열어 북괴에게 깃다바친 돈 조사하여 감방에 처넣어야한다.

zxuiom327 2008-08-12 16:14:21 : 아이그 이혈일없는 싸가지들아 어른이 맞는말 하면 수궁할줄쯤 알아라 쓰레기같은거들 같으니라고.....

dragon144 2008-08-12 16:42:28 : 으이그 요런 싸가지없는 개색기도 대중교도라고 짓는구나.대중이보다 더어른들이 말씀하실땐 니놈들은 뭐라고 욕지거리했냐?제대로된 말을 수궁해야지 개같은 헛소리에 수궁하는 너같은 머저리놈들 때문에 나라가 요فل로 계속 뒷걸음치고 세계에서 외톨이로 전략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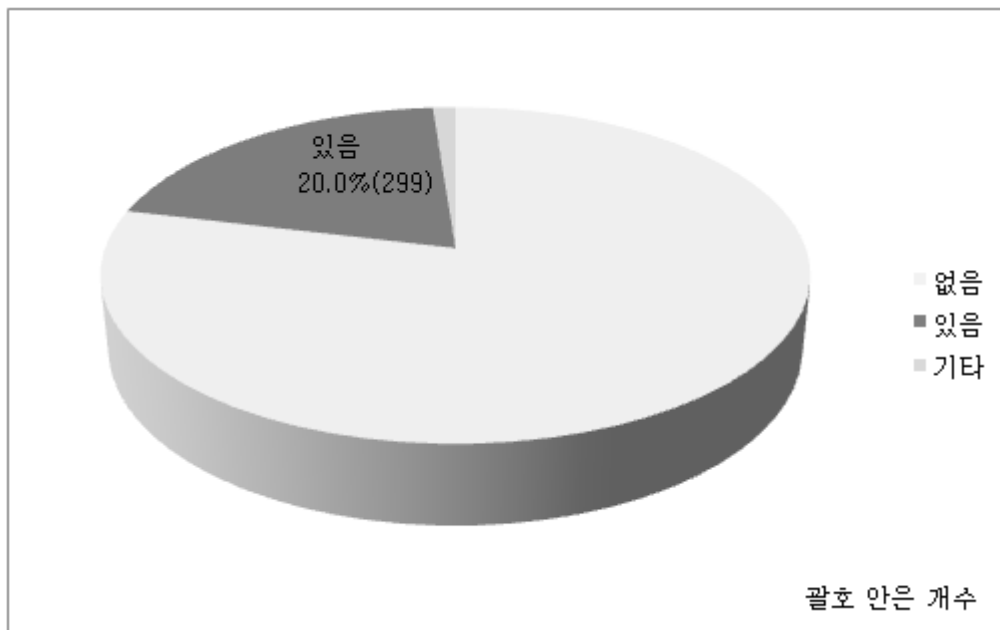
이 예문에 나타난 ‘무뇌아’, ‘대중이떠중이’, ‘싸가지’, ‘싸가지없는 개색기’, ‘짚는구나’, ‘니놈’, ‘머저리’ 등은 인터넷 언론 댓글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들이다.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5]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비속성	개수	비율
없음	1,176	78.8
있음	299	20.0
기타	18	1.2
계	1,493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4]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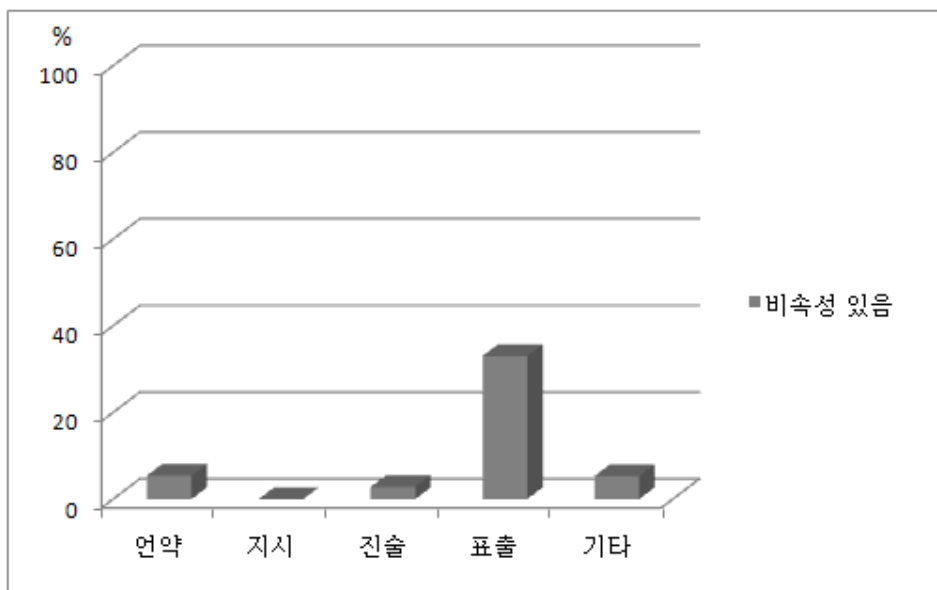
인터넷 언론 댓글에서도 수행성과 비속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언약이나 지시, 진술적인 댓글에 비해 표출적인 댓글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는 댓글 사용자가 자신의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배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행성과 비속성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수행성 \ 비속성	없음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언약	35	94.6	2	5.4	0	0.0	37	100.0
지시	43	100.0	0	0.0	0	0.0	43	100.0
진술	511	97.0	15	2.8	1	0.2	527	100.0
표출	568	67.0	280	33.0	0	0.0	848	100.0
기타	19	50.0	2	5.3	17	44.7	38	100.0
계	1,176	78.8	299	20.0	18	1.2	1,493	100.0

수행성과 비속성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6] 인터넷 언론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인터넷 언론 댓글에서도 비방성과 비속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주로 비방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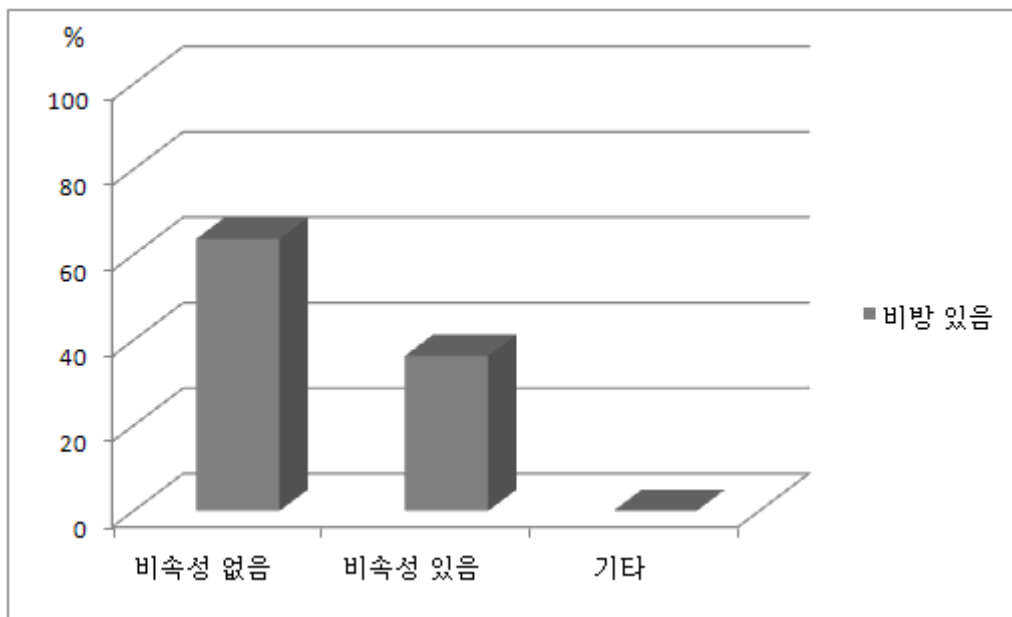
댓글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며(36.3%), 그렇지 않은 댓글에서는 비속어를 덜 사용한다(1.3%). 그러나 비방하는 댓글일지라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3.7%)가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36.3%)보다 높으므로, 비방하는 과정에서 비하하는 말이나 욕설을 사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7]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비속성 비방성	없음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비방 없음	667	98.7	9	1.3	0	0.0	676	100.0
비방 있음	509	63.7	290	36.3	0	0.0	799	100.0
기타	0	0.0	0	0.0	18	100.0	18	100.0
계	1,176	8.8	299	0.0	18	1.2	1,493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8] 인터넷 언론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비속성의 정도는 사이트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비방성이 높은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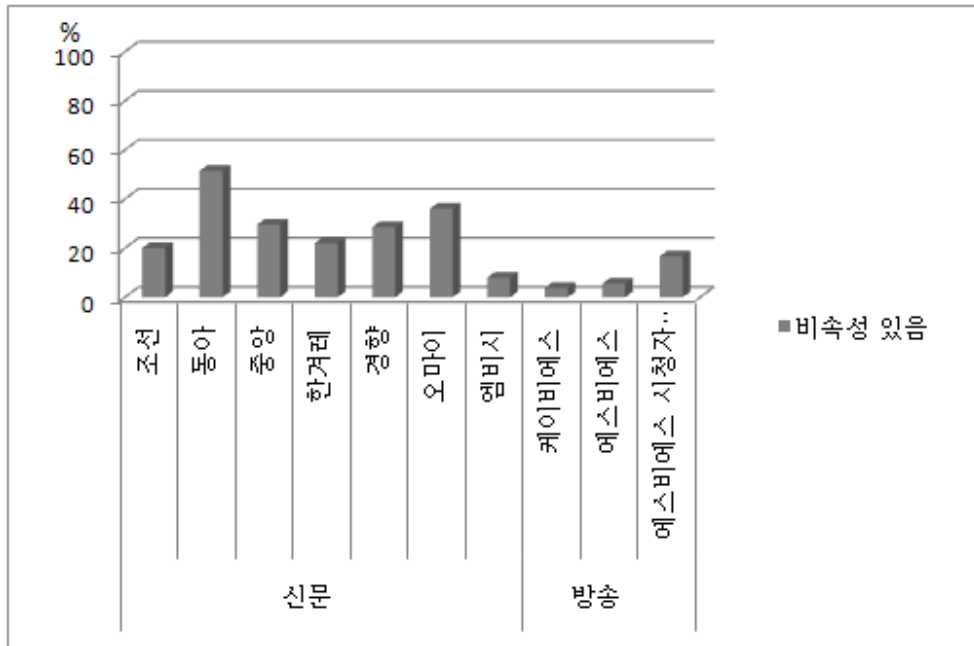
에서는 비속어 사용 비율도 높아진다. 그러나 비방성과 비속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문에서는 <동아일보>(51.5%), <오마이뉴스>(36.0%)가 다른 매체에 비하여 높은 비속성을 보였으며, 방송에서는 <에스비에스 시청자 의견>(16.7%)의 댓글이 다른 공간에 비하여 높은 비속성을 보였다. 특히 [표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스비에스 시청자 의견>은 비방성(36.6%)은 <엠비시>(44.0%)보다 낮으나 비속성(16.7% : 8.0%)은 훨씬 높다는 점에서 댓글 사용자의 언어 의식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드러낸다. 사이트별 비속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8] 인터넷 언론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비속성 출처		없음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신문	조선	119	78.9	30	20.1	0	0.0	149	100.0
	동아	80	48.5	85	51.5	0	0.0	165	100.0
	중앙	99	69.7	42	29.6	1	0.7	142	100.0
	한겨레	81	77.9	23	22.1	0	0.0	104	100.0
	경향	70	71.4	28	28.6	0	0.0	98	100.0
	오마이뉴스	63	63.0	36	36.0	1	1.0	100	100.0
방송	엠비시	241	91.6	21	8.0	1	0.4	263	100.0
	케이비에스	213	89.9	9	3.8	15	6.3	237	100.0
	에스비에스	120	94.5	7	5.5	0	0.0	127	100.0
	에스비에스 시청자 게시판	90	83.3	18	16.7	0	0.0	108	100.0
계		1,176	78.8	299	20.0	18	1.2	1,493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0] 인터넷 언론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3.4.3. 공공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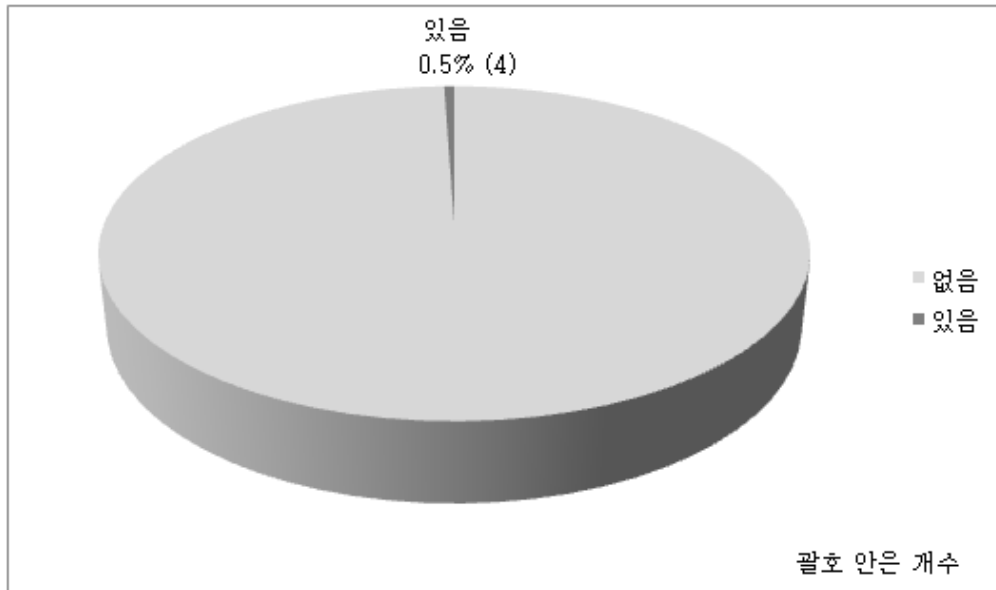
공공 기관 댓글에서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752개의 댓글 가운데 비속어를 포함한 경우는 4개에 불과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9] 공공 기관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비속성	개수	비율
없음	748	99.5
있음	4	0.5
총합계	752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공공 기관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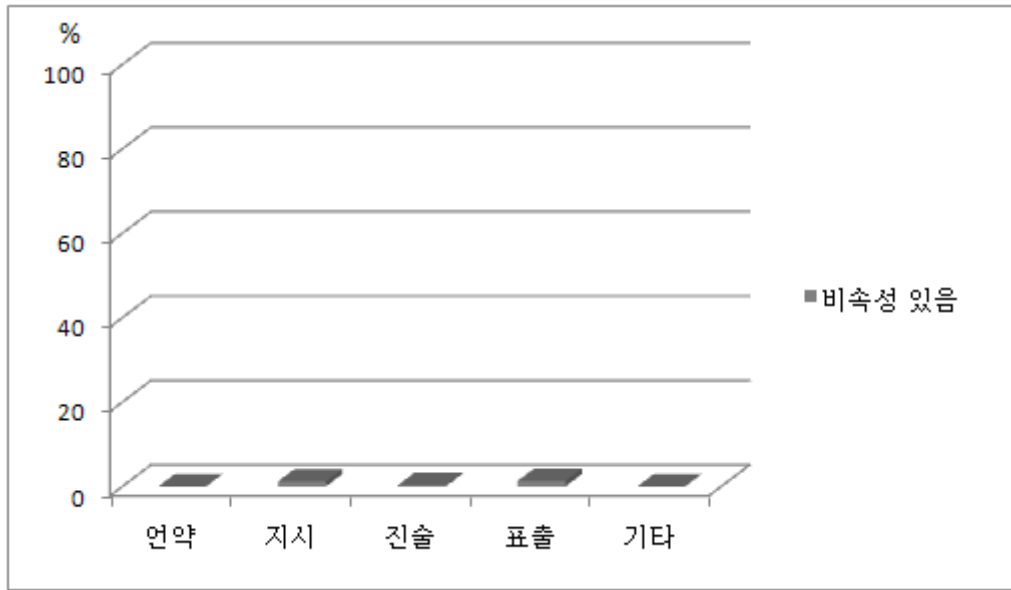
4개의 댓글을 수행성에 따라 분류하면, 진술 2개, 표출 1개, 지시 1개로 나타난다.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행성과 비속어 사용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0]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수행성 \ 비속성	없음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언약	4	100.0	0	0.0	4	100.0
지시	80	98.8	1	1.2	81	100.0
진술	587	99.7	2	0.3	589	100.0
표출	75	98.7	1	1.3	76	100.0
기타	2	100.0	0	0.0	2	100.0
계	748	99.5	4	0.5	752	100.0

비방성과의 관계에서는 4개의 댓글이 모두 비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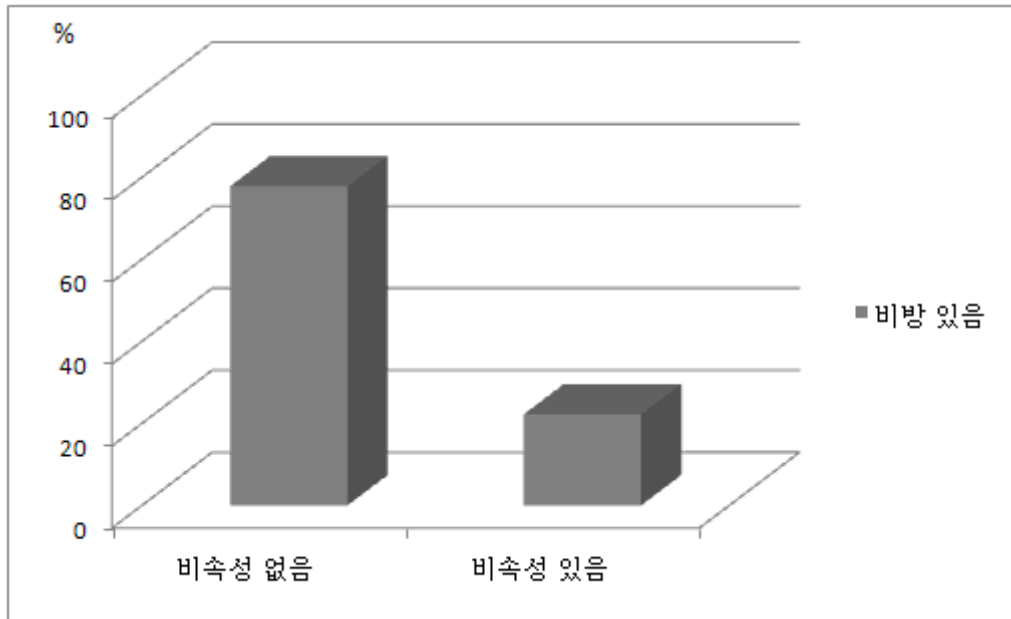
[그림 54] 공공 기관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표 71]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비속성 비방성	없음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비방 없음	734	100.0	0	0.0	734	100.0
비방 있음	14	77.8	4	22.2	18	100.0
계	748	99.5	4	0.5	752	100.0

[그림 55] 공공 기관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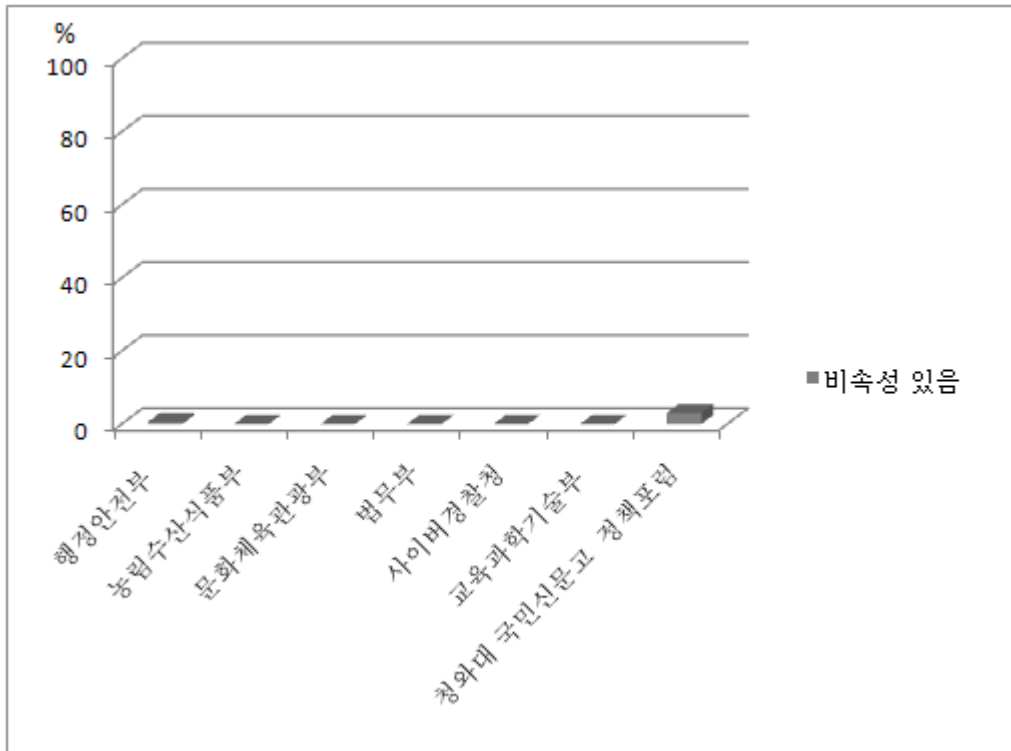


사이트에 따른 비방성에서는 <행정안전부> 2개, <청와대 국민신문고 정책 포럼> 2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공 기관 사이트의 특성상 비방이나 비난의 글을 올릴지라도 비하어와 욕설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표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2]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출처 \ 비속성	없음		있음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행정안전부	372	99.5	2	0.5	374	100.0
농림수산식품부	20	100.0	0	0.0	20	100.0
문화체육관광부	12	100.0	0	0.0	12	100.0
법무부	22	100.0	0	0.0	22	100.0
사이버경찰청	17	100.0	0	0.0	17	100.0
교육과학기술부	240	100.0	0	0.0	240	100.0
청와대 국민신문고 정책포럼	65	97.0	2	3.0	67	100.0
계	748	99.5	4	0.5	752	100.0

[그림 57] 공공 기관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3.4.4. 사적 영역

동호회와 카페 등의 댓글에서는 들머리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보다는 낮은 편이나 공공 기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특히 성인 중심의 정치 카페나 문화 교류 카페의 경우 게시물에 따라 비속어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 ㄱ. 제목 : 中 우주 유명, '조작설' 등 의혹 제기 2008-10-01 12:00:25(<디시인사이드10>, 국제)
- ㄴ. 내용 : 중국 역사상 최초의 우주 유명 성공으로 화제를 모았던 선저우(神舟) 7호를 둘러싸고 '조작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 27일에는 선장 자이즈강(翟志刚)이 자체 제작한 우주복 '페이텐(飛天)'을 입고 17분 동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국영방송인 CCTV가 해당 장면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자이즈강은 순식간에 '우주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미국의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 유튜브(YouTube)에

CCTV의 중계 화면이 공개되자 곧 네티즌들의 조작 의혹이 쏟아졌다. 중계 도중 우주인의 헬멧 부분에서 기포처럼 생긴 물질이 위로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된 것. 이는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동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기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화면이 수중에서 촬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봤던 우주 유명 장면과 비교해 자세가 지나치게 안정적이다', '오성홍기(중국의 국기)가 너무 잘 보이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의혹이 잇따랐다. 일부에선 중국이 멜라민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선저우 7호로 관심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선저우 7호가 발사되기도 전인 25일 낮, 27일 날짜로 "선저우 7호가 지구를 30바퀴 돌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다가 황급히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기사를 발견했던 네티즌들은 신화통신이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올리자 '우주 유명 장면이 정말 조작된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주를 떠다니는 이물질이 카메라에 포착됐을 가능성도 있다', '누군가 기포를 합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중국 최초의 우주 유명 성공을 둘러싸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권지현 carrie@dcinside.com 기자깁로그 : <http://gallog.dcinside.com/carrie>

ㄷ. 댓글

아와 : 썬1발 이게 다 이소연 때문이다. 08-10-01 12:30 220.89.51.46 x
 ㅋㅋㅋㅋ : 딱봐도 젓같은 자작이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ㅋㅋㅋㅋ 병진들 08-10-01 12:32 221.140.161.94 x
 CK9 : 아와 이 짱꼴라 시키들은 진짜. 별 해괴한 짓을 다 해대네. 08-10-01 12:35 163.180.116.83 x
 ㄹㄹ : 아무리봐도 물속은 아닌데 기포가 쭉 올라가니까 조낸 이상함 08-10-01 12:42 116.45.64.126 x
 스켈코알라 : 디씨 병신들 중에서 상병신들만 한다는 자작나무 태우기를 중국은 정부에서 하는 구나.. 역시 환타지랜드 답다. 코쟁이 새끼들은 아시아 하면 중국 일본 이정도 일텐데... 짱개들 아시아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구나. 역시 환타지랜드 답다. 08-10-01 12:49 222.119.104.47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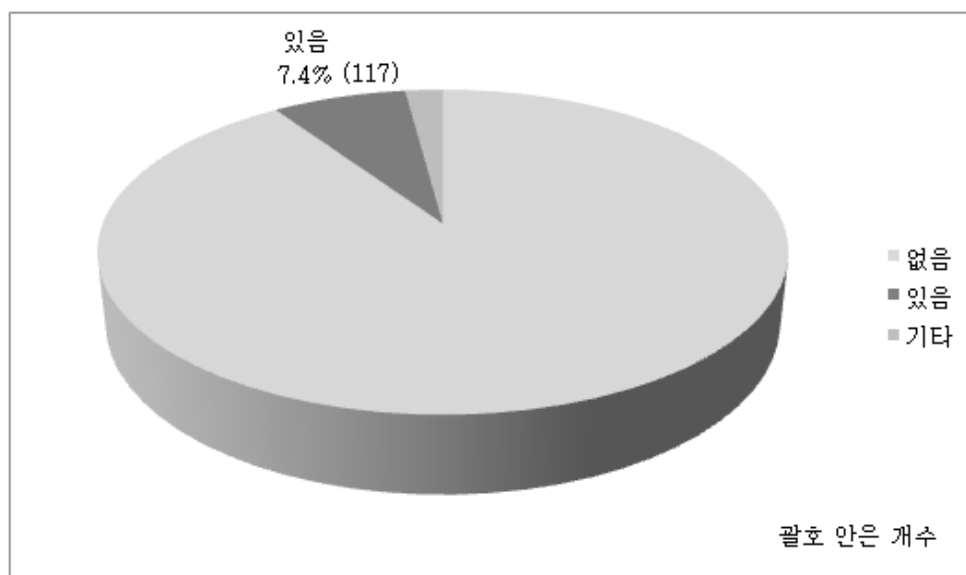
이 예문은 비속성이 가장 높은 사이트로 알려진 <디시인사이드>에서 채록한 것으로, 아이디 사용에도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댓글의 언어도 일상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댓글에 나타나는 비속어는 언어 규범 파괴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도 있다. 사적 영역의 비속성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3]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속어 사용 조사 결과

비속성	개수	비율
없음	1,427	90.5
있음	117	7.4
기타	33	2.1
계	1,577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8]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속어 사용 정도



수행성과 비속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적영역 댓글의 비속성은 표출(12.6%)과 진술(4.5%)의 댓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ㄱ. 표출 : 줄라무시해 ㅋㅋ 회사라서 쪼끄마케 해놓구 바서그래 쌍쌍바야 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뭐 하나 틀리기만해봐 아주그냥~ 확 !
 (<최강남녀> “[끄적끄적...]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더니....알려주세요” 게시물에 최강운
 영자조깅 아이디 댓글 08.09.30 18:32)
- ㄴ. 진술 : 어제 이기사가 지금에와써 떠오르건지? 이런 이야기가 수도없이 나왔는데요. 간첩
 에 좌빨 빨갱이 국가보안법까지등자..날로 재미가 있어지는 기사네여.다음은 무엇이 나올까

요? 무장공비? (<한류열풍사랑> “북 미사일기지 25개, 3~7분이면 남한 불바다” 게시물의 어루~ 아이디 댓글 8.09.26 1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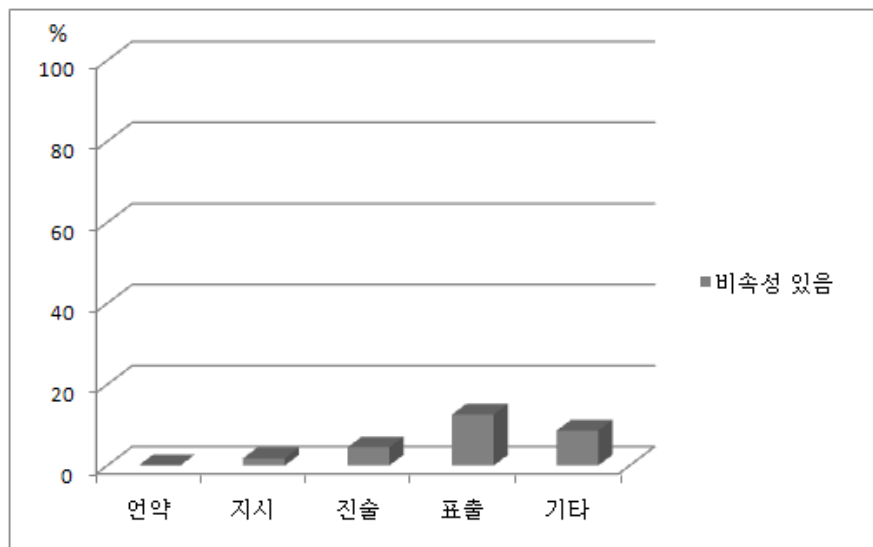
이 댓글에 나타나는 것처럼, ‘줄라’와 같이 자주 사용함으로써 비속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어휘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의 표현 텍스트에서 이러한 용어가 발견된다는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수행성과 비속성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4]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비속성 수행성	없음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언약	142	100.0	0	0.0	0	0.0	142	100.0
지시	167	98.2	3	1.8	0	0.0	170	100.0
진술	509	95.3	24	4.5	1	0.2	534	100.0
표출	574	85.3	85	12.6	14	2.1	673	100.0
기타	35	60.3	5	8.6	18	31.0	58	100.0
계	1,427	90.5	117	7.4	33	2.1	1,577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0]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수행성과 비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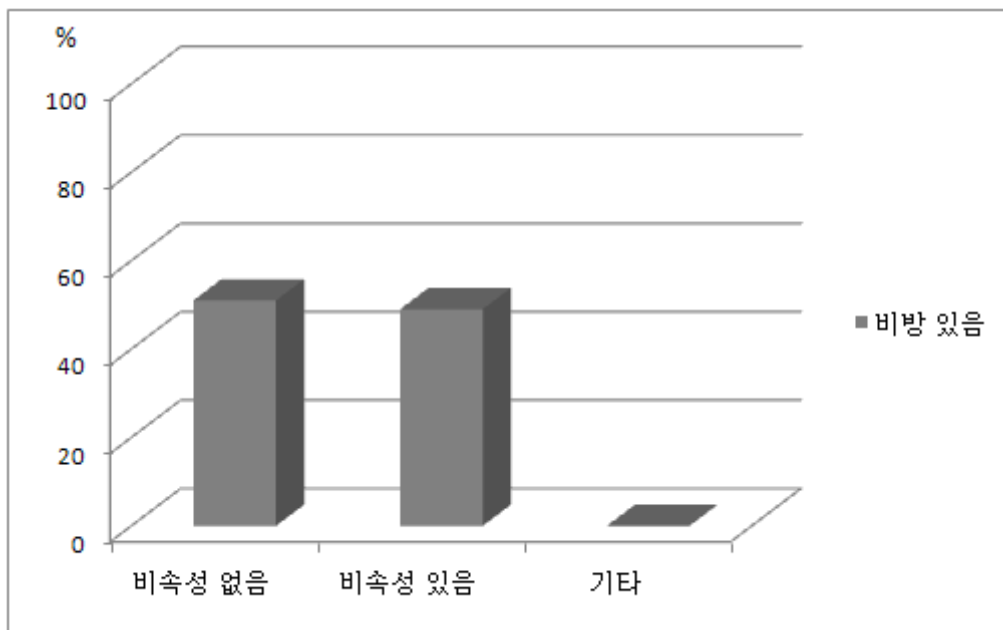
비속성이 비방성의 관계에서 두 개의 속성이 함께 나타나는 비율은, 비방성 없이 비속성만 나타나는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속적 표현은 글의 내용이 비방적일 때 더 많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5]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비속성 비방성	없음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비방 없음	1,324	98.7	18	1.3	0	0.0	1,342	100.0
비방 있음	103	51.0	99	49.0	0	0.0	202	100.0
기타	0	0.0	0	0.0	33	100.0	33	100.0
계	1,427	90.5	117	7.4	33	2.1	1,577	100.0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2]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비방성과 비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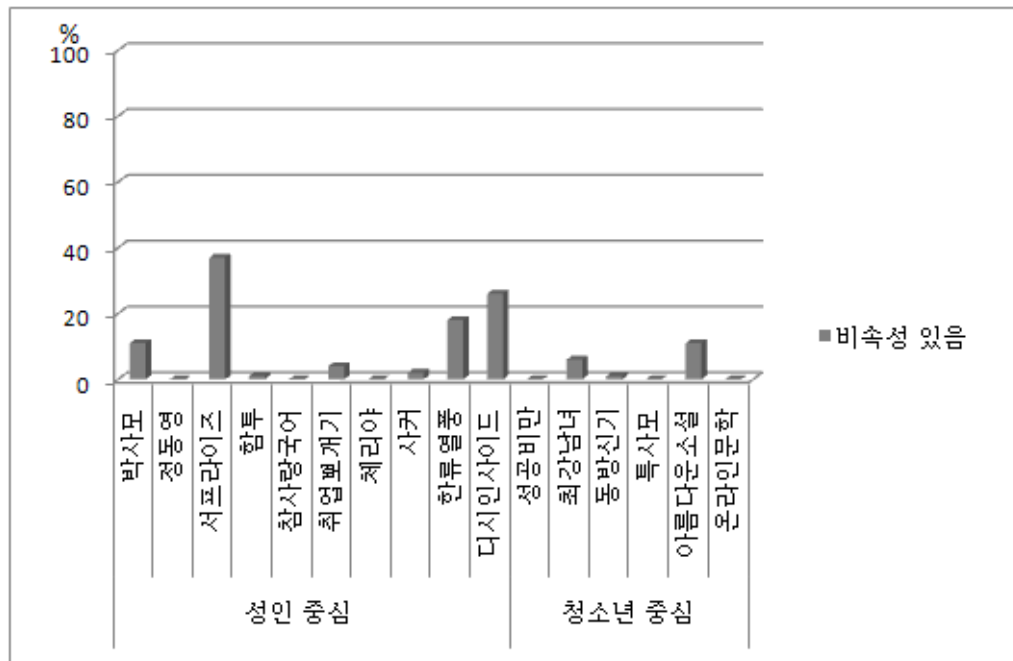
사적 영역 분과의 비속어 사용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사이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트의 취지와 목적, 운영자와 사용자 등에 따라 비속어 사용 경향이 달라진다. 조사 결과를 사이트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6]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출처 \ 비속성		없음		있음		기타		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성인 중심	박사모	89	89.0	11	11.0	0	0.0	100	100.0
	정동영	100	100.0	0	0.0	0	0.0	100	100.0
	서프라이즈	64	63.4	37	36.6	0	0.0	101	100.0
	함투	72	98.6	1	1.4	0	0.0	73	100.0
	참사랑국어	172	100.0	0	0.0	0	0.0	172	100.0
	취업뽕개기	154	96.3	4	2.5	2	1.2	160	100.0
	체리야	40	100.0	0	0.0	0	0.0	40	100.0
	사커	98	98.0	2	0.0	0	0.0	100	100.0
	한류열풍	84	78.5	18	16.8	5	4.7	107	100.0
	디시인사이드	75	72.8	26	25.2	2	1.9	103	100.0
청소년 중심	성공비만	107	100.0	0	0.0	0	0.0	107	100.0
	최강남녀	93	91.2	6	5.9	3	2.9	102	100.0
	동방신기	90	86.5	1	1.0	13	12.5	104	100.0
	특사모	86	97.7	0	0.0	2	2.3	88	100.0
	아름다운소설	83	83.0	11	11.0	6	6.0	100	100.0
	온라인문학	20	100.0	0	0.0	0	0.0	20	100.0
계		1,427	90.5	117	7.4	33	2.1	1577	100.0

사이트별로 보았을 때, <서프라이즈>(36.6%), <디시인사이드>(25.2%), <한류열풍>(16.8%)과 같이 성인 중심의 사이트가 청소년 중심의 사이트에 비해 비속어 사용 비중이 높고, <디시인사이드>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의 경우는 정치색이 짙은 사이트일수록 비속어 사용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4] 사적 영역 분과 댓글의 사이트별 비속성



Ⅲ. 댓글 언어 개선 방안

1. 댓글과 언어 변화

1.1. 통신 언어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서는 2363개의 통신 언어를 조사하여 음운, 어휘, 문법, 담화, 표기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통신 언어의 음운적인 특징은 ‘강화 현상’, ‘음운 교체’, ‘생략과 축약’, ‘첨가’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어휘적인 특징은 ‘비속어와 비하어’, ‘상징어’, ‘의미 변화’, ‘일본어와 외래어’, ‘신조어’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문법 형태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사(화)’,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담화의 차원에서는 관용 표현이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표기 및 규범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여 두드러진 특징만을 기술하고자 하였는데,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과 숫자, 기호, 한글 약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항목별 특징을 좀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적인 면에서는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언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표기일 뿐 아니라 언어의 유희적인 쓰임을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사끼, 쉼끼, 쉼끼’와 같은 비속어는 표기상의 변이가 매우 심한데, 이는 금칙어를 회피라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의 유희적인 사용은 ‘미국, 한국, 중국’ 등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어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댓글 사용자의 심리 표현 효과를 높이거나 음운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교스러운 표현이나 아이들 말을 흉내 내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생략, 축약 현상은 경제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하는 현상이며, 형태를 늘이거나 특정 음운을 첨가하여 강조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댓글 언어의 음운적인 특징은 통신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지속성을 갖는다.

둘째, 어휘적인 면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속어’와 ‘비하어’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속어의 특징은 표준형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을 보이는데, 신체의 일부나 사람의 속성 등을 비하하여 비속어를 만드는 경향이 높다. 비하어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으로 사회상을 반영한다. 댓글의 비하어 가운데는 대통령이나 정치인 비하어, 특정 국가 및 종교 비하어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비하어 생성 과정에서 ‘견찰(犬+검찰)’과 같이 의미의 연상을 고려한 합성어가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유희적인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일상어와 동일한 형태의 단어일지라도 댓글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팔수’, ‘썸다’, ‘잠수하다’ 등은 사전의 올림말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지만, 댓글에서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말들의 쓰임은 통신 공간으로부터 일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순화 대상이었던 일본어가 통신 공간에서 되살아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꼬봉, 모리배, 마루타’ 등과 같은 단어들은 일본의 대중문화의 영향이거나 일본과 관련을 맺는 영화 및 드라마의 영향으로 되살아나는 것들로 보인다. 서양 외래말의 급증도 댓글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어의 어휘를 대체함으로써 국어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알바(아르바이트에서 파생된 말로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의 댓글을 다는 사람)’, ‘논객(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글을 쓰는 사람)’ 등은 통신의 활성화에 따른 신조어이며, ‘کم’, ‘헨폰’ 등과 같이 줄임말이 굳어져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셋째, 문법적인 면에서는 비속어를 생산하는 ‘개-’, ‘-빠’ 등의 접사화 경향이 뚜렷하다. ‘개-’는 명사와 동사 앞에 붙어 다양한 어휘를 생산한다. ‘-빠’나 ‘-빨’은 명사에 붙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말을 생산한다. 또한 ‘-질’, ‘-스럽다’ 등의 접미사도 명사에 붙어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이러한 접사 또는 접사화되는 형태소의 증가는 댓글 언어의 비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와 어미의 변화도 두드러지는데, 방언형이 살아나는 것과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음운을 첨가하는 것, 음운을 교체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어미 ‘-당’, 조사 ‘염’, ‘욤’, ‘용’, ‘웃’ 등은 이에 해당한다.

넷째, 담화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이 증가하는데, ‘악의 화신’, ‘귀신 시중 들을 일’, ‘니나 ~하세요’, ‘생각대로 하면 되고’ 등과 같이 유행어, 광고 표현 등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햇별 전도사’, ‘엠병신(엠비시 방송국)’, ‘고무줄범’ 등과 같이 시사적인 표현을 반영하는 표현들도 두루 나타난다. 담화 차원에서 언어의 유희적인 사용도 사회를 반영한다. ‘너무 관심보살’, ‘대통령(떼대, 서럽게 울 통, 떨어질 령)’, ‘만사는 망사’ 등의 표현은 언어의 유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다섯째, 규범 및 표기의 경우는 매우 불규칙하여 유형화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규범에서는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서슴치’,

‘옴바르다’와 같은 표기는 규범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글에서 나타나는 경우이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는 규범 알기 여부를 떠나 유희적인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이다. 표기의 차원에서는 한글 약자나 그림문자(이모티콘)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특히 ‘ㅎㅈㅎ’, ‘ㅇㅈㅇ’, ‘ㄴ;’ 과 같이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문자가 사용된 점은 최근의 댓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처럼 댓글 언어는 기존의 조사에서 밝혀진 특징도 존재하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이러한 쓰임을 공간별로 분석해 보면, 들머리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 동호회와 카페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공공 기관의 댓글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상어와의 괴리감이 덜한 편이다.

1.2. 아이디 조사 결과

댓글의 아이디는 실명과 익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실명의 아이디는 일상의 이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익명의 아이디는 다양한 이름과 표현, 표기 방식이 존재한다. 표본으로 삼은 4881개의 댓글 가운데 실명의 아이디는 1098개였으며, 익명의 아이디는 3783개였다.

익명의 아이디는 명사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특정 기호나 구, 또는 문장 짜임새를 갖춘 것들도 매우 많다. ‘박토벤, 아행행, 해모수’ 등은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아이디이며, ‘컴맹, 김악플, 열공모드’ 등은 통신 언어로부터 생성된 신어 아이디라고 할 수 있다. ‘난닝구, 땡초, 멍청도’와 같은 비하어나 ‘나암마, 꼴통’ 등과 같은 비속어도 아이디로 사용된다. ‘빨난 엄마, 적극 보수, 러브 호텔’ 등과 같이 두 단어 이상의 구가 아이디로 쓰이기도 하며, ‘넘한 거 아냐, 말도 안 돼, 쥐를 잡자’ 등과 같이 문장 구조를 갖춘 아이디도 쓰인다.

아이디는 댓글 사용자의 또 다른 이름의 하나이므로, 아이디에 비친 댓글 사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신어와 유행어, 비속어와 비하어의 쓰임이 많은 까닭은 댓글 사용자의 댓글에 대한 책임 의식이 그만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댓글의 성격 분석

2.1. 수행성

일반적으로 댓글은 비판적 기능, 추가 정보 제공의 기능,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댓글의 독자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는 수행성을 조사한 결과, 댓글 가운데 43.0%는 표출적인 댓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출적인 댓글은 감사, 격려, 기쁨 등과 같은 댓글 사용자의 심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비난(전체 댓글에서 17.5%), 비방(2.8%), 분노와 불만(3.1%) 등의 부정적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분과별로 다소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진술이나 언약 또는 지시적인 댓글보다는 표출적인 댓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댓글의 주된 기능이 댓글 사용자의 심리나 감정, 의견 표출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비해 비판적인 댓글은 17.2%(전체 4877개 가운데 837개)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판적 기능이 댓글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수행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요인으로는 게시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나 경제, 일상생활, 스포츠와 연예 등과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는 표출적인 댓글이 많았고, 법률, 국제 분야 등과 같이 전문성이 강화된 게시물의 경우는 진술이나 지시적인 댓글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2.2. 높임법

댓글의 높임법은 댓글 사용자가 독자에 대하여 갖는 태도를 반영한다. 댓글에서는 ‘해체’의 안높임을 사용하는 비중이 42.1%(4877개의 댓글 가운데 2055개)를 차지하며, 26.2% 정도의 댓글은 비격식 높임인 ‘해요’체를 사용한다. 아주 높임에 해당하는 ‘하십시오체’는 공공 기관의 댓글(70.7%)에 많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는 27.1%를 차지한다.

댓글 텍스트의 문장은 여러 개로 구성될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문장마다 높임의 등급이 달라질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4.7%(226개)로 나타나는데, 주로 ‘해요’체가 ‘하십시오’나 ‘해’와 함께 쓰인다. 이처럼 높임의 등급이 뒤섞이는 까닭은 ‘해요’체가 비격식체이어서 아주 높임이나 안 높임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 비방성

댓글의 비방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성격 분석 대상 전체 댓글 4877개 가운데 1425개의 댓글에서 비방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29.2%의 댓글이 비방성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비방의 대상은 게시물 작성자, 게시물의 내용, 게시물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집단 등으로 나타난다.

댓글의 비방성은 사이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들머리 사이트와 인터넷 신문에서의 비방성이 높게 나타난다. 들머리 사이트의 비방성은 38.1%에 이르며, 다음 아고라의 비방성이 특히 높다. 인터넷 신문의 비방성은 70.6%에 이르며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비방성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인터넷 신문에서의 비방성이 높은 까닭은 게시물이 시사성을 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문과는 달리 실시간 뉴스를 전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조선일보>, <중앙일보>와는 달리 익명 아이디를 허용하고 있는데, 실명 여부와 비방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비방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수행성이 있다. 수행성을 기준으로 볼 때, 표출적인 댓글에서 비방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댓글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4. 비속성

댓글에서 비하어와 비속어를 사용하는 비중은 12.1%(전체 4877개 가운데 591개)에 이른다. 댓글의 비속어 사용 비중은 공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방성과 마찬가지로 들머리 사이트(16.2%와 인터넷 언론(20.0%)에서 두드러진다.

비속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댓글의 수행성, 비방성, 댓글 사용자의 연령 등이 있다. 수행성을 기준으로 할 때 비속성은 표출적인 댓글과 지식적인 댓글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방적인 댓글에서 비속어 사용 빈도가 높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청소년 중심의 사이트보다 성인 중심의 사이트에서 비속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성인들의 언어사용이 청소년보다 더 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위하여

3.1. 언어 사용과 댓글 문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통신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특정 게시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언어생활과 유사한 면을 띤다. 댓글의 언어는 불규칙적이며 비표준적이다. 이는 음운적, 어휘적, 문법적인 표준을 의식하지 않고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일상의 담화 상

황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기계의 힘을 빌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를 생산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언어가 일상 언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어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댓글 사용 실태 조사는 댓글 언어의 음운, 어휘, 문법, 담화, 표기상의 특징뿐만 아니라 댓글이 국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한 신조어의 출현,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 등은 댓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언 형태소가 되살아나거나 새로운 문법 형태소가 출현하는 것 등은 댓글이 국어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휘적인 면이나 표기의 차원을 고려할 때,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한 댓글 표현은 댓글 사용자의 국어 능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어의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댓글 사용자들의 언어 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국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2. 의사소통과 댓글 문화

댓글 실태 조사 결과 의사소통 차원에서 댓글의 주된 기능은 ‘표출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 메시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댓글 사용자는 화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표현하며, 댓글 독자는 독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해석한다.

댓글의 수행성, 높임법, 비방성, 비속성 조사는 댓글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댓글의 질적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선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댓글은 비판적 기능, 추가 정보 제공 기능, 오락적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표출적인 댓글의 비중이 높고, 독자에 대한 높임의 의향을 드러내지 않는 댓글이 많으며, 비방성이나 비속성이 높은 댓글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현재의 댓글 문화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댓글의 질은 통신 공간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른 면을 보였는데, 가장 이질적인 공간은 공공 기관 사이트였다. 공공 기관 사이트는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댓글의 비중이 높으며, 높임을 드러내는 댓글이 많다. 또한 비방적인 댓글이 적으며 비속어 사용 비중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공공 기관의 댓글이 일반적인 댓글의 지향점이 될 수 없는 까닭은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댓글 현상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댓글은 정보의 제공보다는 사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점에서 댓글은 공적 의사소통보다는 사적 의사소통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면성, 직접성이 떨어지는 댓글에서 댓글 사용자의 무분별한 표출 행위는 댓글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댓글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의사소통 양식과 표현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강미은(2001), 『
강상현(1996), 『
강희숙(2002), 『 10-1, 1-24, 한국사
회언어학회.
구본관(2001), 『
스트언어학회.
구현정(1997), 『
구현정(2002), 『
구현정 · 『
국립국어원 편(2007), 『
국립국어원(2005), 『
국립국어원(2005), 『
국어단체연합(2006), 『
권순희(2003), 『
111.
김덕호(2006), 『
김동언(2005), 『
김동언· (2000), 『 12 ,
김명옥(1993), 『
회지』 25 .
김명운(2006), 거취 사용의 성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 시론— !대소
설 작가 공선옥, 『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문용· (2003), 『 !족
문화연구』 38 .
김병철(2005), 『
김성규(2006), 『
김세중(2003), 『
김수진(2005), 『
김수현(2005), 『 4-1, 한국사회언어학

- 회.
- 김은미· (2006), 『 』 .
- 한국언론학회.
- 김은진(2004), 『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우(2006), 『 』 4-1, 한국사회언
어학회.
- 김주환 외(2001), 『 』 .
- 김주환(2007), 『 』 .
- 김태경· 『 』
14-2, .
- 김태식(2004), 『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렬(2005), 『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숙(1987), 『 — 』 동국대 박
사학위논문.
- 마이클 하임, (1997), 『 』 .
- 박경자(1997), 『 』 .
- 박동근(2008), 『 』 .
- 박영순(1976) , 『 』 3, 47-65, 국어국문
학회.
- 박용익(2001), 『 』 .
- 박용찬(2005), 『 』 .
- 박용환(2003), 『 』 .
- 박인기 외(2000), 『 』 .
- 백경녀(2001), 『 — 신언어 및 일상언어를 중심
으로-』 .
- 백경숙(2000) 「 『 』 -1, 한국사
회언어학회
- 변광섭(2005), 『 』 .
- 복거일(1998) 『 』 .

- 성동규(2006), 『
신기현(2004), 『 강원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란(2005), 『 건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2005), 『 — 2 , 대구 지역 학생을 대
상으로』 .
- 오영화(2003), 『
왕한석 외 6 (2005), 『
왕한석(2005), 『 }-1,
위르겐 하버마스, (1995), 『
유혜원(2004), 『
윤준수(1998), 『 :
이경민(2003), 『 조선대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재(1989), 『 —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상규(2004), 『 , 문화방송 우리말위원회
이석주 외(2002), 『
이선희(1996), 『 PC · 신 이용 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
- 이윤희(2004), 『 목
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2005), 『
이익섭(1994), 『
이정복 외(2006), 『
이정복(1992) 경어법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I·동 지역의 한 언어공동체를 대
상으로, 『 109,
이정복(2003), 『
이정복(2008), 『 }-1. 한국사회언
어학회.
- 이정복 · 『

연구 보고서, 『한글학회지』 2, 1994, 10월호, 10-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참고 자료] 댓글 조사를 위한 분과별 게시물 목록

[표 77] 댓글 조사를 위한 분과별 게시물 목록

들머리 사이트	일시	분과	출처	분야	제목	댓글 총수	채록 수
1	08.08.0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비이클 문명의 逆순환인가? `자전거 시대`의 도래를 보며..	96	10
2	08.08.0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 연예	오늘 핸드볼 못 이긴 이유	538	16
3	08.08.1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이런 부도덕한 정연주를 당신은 아직도 옹호하는가?	467	17
4	08.08.1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이명박 너를 반드시 우리가 심판 하겠다.	177	16
5	08.08.1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8.15광복)박근혜씨 이제 그만 하시죠.....	114	16
6	08.08.1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파키스탄인 강간범, "나는 강간할 권리가 있다"	18	12
7	08.08.2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법률	세상에 이런일이!~~~피해자가 없는데 2년째 재판?"	14	14
8	08.08.2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여성차별? 성과차별?	76	17
9	08.08.2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세계의 축제이자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허나 그내막에는 심판들	21	19
10	08.08.2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 연예	[태권도의 씩씩함] 감동이 없는 금메달...	725	19
11	08.08.2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문국현씨를 욕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419	18
12	08.08.24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 연예	소유진...다시 사과 할 필요 없습니다.	267	14
13	08.08.2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국제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의 일본해 표기	80	19
14	08.08.2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외환위기 막는 유일한 길은 부동산 거품 붕괴...	96	18
15	08.08.2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필리핀 사고 건이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는 이유..	310	13
16	08.08.2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외신들이 평가한 노무현 vs 이명박	351	19
17	08.08.3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언론	PD수첩의 이중성...뽕룩났다?	517	20
18	08.09.0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강만수 "9월 외환위기설, 걱정할 필요없다"	286	19

19	08.09.01.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미쇠고기전문점'에이미트',청주금천동에 딱걸렸네!	188	20
20	08.09.01.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종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이견 아닙니다.	254	19
21	08.09.01.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교육	범법집단 전교조를 해체하라.	141	19
22	08.09.02.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교육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포기한겁니까?	1312	19
23	08.09.02.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경제	한국 경제 `9월 위기설`? 잠 재울 비책이라도 있나..	312	20
24	08.09.02.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사회	음식재탕하는 식당들.. 안심할만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	91	20
25	08.09.02.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법률	양도세 인하는 부동산 폭락을 부른다.	108	20
26	08.09.03.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교육	세상에 이럴 수가 ! '교과부' 명칭 때문에 '교과서'를 새로인쇄	141	19
27	08.09.03.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경제	부동산, 주식등 팔수있는건 다팔아 현금화해라	44	13
28	08.09.04.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어청수 경찰총장 사퇴 환영!!	210	20
29	08.09.04.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국제	외국인노동자를 우리사회가 불러들었다고??? 우리사회 누구?	30	8
30	08.09.04.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유인촌 오늘 운 좋았는 줄 알아라!!!	96	17
31	08.09.05.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대단한사람들 ! 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 /경악할일이다!!!	184	15
32	08.09.05.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경제	살다살다...진짜별희안한정부를다본다....	195	9
33	08.09.05.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담배값 인상 10퍼센트 정말 웃기는일.....그따위거 *나갔다줘라	76	13
34	08.09.06.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문국현,김재윤 체포 동의안 무산에 대한 아고라인들의 입장은?	192	19
35	08.09.06.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사회	다시 권태로운창입니다.	152	18
36	08.09.06.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논현촛불 진압하던 경찰..일반 여자시민 성추행	197	20
37	08.09.07.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정치	김윤옥여사의 단일민족 포기발언을 강력비판하며..	337	19
38	08.09.07.	들머리 사이트	다음 토론	아고라	경제	18년전에 계약한 집.	162	20
39	08.09.07.	들머리	다음	아고라	교육	무한경쟁의 교육을 해야한다	162	14

		사이트	토론				
40	08.09.0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뉴욕증시선물폭등> 중환자가 몰핀주사 맞은 격	69	10
41	08.09.0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 연예	정선희가 잘못된건 생각안하고..헛소리들하네..	381	20
42	08.09.0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 강남.분당 아줌마들 미치네요 ...◆	85	14
43	08.09.0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美, 지난주 한국에 "곧 단행" 미리 알려.. 좀 어이없네요	128	19
44	08.09.0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사람이었으면 합니다~!!!		19
45	08.09.0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성매매방지법 만들어 재미보는 사람들!	50	12
46	08.09.1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스포츠/ 연예	한국 축구에 대해	224	19
47	08.09.1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솔직하게말해서..지금그렇게힘든가요?	336	18
48	08.09.1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예전에 노무현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	97	18
49	08.09.1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법률	26차 공판의 핵심인 농협 후원금에 대하여~~	44	11
50	08.09.1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교육	교과서 까지 뉴라이트가 점령하나	752	20
51	08.09.1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외평채 가산금리 소식	53	19
52	08.09.1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경악]오세훈시장 부인 2년동안 해외여행경비 3000만원소요	127	19
53	08.09.1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안재환 촛불 어찌구 하는 극우 꼴통 돌대갈들에게 한마디	127	20
54	08.09.1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언론	[명바칼되] 나경원.....100분 토론...에휴.....	119	11
55	08.09.1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 고개 숙인 어청장,지관이 용서할 차례?	235	20
56	08.09.1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명박퇴진] 최시중씨의 발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9	16
57	08.09.1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착각도 이런 착각이없군요.	270	20
58	08.09.1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내수가 얼마나 개박살인줄 아나...	64	14
59	08.09.14.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ASOZAN이 말한 일본식 한자의 근거	88	20
60	08.09.14.	들머리	다음 아고라	문화	위장서민들의 초호화 결혼식	65	10

		사이트	토론				
61	08.09.14.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아파트폭락을 넘어 가정의 파탄, 경제의 붕괴	41	12
62	08.09.1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고 안재환씨 죽은건 슬프지만 ...	161	18
63	08.09.1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교육	전교조는 가입현황 공개... 왜 반대합니까?	284	20
64	08.09.1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현장중계> 분당아파트 50평값이...	64	10
65	08.09.1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AIG 종신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193	20
66	08.09.1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전세 사는 사람 필독!!	48	13
67	08.09.1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경제방 여러분 지금의 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올지도 모릅니다,	58	18
68	08.09.17.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미국 금융업체 위기와 한미FTA	186	17
69	08.09.17.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안재환씨 처음엔 나도 자살인줄 알았다	84	13
70	08.09.17.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한우사랑]미국산 쇠고기 판매점... TT	17	13
71	08.09.1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명박퇴진] MBC 대통령 하야 지정 사실화..대박..	141	18
72	08.09.1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천민경제학창시자는 떠났지만	98	15
73	08.09.1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경기불황 주범은 부동산이다	20	10
74	08.09.1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현직경찰서장 불교계 훈계(?)성 글 기고...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4	20
75	08.09.1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오늘 RTC 발언 때문에 다우 막판 폭등했고 한국 증시반등인데..	60	20
76	08.09.1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난 노무현 대통령 그리 좋아하지 않는편인디	158	13
77	08.09.2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충격-한국 19세이하 학생 15%정신병?	24	11
78	08.09.2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리얼을 표방한 1박2일	26	11
79	08.09.2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국제	부시의 마지막 정책 미국이 망하는 길이다.	57	20
80	08.09.2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회칼테러 주범 밝혀지다.	156	15
81	08.09.21.	들머리	다음 아고라	경제	국내외 금융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106	12

		사이트	토론				
82	08.09.21.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언론	반디과조저등 몇몇 사람들의 여론조작을 보면서.	216	18
83	08.09.2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한나라당 제주 4.3항쟁이 좌익세력의 폭동, 이 무슨 망언인가?	896	14
84	08.09.2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명박퇴진]국민들, MB ‘잘한 일 없다’ 68%, ‘불안하다’ 71%	134	17
85	08.09.22.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명동 홍보단) 눈물로 호소 합니다..매국노 세상으로 갈건가?	122	12
86	08.09.2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서민입니다. 집 안습니다.	218	13
87	08.09.2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정선희 정신없는거 거짓이다!?	111	12
88	08.09.23.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명박퇴진] 내 웬만하면 글질 안하려고 했는데...★★	451	16
89	08.09.24.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지금 집 사신다는 분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200	20
90	08.09.24.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명박퇴진]피디수첩, 기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151	15
91	08.09.24.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과학	누가 황우석 박사를 사기꾼이라고 했는가?	50	14
92	08.09.2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속보>스페인 母子, 인간광우병 사망 확인	197	16
93	08.09.2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카드로 돌려막기하는 골드만삭스	65	10
94	08.09.25.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요새 이명박 보고 느끼는건데	69	19
95	08.09.2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점점 느는 불시검문, 경찰국가의 탄생의 전조인가??	780	13
96	08.09.2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진중권 "노무현 때가 좋았다. ㅠㅠ"	136	20
97	08.09.26.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법률	법무부-불법체류자 10%선으로 감축할것!	20	18
98	08.09.27.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kiko 다른 회사 이야기 인줄 알았습니다만...	66	14
99	08.09.27.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청와대 왈(?).....왈(?)	103	12
100	08.09.27.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교육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의 이유	31	20
101	08.09.2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대폭락한다. 증거를 보여줄까???	58	11
102	08.09.28.	들머리	다음 아고라	사회	그럼 정선희 협박용으로 안재환을	33	16

		사이트	토론		살해했다 라는건데...		
103	08.09.28.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	역겨운 그린스핀	26	20
104	08.09.2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국제	아킬레스를 건드린 러시아대통령의 한마디	143	18
105	08.09.2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멜라민파동-침묵하는 촛불,유모차부대들!	41	11
106	08.09.29.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국제	영어보조교사 대학 안나온 외국인(인도,파키,방글라)도 가능	26	15
107	08.09.3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정치	★멜라민에 침묵하는 친북 촛불세력!★	44	20
108	08.09.3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사회	▶ 회대의 정선회 II	38	13
109	08.09.30.	들머리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	국제	미일 종속외교를 떠나 러시아 외교를 감행한 이명박	158	16
110	08.08.08.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사회	미스코리아 누드화보 파문	163	20
111	08.08.21.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법률	'과격' 담배금지법 18대 재추진	245	19
112	08.09.05.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사회	국정원 휴대폰 감청 논란	11	10
113	08.09.09.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사회	강의석 발언 논란	41	19
114	08.09.12.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정치	그린벨트 해제 논란	20	18
115	08.09.17.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교육	초등학교 한자교육 실시...사교육 조장 논란	64	16
116	08.09.19.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사회	제2롯데월드 건설 허용되나	164	20
117	08.09.22.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사회	‘유모차 부대’ 수사 논란	81	20
118	08.09.22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정치	'햇볕정책' 개명요구 논란	51	15
119	08.09.24.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법률	종부세 상향조정 논란	121	20
120	08.09.26.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법률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65	19
121	08.09.26.	들머리 사이트	야후 핫이슈 네티즌 한표	국제	해적 피랍에 구축함 파견	135	14
122	09.08.0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지하철 6호선서 회뽀연 연기...승객 전원 대피 소동	16	12
123	08.08.02.	들머리	네이버 뉴스	정치	李대통령 지지율 16.5% 급락	106	13

		사이트			‘독도문제 영향’		
124	08.08.03.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스포츠/ 연예	효리 실연아픔 고백 “헤어진 남자친구와 산에서 마주쳐”	41	10
125	08.08.0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스포츠/ 연예	이승엽 완전 부활, 펜스 직격 2루타 등 3차례 타석 100% 출루	33	12
126	08.08.0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과학	"음악파일 불법 다운 이젠 받아들이자…P2P는 대세"	23	13
127	08.08.0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제	日 기자, 中서 취재 도중 구타당해	52	12
128	08.08.0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부산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숙박요금 여전	38	10
129	08.08.0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경기침체로 후원금 '뚝'…무료급식소 '힘겨운 여름'	139	15
130	08.08.0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강남·북 집값 격차 급감.. 강남 입성 기회?	13	10
131	08.08.0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MB 지지율 20%대 회복…바닥찍고 반등하나	28	10
132	08.08.0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정부, 가스료 인상폭 ‘딜레마’	12	10
133	08.08.0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제	北통신,美BGN지명표기오류비난	55	10
134	08.08.0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과학	지구온난화로 ‘에너지 절감 효과’?	71	12
135	08.08.0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촛불집회 100일..주말 집회 잇따라	59	10
136	08.08.1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제	러시아-그루지야 전쟁…3일 동안 2000명 사망	14	10
137	08.08.1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기름값 내리는데 유류할증료는 왜 올라?”	46	10
138	08.08.1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연예인 출연’ 2억 받은 前 KBS PD 구속	121	17
139	08.08.1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중국펀드, 올림픽 역효과에 '추락'	10	10
140	08.08.1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과학	휴대폰 3社 ‘터치폰’ 가격경쟁 재연?	19	10
141	08.08.13.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한, 거꾸로 태극기 응원' 문책론 제기>(종합)	15	10
142	08.08.1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2주째 파행	16	10
143	08.08.1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광복절 폭주족’ 93건 적발…14명 입건	153	10

144	08.08.1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스포츠/ 연예	브리트니, 잘자란 두 아들 사진 '공개'	62	10
145	08.08.1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靑, 내달중 `100대 프로젝트' 발표	23	10
146	08.08.1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고가아파트 시장도 강남.북 '희비'	17	10
147	08.08.1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스포츠/ 연예	결선 탈락 대만팀, "행운의 여신이 한국편을 들어줬다"	61	10
148	08.08.1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지적장애10대성폭행'인면수심가족'	142	10
149	08.08.1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매케인 "김정일은 약속안지켜 신용잃어"	16	10
150	08.08.2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교육	李대통령 "초중고생 1%이상 영재교육 확대"	727	13
151	08.08.2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다음, 추징금 40억원 내라"	111	16
152	08.08.2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이통업계 "투자는 아끼고 마케팅비는 평평"	15	10
153	08.08.2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에 `쓴소리'	29	10
154	08.08.2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원·달러1060원뚝뚝했다..3년8개월만에최고	90	10
155	08.08.2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촛불수사 정보 유출' 법원직원 영장 검토	22	10
156	08.08.2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서울 지하철 성범죄, 2호선이 절반"	82	13
157	08.08.23.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복사 못 하니… " 檢 난감	12	10
158	08.08.2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종교	여수시장, '종교편향 기고문' 사과	113	10
159	08.08.2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국방부 납품 청탁' 유한열 공범 추가 체포	10	10
160	08.08.2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교육	불황에도 사교육비는 늘었다	15	10
161	08.08.2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종교	개신교에 잇단 종교편향 '자성' 목소리	13	10
162	08.08.2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부산서 40대男, 중학교 찾아가 보복 폭행	19	10
163	08.08.3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李대통령 내달 韓中日 정상회담 참석<교도>	10	10
164	08.08.31.	들머리	네이버 뉴스	경제	'삶의 질' 지수 만든다	25	10

		사이트					
165	08.09.0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남은음식 사용하는 음식점 단속과 처벌 강화	16	10
166	08.09.0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생활	서울시 "기상청 못믿어"...자체 예보시스템 도입 검토	17	10
167	08.09.03.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과학	알약 기세에 안철수연구소 백신 아성 '흔들'	44	10
168	08.09.0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경포 피서객 '80만명'vs'10만명' 진실은?	43	10
169	08.09.0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설거지론'에 진실 묻힌 쇠고기 청문회	11	10
170	08.09.0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아고라 촛불집회' 주동자 소환조사	28	10
171	08.09.0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MB '올림픽 지지도' 다시 하락...20%대로 내려앉아	55	10
172	08.09.0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주가↑ 환율↓... 꼬리 내린 '9월 위기설'	117	14
173	08.09.0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부시 "나는 김정일을 혐오한다"	22	10
174	08.09.1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李대통령 "우리가 남이가?" 남북대화 강조	199	14
175	08.09.11.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생활	"업그레이드 불가" 내비게이션 '발동동'	74	10
176	08.09.1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송편 올릴 형편도... " 태안 '검은달'	128	10
177	08.09.13.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대체복무 찬성 44.3-반대 38.7%, 지난해와 정반대 여론	11	10
178	08.09.1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촛불집회 때 물대포 374대 동원"	440	15
179	08.09.1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생활	"200Km 넘는 과속차량 82%가 외제"	501	14
180	08.09.1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공무원 노총,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	11	10
181	08.09.1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시장 불신 키우는 정부 대응	12	10
182	08.09.1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청주서 병원 물리치료사가 환자 성추행(종합)	15	10
183	08.09.1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제	"잠자리 동침, 남성 뇌에는 독?"...<BBC>	12	10
184	08.09.2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제	中, '멜라민 분유' 파문 확산 저지에 총력	15	10
185	08.09.21.	들머리	네이버 뉴스	경제	北신문,李대통령개성공단발언비난	21	10

		사이트					
186	08.09.22.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이사람] “토익 980 안파사...슬픈 현실이죠”	891	10
187	08.09.23.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스포츠/ 연예	[TView]‘1박2일’ 또 흡연장면 논란	25	10
188	08.09.2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靑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74	10
189	08.09.24.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셋집 재개발’에 쫓겨다니는 서민들...뉴타운 ‘악순환’	10	10
190	08.09.2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서울대 교수들 `첼밥통' 깨졌다	61	19
191	08.09.25.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과학	멜라민 과자 섭취 문제 없나	39	12
192	08.09.2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법률	'사이버모욕죄' 놓고 또 소란	30	10
193	08.09.26.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국제	멜라민 뿐이라... '중국제 공포' 전세계로	12	10
194	08.09.2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정치	北신문"힘은미국독점물뭇돼"	48	14
195	08.09.27.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경제	"가을 이사철 맞아?" 서울 전세시장 '썰렁'	14	12
196	08.09.2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관제탑 없는 식품안전정책..반복되는 사고	17	10
197	08.09.28.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생활	서울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15	10
198	08.09.2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생활	"모유 먹으면 인지능력 향상"<英연구진>	11	10
199	08.09.29.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사회	'멜라민과동',개사료까지확산	87	13
200	08.09.30.	들머리 사이트	네이버 뉴스	과학	게임, '유희'가 아닌 '노동'이 되다	54	12
201	08.10.30.	개인블로그	http://happyray.com	문화	만돌린과 베이스의 만남	32	20
202	08.10.28.	개인블로그	http://happyray.com	문화	영원한 세기의 아이돌, 뉴키즈 온더 블락 콘서트 @ Madison Square Garden	54	20
203	08.10.29.	개인블로그	http://happyray.com	문화	읽은 책 찰막감상	36	20
204	08.10.25.	개인블로그	http://happyray.com	문화	환상적인 밤의 색채, 반 고흐 특별전 @ Moma	84	20
205	08.10.22.	개인블로그	http://happyray.com	문화	정열의 스페인! Falla's La vida breve	44	20
206	08.10.29.	개인블로그		생활	즐거운 블로그링~ 수다스럽다. >_<	110	20

207	08.10.25.	개인블로그		문화	사진, 세상을 엿보겠습니다.^^	83	20
208	08.10.24.	개인블로그		생활	희망. 희망. 희망.	111	20
209	08.10.23.	개인블로그		생활	가을..인사동밤거리를걸었습니다.	128	20
210	08.10.22.	개인블로그		생활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은 오리불고기 간단응용 요리 세가지^^		21
인터넷 언론	일시	분과	출처	분야	제목	댓글 총수	채록 수
1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경제	잠실주공5단지한달새1억'증발'	20	10
2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경제	'우상'과괴하는한국	15	13
3	08.08.02.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경제	부동산'압구정불패신화'도흔들	49	20
4	08.09.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경제	일본차파는데앞장서는대기업들	23	17
5	08.09.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경제	내집마련전략새로짜라	72	11
6	08.09.08.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교육	한국학원들,왜추수감사절에미국몰려갈까	23	17
7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국제	더타임스가뽑은`10대음모론'	20	18
8	08.09.06.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국제	베트남,인터넷떠도는중국침공설에발끈	29	19
9	08.08.06.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문화	평퍼짐한'아저씨양복'은그만!꼭맞아야맵 시난다	33	14
10	08.08.06.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문화	승례문복구현장서지하방커발견	11	10
11	08.08.02.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엄마가다해주마"...늘어나는'헬리콥터맘'	25	16
12	08.08.02.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지방MBC사장'연예기획사로비'받은단서 포착	24	18
12	08.08.02.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소방헬기탄도지사,7000여ℓ공중에'소모'	92	14
14	08.08.04.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시위여대생사망설'광고비일부빼돌려져"	166	12
15	08.08.04.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의경옷벗기고폭행했던용의자검거	68	20
16	08.08.04.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강의석"태환아너도군대가"논란	269	14
17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스포츠/ 연예	금메달후보장미란,포상금은쥐꼬리?	17	13
18	08.09.07.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스포츠/ 연예	이용대"전두환전대통령가슴에서틀썩강타" "아찔사연공개	40	13

19	08.09.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스포츠/연예	김구라, 日미즈노교수에 "만두나쳐먹어" 독설	111	19
20	08.09.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사회	[조선테스크]한의경의이상한'양심선언'	164	14
21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정치	김정일"음식못하는 여성은불합격"	57	13
22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정치	김윤옥여사와문제의사촌언니어떤사이?	51	14
23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정치	"노전대통령, 대선패배후유증으로반대"	83	17
24	08.08.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정치	김용태"청산가리발언'배우김민선, 처벌해야"	168	16
25	08.09.01.	인터넷언론	조선일보	정치	국정원, 이번주'2차물갈이'	37	20
26	08.08.05.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정치	신지호 “1원 한 장 받지 말고 ‘이명박 OUT’ 외쳐라”	115	20
27	08.08.06.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언론	정연주KBS사장“법적대응절차밟을것”	167	16
28	08.08.08.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언론	KBS이사회, 정연주사장해임제청안통과	32	18
29	08.08.11.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정치	李대통령, ‘정연주사장’해임	130	15
30	08.08.12.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정치	DJ, 李정부‘잃어버린10년’발언연일질타	148	17
31	08.08.15.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정치	盧전대통령“정연주배임, 해괴한논리”	135	14
32	08.08.15.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정치	“기필코이명박심판”민노총이석행위원장 육성녹음등장	109	17
33	08.08.21.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조기숙“촛불집회참가자, 선진국문화특징”	239	15
34	08.08.26.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종교	장경동목사불교비하발언불교계반발	175	18
35	08.08.27.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위장 탈북’ 직과 30대 여간첩 적발	112	17
36	08.08.28.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佛心들어라”전국대형사찰머스상경-범종 타종	119	14
37	08.08.3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軍침투간첩용의자50여명”	142	18
38	08.08.3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종교차별항의스님조계사서할복시도	316	20
39	08.08.3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정치	前대통령“민주당전국정당돼야”	118	14
40	08.09.01.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또궐기한佛心“정부결단내려야”	102	14

41	08.09.3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김동길“불교계시위배후밝혀야”글올려	78	14
42	08.09.03.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국제	10년만에고개든北붕괴론	108	14
43	08.09.04.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1인 시위’ 강의석 “박태환, 너도 군대 가”	147	13
44	08.09.06.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문화	김대중“쇠고기시위,민주주의아주큰희망”	456	10
45	08.09.06.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김지하시인“이명박정부의불교차별은헌법 파괴수준”	167	10
46	08.09.1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어청수경찰청장의‘막무가내’사과	156	11
47	08.09.11.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3개요구사항관철안되면지역범불교도대회 추석후열기로	107	10
48	08.09.2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경찰‘유모차부대’수사는란확산	238	18
49	08.09.22.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황우석배아줄기세포,호주특허등록될듯”	69	15
50	08.09.27.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압수수색,체포영장	117	11
51	08.09.30.	인터넷언론	동아일보	사회	강남대로출근길‘군대폐지’알몸쇼	105	12
52	08.09.24.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정치	풀려고 만났지만 더 꼬였다? 영수회담 징크스	12	12
53	08.09.24.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 “땅 짚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 선량들이 민주당 망쳐”	13	13
54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정치	‘아부지, 저 영삼이 왔습니더’	13	11
55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정치	39 (분권형) : 34 (내각제) : 25 (대통령제)개헌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 구조	48	20
56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사회	금감원 퇴직 간부 100명 중 92명 금융업계 재취업 ‘모럴 해저드’	11	10
57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사회	조폭, 신도사·유홍가 확산 따라 수도권 집중	15	14
58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경제	“원금 걱정 말라더니 80% 날려” “혼자 살며 모은 1억5000만원 넣었는데 ...”	31	17
59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종교	“어청수 청장 진퇴 더 얘기 말자고 조계종 부장 스님들과 말씀 나눠”	29	20
60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언론	KBS, 적자 279억에 1인당 경비는 작년 9200만원	23	19
61	08.09.23.	인터넷언론	중앙일보	과학	수암생명연구 `호주서 배아줄기세포 특허등록 확정`	44	18
62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대통령사돈’조석래회장,‘낮뜨거운MB감 싸기’	45	10
63	08.09.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경제	한국경제,불안한9월...‘위기설’다시고개든 다	21	10
64	08.09.02.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경제	정부“위기없다”큰소리치더니...오전까지’	17	10

					과장'·걱정너무해걱정'뒤늦게긴급대책회의소집우왕좌왕		
65	08.09.03.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경제	“정부 못 믿겠다”...‘셀 코리아’ 가속화	14	10
66	08.08.04.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국제	영국신문“인간광우병또다시유행할수도”	107	11
67	08.08.27.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국제	중국 유학생들, ‘한국인이 중국 배척하고 무시’	27	10
68	08.09.13.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국제	페일린“그루지야재침공펜러시아와전쟁”대테러전도적극적...인기는여전	13	10
69	08.08.23.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종교	‘천주교의친일’언제회개하려는가	57	12
70	08.09.06.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종교	관용에눈감은‘예수천국불신지옥’	45	10
71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한나라,비강남민심이반‘긴장’	48	11
72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사회	김윤옥씨와문제의사촌언니어떤사이	53	10
73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사회	이대통령부인김윤옥씨사촌‘30억공천사기’영장	37	10
74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사회	경찰‘춥수배자’체포에올인,‘민생’은뒷전	96	10
75	08.08.02.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사회	국방부‘홍보’덕분에...‘불온서적’판매불티나네	102	10
76	08.08.02.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사회	역사교사들‘뉴라이트역사관못듣겠다’	112	13
77	08.08.24.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스포츠/연예	금메달순간“숨이멈춰서아무생각도안나요”	127	10
78	08.09.09.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스포츠/연예	“안재환사채빚40억...정선회까지협박에시달렸다”	90	10
79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MB 폭 좁은 국정철학이 외교 난맥 불러’	158	10
80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청와대고집탓국회원구성협상결렬	237	10
81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민동석“최고기협상,미국이선물준것”	310	10
82	08.08.01.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한나라 “MB외교 첫승리”...민주 “호들갑 떨지 마라” 독도표기 원상회복 반응	149	10
83	08.08.04.	인터넷언론	한겨레신문	정치	‘호통치는’대통령...정치가사라졌다	106	10
84	08.08.06.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언론	정부‘방송장악’본격화...감사원,KBS이사	24	10

					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85	08.08.06.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언론	“자진사퇴”안 먹히자 ‘흠집 잡기’ 편법·무리수	20	10
86	08.08.05.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신공안 정국 ‘檢과 다른 법원	10	10
87	08.08.06.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경찰 ‘국민사냥’ 나섰나?... 연행자수 따라성 과 급	21	10
88	08.08.07.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언론	최시중 “내가 결정 않고 있는데...” 월권 발언 과문	62	10
89	08.09.02.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퇴진 압력 어청수 ‘항변의 법치’	109	10
90	08.09.02.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사회	김동길 “불교계 집단 시위 배후 밝혀야”	34	10
91	08.09.02.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사회	검·경 동시다발 ‘前 정권 사정’	73	10
92	08.09.03.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환원한다던 ‘MB 빌딩’ 어떻게 됐지?	133	10
93	08.09.03.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언론	KBS 평기자 “이병순 사장은 MB 정권의 독(毒)) 과실 일뿐”	126	10
94	08.08.05.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언론	정연주 KBS 사장 ‘올림픽 出禁’ 과문 감사원 ‘鄭 사장 해임 요구안’ 오늘 의결	67	10
95	08.08.02.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74세 할머니에게 뱀 밀고 30억이나 졌나	119	10
96	08.08.06.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이명박 정부 반년 만에 무너지는 ‘민주화 20년 ,	58	10
97	08.08.01.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김옥희씨, 靑·여당·노인회 뭉개 각 10억씩 요구”	141	10
98	08.08.01.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민동석 “최고기는 美가 한국에 준 선물”	312	10
99	08.09.01.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李 대통령 “옷 벗기려는 사람이 벗었다”... 햇 별 정책 냉소	174	10
100	08.09.01.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李 대통령, 시민사회 통제 이용 ‘거꾸로 법치’	62	10
101	08.09.02.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부유층 정책 집중” 비판 일자... 재탕·삼탕서 민층 대책 급조	23	10
102	08.09.03.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부유층에 혜택 집중... ‘富의 대물림’ 도쉬워져	49	10
103	08.09.03.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정치	靑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9월 위기설’ 불안 감 증폭	17	10
104	08.09.04.	인터넷언론	경향신문	교육	서울 교육청 ‘反 MB 교사 색출’ 과문	15	10
105	08.09.17.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경제	돈줄 마른 중소기업 “우린 거의 망했다” 줄도산 우려에도 정부·여당 “국내 기업 감당 할수 있다”	26	10

106	08.09.16.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경제	코스피·코스닥폭락,환율폭등미국발악재에 국내금융시장대혼란	14	10
107	08.09.03.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경제	외환위기설보다강만수가더무섭다	52	10
108	08.08.23.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스포츠/ 연예	‘퍼펙트 금메달’ 한국 야구, 신화를 쓰다	106	10
109	08.08.20.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스포츠/ 연예	메달리스트들, 베이징에 남아 문화체험?	274	10
110	08.08.20.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스포츠/ 연예	핸드볼이겨서이명박대통령께보답하라?	81	10
111	08.09.29.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교육	"국부 이승만 반대하면 다 공산주의"	25	10
112	08.09.02.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교육	교육청전자문서시스템이기도회홍보창구?	27	10
113	08.08.14.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교육	초등교과서에'일본동요'와'일본풍노래'가?	21	10
114	08.09.23.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정치	"당이강만수에게질질..." "위화감만조성"한 나라당의총,중부세개편반대론뱃발	68	10
115	08.09.17.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정치	청와대에'747공원'을?"저질블랙코미디"	49	10
116	08.09.09.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정치	어청수 청장 "김 추기경도 검문당한 적 있다"	57	10
119	08.10.01.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사회	확산되는멜라민파문,대책은?	44	20
120	08.09.23.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중부세 완화, 적절한가	232	15
121	08.09.17.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 경제는?	36	15
122	08.09.10.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언론	대기업? 신문의 방송 소유 논란	145	15
123	08.09.03.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경제위기설,실체는?	136	15
124	08.08.27.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이명박정부6개월,그미래는?	393	15
125	08.07.30.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언론	인터넷대책,여론통제인가	295	15
126	08.07.23.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과학	영리병원,의료선진화인가민영화인가	347	10
127	08.07.16.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국제	시험대오른실용외교	328	15
128	08.07.10.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춧불속한국경제,위기인가	1037	15
129	08.07.02.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사회	춧불,꺼야하나?켜야하나?	3848	15

130	08.06.24.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사회	촛불과인터넷,집단지성인가여론왜곡인가	2918	20
131	08.06.18.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이명박정부와촛불,어디로가나	5180	20
132	08.06.11.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	40484	30
133	08.06.04.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이명박정부100일, 정책은?민심은?	14204	30
134	08.05.27.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촛불정국,18대국회의활로는?	2090	20
135	08.05.22.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이명박정부석달,문제는?해법은?	2423	20
136	08.05.13.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국제	한미FTA비준논란	1361	20
137	08.05.06.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미국산쇠고기,안전한가	17084	30
138	08.04.30.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사회	친일논쟁!역사복원인가자해행위인가	634	20
139	08.04.23.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삼성사태,그본질과과장은	1212	20
140	08.04.16.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경제	뉴타운&혁신도시논란,그진실은?	264	15
141	08.04.10.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보수압승,18대국회는?	227	15
142	08.04.01.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18대총선전략,선대위원장에게듣는다	331	15
143	08.07.18.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종교	살인의기억-개종교육으로인한죽음	43	15
144	08.05.24.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종교	이시대에개종교육이말이되는가!	15	15
145	08.05.16.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국제	최근 쇠고기 파동으로 살펴보는 FTA 이후 발생가능한 문제들	15	15
146	08.05.08.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정치	** 7일 청문회 中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	75	20
147	08.05.08.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한줄참여)	국제	미드로보는소고기..미국정부에게..우리정 부에게...건강은...	23	20
148	08.09.14.	인터넷언론	MBC 백분토론 (100분토론클럽)	사회	바이크 고속도로 허용해야하는가?	10	10
149	08.10.04.	인터넷언론	MBC 뉴스 (네티즌)	사회	MBC 고위층 에게=비양심,부도덕한 김인태와 관련하여=	10	10
150	08.10.01.	인터넷언론	MBC 뉴스 (네티즌)	정치	노무현대통령만 깔 필요 있었나요?	14	14

151	08.09.23.	인터넷언론	MBC 뉴스 (뉴스데스크)	사회	[베스트리포트]'농산물 가공업'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12	12
152	08.09.12.	인터넷언론	MBC 시사교양 (시청자게시판)	언론	와.. 뻥이간다	18	10
153	08.09.12.	인터넷언론	MBC 시사교양 (시청자게시판)	사회	용팔이,테팔이..흠(판매원입니다!)디카.T. M	23	10
154	08.09.12.	인터넷언론	MBC 시사교양 (시청자게시판)	광고	네이버가격비교안하세요??	55	10
155	08.09.12.	인터넷언론	MBC 시사교양 (시청자게시판)	사회	★★불만제로당신을이영돈PD의소비자고 발에고발한다!★★	15	10
156	08.09.12.	인터넷언론	MBC 시사교양 (시청자게시판)	사회	그래도살만한세상이잖아요...	11	11
157	08.09.26.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법률	채연되는종합부동산세논란	10	10
158	08.09.05.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경제	2008감세안,우리경제에약인가?독인가?	18	15
159	08.08.30.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경제	공기업 민영화 논란	35	20
160	08.07.18.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국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전략적 대응책은?	14	10
161	08.07.12.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언론	인터넷규제강화,필요한가?	84	15
162	08.07.05.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정치	벼랑끝대치,정부와촛불	189	15
163	08.06.28.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정치	법질서확립인가,공안정국인가?	654	25
164	08.06.21.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언론	최고기정국과언론의공정성논란	120	20
165	08.06.14.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정치	인적·국정채신-어떻게해야하나?	30	20
166	08.06.06.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국제	최고기재협상,불가능한가?	97	20
167	08.06.01.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정치	이명박정부100일,민심수습해법은?	335	20
168	08.05.24.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정치	계속되는최고기논란,어떻게해야하나?	129	20
169	08.05.16.	인터넷언론	KBS 심야토론 (200자토론)	정치	이명박정부의"의사소통",무엇이문제인가	66	15
170	08.09.29.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교육	일제고사실시,찬성vs반대	10	10
171	08.07.21.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사회	대체복무제도입,찬성vs반대	23	10

172	08.07.17.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문화	개고기식용합법화논란,찬성vs반대	30	20
173	08.06.23.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사회	네티즌들의광고주압박운동,긍정vs부정	10	10
174	08.06.19.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국제	한미쇠고기추가협상,어떻게생각하십니까?	11	10
175	08.06.25.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정치	18대국회의선결과제는무엇인가?	16	10
176	08.05.26.	인터넷언론	KBS 열린토론 (투표하기)	사회	쇠고기관련촛불집회사법처리,찬성vs반대	31	18
177	08.09.22.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경제	정부, 그린벨트 해제해 주택 공급	27	20
178	08.09.22.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교육	국방·통일부 역사교과서 수정요구	10	10
179	08.09.16.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택시, 버스 전용차로 '운행 허용' 추진 논란	25	20
180	08.09.09.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아동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추진	63	20
181	08.08.29.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스포츠/ 연예	LPGA '영어 사용 의무화', 여러분의 의견은?	26	20
182	08.08.29.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백화점서틀버스'부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89	20
183	08.08.21.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경제	'8·21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	20
184	08.08.13.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8·15 특별사면, 여러분의 생각은?	89	20
185	08.08.07.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교육	교육감 직선제, 여러분 생각은?	42	20
186	08.07.22.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법률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169	20
187	08.07.14.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스포츠/ 연예	올림픽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확정	18	18
188	08.07.14.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차량 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4	20
189	08.07.07.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정치	총리 유임 등 정부 부처 소폭 개각, 여러분 의견은?	47	20
190	08.07.04.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종교계촛불집회참여,여러분의의견은?	254	20
191	08.06.27.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사회	'과격시위'vs'과잉진압'논란,어떻게생각하 십니까?	900	20
192	08.06.23.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국제	한미쇠고기추가협상,어떻게생각하십니까 ?	209	20

193	08.06.19.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정치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	20
194	08.10.25.	인터넷언론	KBS 뉴스 (이슈와 토론)	문화	마왕'이 만든 KBS스포츠 새 타이틀 음악 탄생!	35	20
195	08.09.28.	인터넷언론	KBS 뉴스	경제	발목 잡힌 '대체 에너지'	11	11
196	08.09.18.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문자토론)	스포츠/ 연예	연예인의사생활에대한알권리?	11	11
197	08.08.27.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문자토론)	정치	정부가불심을잡는유일한방법은?	14	14
198	08.05.21.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문자토론)	경제	제2롯데월드건설은필요한가?	10	10
199	08.07.08.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국제	미쇠고기추가협상	406	20
200	08.06.21.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정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304	20
201	08.06.02.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정치	미국산쇠고기재협상논란	315	20
202	08.05.08.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사회	광우병논란'증폭	119	20
203	08.05.06.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경제	삼성경영채신안발표	27	20
204	08.04.23.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사회	태아성별고지	46	20
205	08.04.10.	인터넷언론	SBS U포터뉴스 (이슈&토론)	교육	남교사할당제'재추진논란	69	20
206	08.09.25.	인터넷언론	SBS 드라마 (시청자게시판)	스포츠/ 연예	[OST]조성모-바람의화원주제곡	84	20
207	08.10.04.	인터넷언론	SBS 드라마 (시청자게시판)	스포츠/ 연예	문근영연기잘하면뭐하나??	16	16
208	08.10.03.	인터넷언론	SBS 드라마 (시청자게시판)	스포츠/ 연예	[시청소감] 정향과 신윤복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	14	14
209	08.09.16.	인터넷언론	SBS 드라마 (시청자게시판)	스포츠/ 연예	정마담강성연입니다...	50	20
210	08.09.29.	인터넷언론	SBS 드라마 (시청자게시판)	스포츠/ 연예	아~~정말성의없네——;;	22	20
211	08.08.02.	인터넷언론	SBS 토론 시시비비 (시청자 의견)	경제	맞는말은 노영훈연구원이 다했는데~	10	10
212	08.08.02.	인터넷언론	SBS 토론 시시비비	경제	노영훈연구원속이다시원하네	10	10

			(시청자 의견)				
213	08.06.28.	인터넷언론	SBS 토론 시시비비 (시청자 의견)	정치	오늘토론을보고무엇이안전하다는건쥐~~ 사람들도참~	13	10
214	08.06.28.	인터넷언론	SBS 토론 시시비비 (시청자 의견)	정치	좀비들보니답이없네	18	10
215	08.10.01.	인터넷언론	SBS 교양정보 (시청자 의견)	사회	네티즌들의가상판결해봅시다ㅋㅋ	10	10
216	08.09.02.	인터넷언론	SBS 교양정보 (시청자 의견)	사회	부모욕하지마다시한번말하지만	82	15
217	08.08.14.	인터넷언론	SBS 교양정보 (시청자 의견)	사회	니들이똥테어따감히뒤를캐는거야	14	10
218	08.07.20.	인터넷언론	SBS 교양정보 (시청자 의견)	사회	사기꾼이대접받는이상한나라	16	10
공공 기관	일시	분과	출처	분야	제목	댓글 총수	채록 수
1	01.07.03 ~12.3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도서,산간벽지의초고속망구축	52	10
2	01.07.20 ~08.0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심사에 관한 고시	20	10
3	02.06.14 ~08.3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온라인제임사전심의	11	10
4	03.11.23 ~12.12.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수렴	28	10
5	04.03.20. ~04.0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안) 의견수렴	1	1
6	04.03.22. ~04.0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견수렴	1	1
7	04.04.22. ~05.12.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견수렴	1	1
8	04.05.14. ~06.09.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의견수렴	5	5
9	04.08.06. ~08.3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의견수렴	1	1

10	04.10.22. ~11.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시스템감리기준개정(안)의견수렴	3	3
11	04.10.26. ~11.15.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2	2
12	05.01.18. ~05-02.0 7.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21	10
12	05.01.31. ~09.14.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수렴	21	10
14	05.03.17. ~03.26.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21	10
15	05.04.12. ~04.1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제도개선공청회	10	10
16	05.04.21. ~05.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수렴	21	10
17	05.05.04. ~06.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청소년	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21	10
18	05.05.16. ~05.23.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10
19	05.06.24. ~06.29.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스파이웨어기준(안)의견수렴	23	10
20	05.10.28 ~11.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12	10
21	05.10.28 ~11.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제2차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안)의견수렴	26	10
22	05.11.03 ~11.27.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유비쿼터스 서비스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행정 정보 보안 및 정보보호 전략	3	3
23	05.11.03 ~11.16.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행정DB표준화를위한의견수렴	1	1
24	05.11.07. ~12.07.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KR영문2단계도입방안에관한의견수렴	24	10

25	05.11.22. ~12.06.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안)에 관한의 견수렴	6	6
26	06.01.26. ~02.14.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2	2
27	06.02.03. ~02.2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광대역통합망(BcN)구축기본계획II	30	10
28	06.02.03. ~02.2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1	1
29	06.03.14. ~03.24.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2	2
30	06.04.12. ~05.03.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행정절차법중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청취	38	10
31	06.06.19. ~06.25.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22	10
32	06.06.30. ~07.1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
33	06.08.21. ~09.2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 공청회	14	10
34	06.09.07. ~09.26.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시스템감리기준안」 의견조회	23	10
35	06.09.22 ~10.02.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청취	2	2
36	06.10.12 ~11.02.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지식정보자원기본계획(안)의견수렴	28	10
37	06.10.20 ~11.23.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u-IT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의견 조회	4	4
38	06.10.26. ~11.15.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시간제근무제도 확대방안	1	1
39	06.11.07. ~11.27.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자공청회	23	10

40	06.11.30. ~12.19.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경기도 수원시등 4개시군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개정	1	1
41	06.11.30. ~12.19.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경기도 수원시등 4개시군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개정	1	1
42	06.12.01. ~12.2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1	1
43	06.12.05. ~12.3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행정처분 업무의 전산화 및 그 제도적 근거 규정을 위한의견수렴	8	8
44	06.12.06. ~12.13.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민친화적인 정부청사 건립에 의한 의견수렴	10	10
45	06.12.06. ~12.12.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지침	2	2
46	06.12.08. ~12.14.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423	10
47	06.12.13. ~12.25.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안) 의견 조회	10	10
48	07.02.23. ~03.14.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1
49	07.03.30. ~04.09.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1
50	07.04.20. ~05.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5	10
51	07.06.01. ~06.2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	2
52	07.06.01. ~06.2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새마을 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
53	07.06.01. ~06.2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
54	07.06.05. ~06.19.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6	6

55	07.06.05. ~06.25.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 의견수렴	20	10
56	07.06.08. ~06.2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3
57	07.06.21. ~07.1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정보시스템감리기준 해설서(안) 의견 조회	25	10
58	07.07.16. ~08.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과학/IT	P2P상의 불법, 유해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차단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2	2
59	07.07.21. ~07.27.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자공천회	5	5
60	07.08.21. ~09.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5
61	07.08.27. ~09.10.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사회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의견조회	1	1
62	07.09.12. ~09.1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1
63	07.09.12. ~09.1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10
64	07.10.01. ~10.08.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관련 행정자치부령 일관개정안 입법예고	96	10
65	08.05.02. ~05.2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2
66	08.05.02. ~05.22.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법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3	3
67	08.07.24. ~08.13.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1
68	08.08.21. ~09.01.	공공기관	행정안전부	정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1
69	07.07.03.	공공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사회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20	15

70	07.04.01.	공공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사회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5
71	05.09.20.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현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4	4
72	06.04.14.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	15세 이용가등급의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해도 되는가?	0	0
73	06.08.28.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	빌려보기 시스템이 부르는 만화계의 폐해.	0	0
74	07.04.18.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구(舊) 서울역사의 문화적 활용방안	6	6
75	07.07.02.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언론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수준 개선과 검증후 방영	0	0
76	07.07.16.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연예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매년 하느니 2년에 한번만	2	2
77	07.07.16.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해외자매도시온프라인활성화와다문화네트워크를연동한세계문화의통합한류화	0	0
78	05.10.24.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토론	12	12
79	05.12.13.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상습 정체 교차로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안	1	1
80	06.10.31.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사행행위 및 도박의 범위	0	0
81	07.05.28.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이륜자동차 문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 해봅시다.	0	0
82	07.09.25.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개선안	0	0
83	07.10.01.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조사권과 기소권의 통합이 국민의 고충을 줄이고 정의 사회의 지름길.	1	1
84	08.07.12.	공공기관	사이버경찰청	사회	방법조소 설립(안)	4	4
85	07.05.01.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법률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	0
86	07.05.17.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행정소송법 개정안 전자공청회 개최	0	0
87	07.06.07.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1
88	07.06.21.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2	2
89	07.07.05.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0
90	07.07.18.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0
91	07.08.22.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
92	07.08.27.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국가배상법시행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2

93	07.11.08.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0	0
94	07.11.20.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국적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95	07.11.21.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	0	0
96	07.12.05.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공증인법 개정 전자공청회	1	1
97	08.01.07.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98	08.01.17.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99	08.02.20.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
100	08.04.23.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	5
101	08.06.03.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0
102	08.06.10.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과 항공운송편 제정 전자공청회	0	0
103	08.06.10.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전자공청회	7	7
104	08.07.09.	공공기관	법무부	법률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05	06.07.0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1	1
106	06.07.2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업" 명칭 변경 공청회	2	2
107	06.09.1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5	5
108	06.09.0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98	15
109	06.11.0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 제 2006.10.6호	2	2
110	06.11.10.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제개편 제4차 토론회 : 9월 학기제 도입은 필요한가?	1	1
111	06.12.1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7	7
112	06.12.2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1
113	06.12.2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1

114	06.12.2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2
115	07.01.0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6
116	07.01.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	2
117	07.01.2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20
118	07.02.0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3
119	07.03.2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재입법예고	1	1
120	07.07.09.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6	6
121	07.07.25.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2	2
122	07.08.0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5	5
123	07.08.0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1
124	07.08.0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	2
125	07.08.0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36	20
126	07.08.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20
127	07.08.1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3	3
128	07.09.0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1
129	07.09.0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10	10
130	07.09.10.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11
131	07.12.0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	1
132	07.12.1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평생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0	20
133	08.01.0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예고	2	2
134	08.01.1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2
135	08.02.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94	20
136	08.07.2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112	20

137	08.08.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5	5
138	08.09.19.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13	13
139	06.06.2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0	0
140	06.06.29.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0	0
141	06.07.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0	0
142	06.08.1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2008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행정예고	0	0
143	06.08.1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0
144	06.08.25.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0
145	06.09.0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46	06.09.1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0
147	06.09.1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48	06.09.2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제개편 2차 토론회 : 미래의 인적자원개발과 학교교육체제	0	0
149	06.09.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0	0
150	06.09.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0	0
151	06.09.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0	0
152	06.09.2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법학적성시험기초연구결과발표공청회	0	0
153	06.10.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	0
154	06.10.1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급식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0	0
155	06.10.1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56	06.10.1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제개편 제3차 토론회 : 미래의 교육비전과 학교교육과정 체제	0	0
157	06.10.2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0
158	06.10.2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0	0
159	06.10.24.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0	0
160	06.10.3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0	0

161	06.11.0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자율선택에따른국립대학법인화를위한공청회	0	0
162	06.11.2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제개편 5차 토론회 : 유아교육 공교육화	0	0
163	06.11.2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0	0
164	06.11.2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65	06.12.0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안 입법예고	0	0
166	06.12.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제6차학제개편토론회:학제개편의향후방 향과로드맵탐색	0	0
167	06.12.15.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일부 개정령안	0	0
168	06.12.1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0	0
169	07.01.10.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0	0
170	07.01.15.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0	0
171	07.01.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포항시 평준화 지역 지정 관련	0	0
172	07.01.2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전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0	0
173	07.01.3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74	07.02.0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0
175	07.02.20.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유아교육법시행규칙재입법예고(안)	0	0
176	07.02.2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입법 예고	0	0
177	07.03.0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78	07.03.0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79	07.03.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안	0	0
180	07.04.19.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0	0
181	07.05.1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82	07.08.0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	0	0

183	07.09.1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0	0
184	07.11.0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85	07.11.0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0	0
186	07.11.0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87	07.11.12.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0
188	07.11.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0
189	07.11.15.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단기산업교육기관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90	07.11.1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0	0
191	07.11.30.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0	0
192	07.12.06.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93	07.12.2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0
194	07.01.15.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0
195	08.01.2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사료의 수집 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0	0
196	08.02.1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0
197	08.03.0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환경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0	0
198	08.03.07.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199	08.05.08.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안)입법예 고	0	0
200	08.05.23.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 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 원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0
201	08.08.01.	공공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0	0
202	08.09.23. ~10.13.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법률	특허 등록령 등 8개 법령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	1	1

			전자공청회				
203	08.09.29. ~10.20.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1
204	08.09.19. ~09.29.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시행 령안 입법예고	13	13
205	08.09.12. ~10.02.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	1
206	08.09.04. ~09.23.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3
207	08.09.1~ 09.22.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	5
208	08.08.25. ~09.16.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1
209	08.08.25. ~9.16.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1
210	08.09.29. ~10.08.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계약이행능력평가 및등급화운용기준(안)	1	1
211	08.09.16 ~09.30.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효율적인 체납세정리방안	3	3
212	08.09.02 ~09.08.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적극 찬성합니다.	12	12
213	08.07.12. ~09.10.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방법초소 설립(안)	4	4
214	08.08.07. ~09.15.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해묵은 간통죄 논란.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1	1
215	08.07.29. ~09.07.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 수렴)	10	10
216	08.07.24.	공공기관	청와대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11

	~08.13.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17	08.08.14. ~09.03.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
218	08.07.29. ~09.07.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 수렴)	11	11
219	08.07.24. ~08.13.	공공기관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7	7
사적 영역	일시	분과	출처	분야	제목	댓글 총수	채록 수
1	08.10.05.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본인의 댓글을 다시읽고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30	30
2	08.10.05.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벼리조아님께	22	22
3	08.10.05.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Re:회원 여러분 속지맙시다! 위호(339046호11:05 등록. 삭제함. 339048호)에 대한 반박	44	44
4	08.09.27.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좌파 대법원장이 박근혜의원에게?	16	16
5	08.09.25.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종부세 없애자는 국회의원 리스트를 만들자 --인용글입니다.	22	22
6	08.09.24.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박근혜 동생 박근령씨,	20	20
7	08.09.22.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박근혜는지금'열공'모드>	20	20
8	08.09.19.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박사모, 이제는 제발 피임 좀 하고 살자,	34	34
9	08.09.19.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지지모임-다음 카페)	정치	부패한자는 좌우파 모두의 적..공공의 적=인류공통~~~	10	10
10	08.09.19.	사적영역	박사모(박근혜	정치	좌파 냄새나는 글쓴이들 보면,,,	15	15

			지지도임-다음 카페)				
11	08.08.28.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갈라치기 "2	14	14
12	08.08.25.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노무현 대통령과 DY는 다릅니다	15	15
12	08.08.25.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DY의정치적좌우명	16	16
14	08.08.18.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정통이 눈부시게 발전하려면.....	19	19
15	08.08.19.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보고드립니다.	15	15
16	08.08.14.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노신의 단상	16	16
17	08.08.14.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자유인,멘토,독도사랑(님)께 자봉신청 합니다!!	24	24
18	08.08.02.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제안]네이버폰 대화 & 토론회	17	17
19	08.07.29.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흑과 백,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29	29
20	08.09.28.	사적영역	정동영과통하는 사람들	정치	예고, 힘들어라...	16	16
21	08.09.26.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치위기	25	25
22	08.09.15.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과학	KBS1 TV 구당김남수옹의 침뚫이야기를 보고	13	13
23	08.08.01.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미국이 독도 원상회복을 한 이유는?	10	10
24	08.08.02.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민족의 원수 히로이토에 대가리 조아린 놈들	12	12
25	08.08.03.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무기상 사칭한 짝퉁무기상3 중공조족이 동포라고?	13	13
26	08.08.03.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정치	올림픽 전에 한국인은 중국을 떠나라” 위기	21	21

			서프라이즈				
27	08.08.04.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경제	'하루별이일감'도없다	12	12
28	08.08.05.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한국의 반미와 주변국의 득실	12	12
29	08.08.06.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국제	독도문제에 대한 본질	23	23
30	08.08.09.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사회	[펌]동남아,서남이인들 때문에 해운대 가기 무서워요ㅠㅠ	11	11
31	08.08.14.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리명박을 언제 바꾸면 경제적인가?	17	17
32	08.08.19.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북한의 도발? 유신독재를 획책하는가?	12	12
33	08.08.23.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문화	“毛澤東이모택동이지왜마오쩌둥인가”	11	11
34	08.08.24.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국제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	11	11
35	08.08.25.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박쥐노빠들에게 직격탄	15	15
36	08.08.26.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호금도가 왜 한국에 왔을까??	18	18
37	08.09.04.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식량 지원하면 북한이 사료로 쓴다던 북빠들 다 어디갔냐...	15	15
38	08.09.06.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정치	다문화는 반민족, 반통일 지랄이다 !!	11	11
39	08.09.20.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서프라이즈	종교	기독교가 싫지만 논쟁이 싫으시다구요? 이걸 써보세요.	12	12
40	08.09.26.	사적영역	정치포탈 칼럼 뉴스	정치	역사로 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4	24

			서프라이즈				
41	08.09.25.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신경쓰이네요.. 코멘트 해주실분 계신가요??	12	12
42	08.08.22.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정신나간 제 자신 이제 앞이 막막하네요 1450투자 현재 330 잔고	11	11
43	08.09.30.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한달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34	34
44	08.10.01.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넌린 게 대박인데...돈이 없어 못 사다니"	12	12
45	08.10.03.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성장주] [053280] 예스이십사 -한국의이베이- /	10	10
46	08.09.29.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잡담] 보통 맞벌이 하시는 분들 한달 생활비 얼마나 쓰세요???	22	22
47	08.10.04.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목요일...올인하신분들은...대체....	21	21
48	08.09.27.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멜라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36	36
49	08.09.24.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이런 장은 겁납니다.	13	13
50	08.09.23.	사적영역	함투 (함께하는 주식투자) - 네이버 카페	경제	30% 보유현금 확보...	16	16
51	08.08.01.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교육학은 암기일까 이해일까	14	14
52	08.08.02.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남자선생님들~~~제궁금증에살포시~댓글 하나만달아주세요	13	13
53	08.08.03.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위로받고싶은느낌..이런거네요..^^;;	17	17
54	08.08.04.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면생리대쓰시는분들께도움청해요^^	18	18
55	08.08.05.	사적영역	daum카페,	생활	광주에왔어요~~갈만한곳은어디에있나	16	16

			참사랑 국어		요?		
56	08.08.05.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오늘 병원갔다가.. 훈남의사가 ㅠㅠ	26	26
57	08.08.06.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턱관절로치료받고계시는분좀봐주세요.~ ~ㅏㅏ	15	15
58	08.08.09.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모사립대학교사범대학조교로일하고있습 니다.고민상담좀,,,	15	15
59	08.08.11.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스포츠/ 연예	오늘도 올림픽과 함께 하루가 갑니다....	20	20
60	08.08.13.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잠빨리드는법없나요?ㅠㅏ	17	17
61	08.08.15.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한편의영화같은소설'구해줘'-기욤뮈소	16	16
62	08.08.18.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사회	대한민국:대만1회초현재7대0(대만떡실신)	14	14
63	08.08.20.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교육학 인강..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ㅠㅠ	17	17
64	08.08.22.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이제 3학년 2학기 올라갑니다.	11	11
65	08.09.01.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임용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요 ㅠ	12	12
66	08.09.03.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생활	아빠이야기	19	19
67	08.09.05.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고39월언어모의평가좀충격이네요^^;	19	19
68	08.09.06.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교육	사립학교교사가되려면,어찌해야하나요?	13	13
69	08.09.10.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사회	뜻깊은선물을받았습니다...	18	18
70	08.09.18.	사적영역	daum카페, 참사랑 국어	경제	졸업한지2년만에꼭교사가되어야한다는생 각이들었습니다.	16	16
71	08.08.21.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보통결혼자금얼마나드나요	21	21
72	08.08.21.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여자분들~ 중저가->백화점1층에잇는 화장품으로 바꾸고싶은데.	32	32
73	08.08.21.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주식시장..이런장기침체는보다침이네요..	13	13
74	08.08.21.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오늘면접보다가..그만..자리를박차고나와 버렸어요	16	16
75	08.08.25.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첫출근과동시퇴사;;;;;;;;;;;;;	14	14
76	08.08.25.	사적영역	daum카페	생활	남자분들아...여자가먼저고백해서사귀게	18	18

			취업뽀개기		되는경우예요...		
77	08.08.26.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환율올라가는거보니까님두렵습니다ㅠㅠ	16	16
78	08.08.26.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결혼을..꼭해야할까요?	38	38
79	08.08.27.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지방근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15	15
80	08.08.27.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연애문제]휴...좀감이안잡히네요	13	13
81	08.08.28.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취뽀는 했지만, 연뽀는 정말 힘드네요	13	13
82	08.08.29.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신입사원연수가 끝나고OTL	12	12
83	08.08.29.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여자친구에게전남자친구가나타났다면...	12	12
84	08.09.02.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양다리 는 절대 나쁜게 아니예요	14	14
85	08.09.05.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루이비통왜이렇게좋아하시나요?	15	15
86	08.09.06.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조건 조건 조건	21	21
87	08.09.07.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수험생이면.. 외모에 신경을 쓰면 안되나요? 울엄마가 나보고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대요..	18	18
88	08.09.10.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자꾸실패만한백조의증세...심각해요>,<	19	19
89	08.09.11.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생활	여자들은 경찰이 그렇게 싫은가요??	19	19
90	08.09.18.	사적영역	daum카페 취업뽀개기	경제	서류 전패 후 자살할 뻔 했었는데 :)	24	24
91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경제	파우더워시_블랙헤드에효과적인효소세안 제(거품내는버블망증정)	19	19
92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경제	NEW 주얼리 팩트 (24시간 지속되는 빛의 효과!!)	18	18
93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경제	BEST> 링클 화이트닝 아이솔루션 단품 [주름 미백 기능성 인증 : 제145-248호]	19	19
94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광고	딤 클린 포밍 클렌저	25	25
95	08.08.26.	사적영역	체리아 (화장품 쇼핑몰)	광고	[서인영 립글] 워터샤인 에센스 물광스틱	15	15
96	08.08.26.	사적영역	체리아 (화장품	광고	그린 티 매직 테라피 크림 雨前茶	15	15

			쇼핑몰)		(시즈오카산 유기농녹차)		
97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광고	싸이닉 아쿠아 인텐시브 에센스 (해양심층수의 깊은보습)	19	19
98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광고	컬러쑹 아이즈	25	25
99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광고	[최초!리필증정]루비플워르 파우더 팩트	15	15
100	08.08.26.	사적영역	화장품 쇼핑몰 '체리아'	광고	NEW 크리스탈 세뽀 컨트롤 팩트 (피지조절/결점커버)	15	15
101	08.08.07.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후기]오늘경기를보고난후에...	13	13
102	08.08.08.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의견]박주영선수에게관해서...	21	21
103	08.08.08.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와일드카드 한장을 이천수에 썼다면..?	25	25
104	08.08.10.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의견]수비그렇게심각하진않았지않나요? ?	25	25
105	08.08.11.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후기] 올대 문제점 아니 한국축구의 문제점 어제 여실히 들어났다. 확실하게	31	31
106	08.08.13.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박주영은....	28	28
107	08.08.14.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의견]올림픽보고축구에투자하지말자는 무개념들을보고...	25	25
108	08.08.14.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주제] 어쩌서 아시아에선 준수한 스트라이커가 못나올까요.	48	48
109	08.08.14.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님들정말궁금한데박주영은그렇게못한거 같지안은데	23	23
110	08.08.14.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반론]박주영이뭘그렇게잘못했나?.,	19	19
111	08.08.15.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언론에서 천재라 한다고 비난하는 논리는 뭇미???	15	15
112	08.08.15.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의견] Park 주영	33	33
113	08.08.17.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설기현 크로스 미스터리...	15	15
114	08.08.17.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의견]내가생각하는국대남아공월드컵베 스트11명단	22	22
115	08.08.18.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의견]신문선해설듣고싶은분없나요???	22	22
116	08.08.22.	사적영역	아이러브싸커	스포츠/	안정환선수말한번잘했다일목요연하게	19	19

			(다음 카페)	연예			
117	08.08.24.	사적영역	아이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한국 축구 원래 실망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창피하다. 정나미 떨어진다.	15	15
118	08.08.24.	사적영역	아이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반론]리켈메는과대평가받고있다	12	12
119	08.08.25.	사적영역	아이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Re: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아는 척 하는 것은 죄입니다.	16	16
120	08.08.25.	사적영역	아이리브싸커 (다음 카페)	스포츠/ 연예	[패러디] 리켈메는 과대평가 받고있다.	12	12
121	08.09.30.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이명박]이렇게명청한사람이대통령이라 니.....	34	34
122	08.09.30.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경제	헐..내년에공무원안뽑는다?	27	27
123	08.09.30.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사회	강의석 군대폐지 카페에 올린글	22	22
124	08.09.28.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사회	운전면허에대한질문이있는데요..^^	17	17
125	08.09.27.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스포츠/ 연예	소녀시대컴백약간난관이예상되네요...	19	19
126	08.09.27.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스포츠/ 연예	[비]엠비씨스페셜예고편완전전다.....ㄷㄷ ㄷㄷㄷㄷ	27	27
127	08.09.26.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북미사일기지25개,3~7분이면남한불바 다"	19	19
128	08.09.25.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이명박대통령이노무현보다잘하는한가지!!	20	20
129	08.09.24.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국제	중국아기를가지고노는일본군인들(협짤)	15	15
130	08.09.23.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盧 문제 나오면 한겨레신문과 한나라당은 같은 편?	15	15
131	08.09.20.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사는 사람은 없는데 그 많은 미국산 소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21	21
132	08.09.18.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노다메랑 베바의비교	18	18
133	08.09.14.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사회	결국 추석 (13일) 때 아시아 대지진 일어난다는 건 웨이크였군요	13	13
134	08.09.13.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국제	"착실한中...오만한러...탄탄한美"	15	15
135	08.09.12.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정치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면 어찌지요?	27	27
136	08.09.11.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스포츠/ 연예	베토벤바이러스에서이지아	12	12
137	08.09.10.	사적영역	daum카페,	정치	김정일건강악화설...김정일죽고북한에친	15	15

			한류열풍사랑		중정권이들어선다면?		
138	08.08.31.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종교	개신교측에서 만든 만화 1	29	29
139	08.08.30.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사회	한국이 다른 나라에비해 정이 많은편인가요 ?	20	20
140	08.08.25.	사적영역	daum카페, 한류열풍사랑	사회	정의구현사제단이위험하네요...	20	20
141	08.09.26.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하루한끼두안먹어두다이어트가넘넘즐 거워잉♥	11	11
142	08.09.26.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하늘자전거를하고있어요.	10	10
143	08.09.25.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저녁을어떻게끓어요ㅠㅠ!?????????	12	12
144	08.09.18.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중3여잔데요인문계갈지실업계갈지고민	22	22
145	08.09.17.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저어제다이어트약샀는데ㅋㅋㅋ	11	11
146	08.09.16.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몸무게는 그대론데 빠져보인다는건 될까요?	14	14
147	08.09.16.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응아잘안나와염ㅠㅠ흑흑후궁ㅠㅠㅠㅠㅠㅠ	14	14
148	08.09.14.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생리중에운동하면효과없어요?	12	12
149	08.09.08.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현재12kg뺐지만..더빼고싶다느뉴ㅠㅠㅠ	10	10
150	08.09.05.	사적영역	daum카페, 성공다이어트/비 만과의 전쟁	청소년	교복이커졌나봐요!!	14	14
151	08.09.30.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끄적끄적...]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더니....알려주세요	15	15
152	08.09.29.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생활	쌀쌀한 아침 이네요 ~	23	23

			두근♥커플예감				
153	08.09.19.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재잘재잘~☺]솔로의서러움..	28	28
154	08.09.03.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명절이다가오네요	18	18
155	08.08.30.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끄적끄적...]주말에근무하신분저말고없 쨌죠ㅠ.ㅠ	26	26
156	08.08.23.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우울한하루~]목소리만좋았던변태같던 남자-_-;;	27	27
157	08.08.23.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끄적끄적...]전요즘..	39	39
158	08.08.19.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종알종알~☆] 오늘도 카메라를 챙긴다...	19	19
159	08.08.11.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열받는날~♬]강봉모토로라서비스센터 여자분들조심하세요	17	17
160	08.08.05.	사적영역	daum카페, 최강남녀♥두근 두근♥커플예감	생활	카페에 있으면서 느낀점들....그리구 추억들... 최강 카페 사랑해요 ^^	21	21
161	08.09.30.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신동엽신봉선의삼페인출연	13	13
162	08.09.30.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9월30일자한터주간차트+ 실시간차트	31	31
163	08.09.29.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스태프 다이어리 中	50	50
164	08.09.29.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서울드라마페스티벌',스타와함께축제를	14	14
165	08.09.29.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스케줄추가됐어요^^	38	38
166	08.09.29.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9월29일한터주간차트+ 실시간차트	23	23
167	08.09.29.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청소년	총공시간과총공방법+ 꼭보세요!!	15	15
168	08.09.28.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스포츠/	10월18일제주에서한중가요제합니당!	40	40

			MITOTIC	연예			
169	08.09.27.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0927]카아들정말.....천표나나요!!!!!! !!!!!!!!!!!!	12	12
170	08.09.27.	사적영역	동방신기팬카페 MITOTIC	스포츠/ 연예	흑시모르는분들을위한CD리핑하는방법	38	38
171	08.10.08.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힘들어요	12	12
172	08.10.07.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캐나다가게생겼네요ㅍㅍ	14	14
173	08.10.07.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그냥 일반고 같까 생각중이에요.....	13	13
174	08.09.23.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채팅방에서 신세한탄 하시는분들 동의하에 강제추방 합니다?	25	25
175	08.09.16.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몇시간자세여???????????	31	31
176	08.09.14.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추석! ^^ 잘들 보내셨어요?	16	16
177	08.07.15.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외고가 목표라면!!!	22	22
178	08.08.31.	사적영역	특사모(네이버카 페-특목고 갈 사람 모여라)	청소년	특목고도 모자라 특목중 로또?	13	13
179	08.04.22.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최근에내가저지른가장못된짓은??	48	48
180	08.07.12.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으아~너무 창피하잖아!	26	26
181	08.05.11.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알밋다!알미워..세상에서 제일 알미운 행동은?	35	35

182	08.04.08.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커플들틈에혼자꺼서처량했던경험은??">	17	17
183	08.03.25.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내가물려받은몹쓸유전자는무엇??	25	25
184	08.03.08.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개학일주일!반에특이한친구를소개해주세요!	19	19
185	08.03.05.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좀바꿔줄래?이런선생님학교에꼭있다!	18	18
186	08.02.26.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그여자!그남자에게 묻는다!	18	18
187	08.02.29.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열받는 염장멘트는??	16	16
188	08.01.06.	사적영역	daum카페, 인터넷 소셜 전문카페 아름다운 소셜	청소년	내인생의웬수는누구?	15	15
189	07.12.18.	사적영역	글틴(청소년전용 온라인 문학사이트)	청소년	장르문학도 당연히 '문학'이라 생각합니다	12	12
190	07.12.04.	사적영역	글틴(청소년전용 온라인 문학사이트)	청소년	도희님의 글에 대한 저의 반박문	13	13
191	08.10.08.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사회	찐빵소녀 폭행한 여주인, 구속	59	20
192	08.10.07.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사회	'달려 모으기' 운동? 네티즌 '엇갈린 반응'	237	20
193	08.10.07.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사회	YTN 무더기 해고 사태... '돌발 영상'도 존폐 위기	117	20
194	08.10.07.	사적영역	dcinside.com	언론	'모방자살' 부추기는 보도행태 심각	61	20

			(디시인사이드)				
195	08.10.06.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생활	SK 채병용, 야구장에서의 로맨틱한 청혼	30	20
196	08.10.05.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정치	사이버 모욕죄 도입 놓고 '갑론을박'	196	20
197	08.10.03.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언론	외설문구 G-드래곤 의상 방송, 방통위 주의받아	176	20
198	08.10.01.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정치	"멜라민 표시가 없네?"...MB 돌발영상 '빈축'	386	20
199	08.10.01.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국제	中 우주 유영, '조작설' 등 의혹 제기	529	20
200	08.10.01.	사적영역	dcinside.com (디시인사이드)	스포츠/ 연예	"김장훈 씨, 제발 아프지 마세요"	77	20

대표연구자 : 허재영

공동연구자 : 김정남, 김슬옹, 김주환, 한성일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발 행 인 이 상 규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 827
전 화 : 02-2669-9775 : 02-2669-9727

인 쇄 일 2008 12 26 !

발 행 일 2008 12 29 !

인 쇄 계문사